

2023 인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 지표	5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7
가. 대외 여건 악화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인도 경제	7
나.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핵심 시장	13
다.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보호무역주의로 주요국 중심 경제협력은 강화하고 있으나, 특정국(중국) 중심 차별 확대 강화	15
라. 인도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 배출 감축	18
마. 인도의 대對세계 수출, 양적·/질적 변화	22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28
2. 시장 분석	57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57
나. 수출입	65
다. 투자 진출	71
라. ODA	79
마. 프로젝트	81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86
가. 교역	86
나. 투자	90
다. 협력 유망 분야	95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10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105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111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116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119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122

2023

인도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상승세 지속) 코로나19 확산세 감소하며 경기 회복, 2월 러-우 사태 이후 대외요인으로 인한 지속적 물가상승, 루피화 가치하락, 공급망 부족 현상에서도 7%대의 성장을 유지

-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함께 투자·고용·무역·제조 부문 모두 견조한 회복
 - '22.1월 인도중앙은행(RBI)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함께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 9.2%를 전망하였으며, 투자·고용·무역·제조 부문 모두 견조한 회복세 지속
 - * '22.1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30만 명까지 치솟았으나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22.3월 두 달 만에 2천여 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
- 2022/23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일제 하락세
 -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이에 '22.6월 인도중앙은행은 GDP 성장률을 7.0%까지 낮췄으며, 주요 국제금융기관들 또한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조정
 - * Fitch, 경제성장 감소요인이 준 것으로 판단, 성장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 2022/23 회계연도 주요 기관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전망 시점	인도 은행		국제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RBI	SBI	ADB	World Bank	Moody's	Fitch
'22년 2분기	7.2('22.6)	7.5('22.6)	7.5('22.4)	7.5('22.6)	8.8('22.5)	7.8('22.6)
'22년 3분기	7.0(△0.2)	6.8(△0.7)	7.0(△0.5)	6.5(△1.0)	7.7(△1.1)	7.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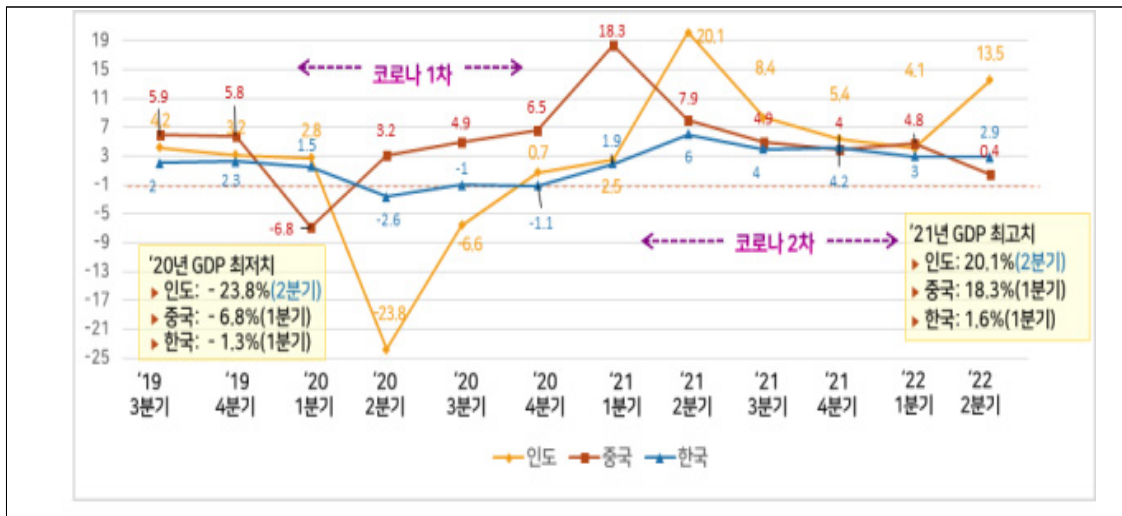
자료: 각 주요 기관별 발표자료('22.10월)

- 인도 2020~2023년 GDP 대비 시가총액(m-Cap) 비율 100% 상회 (상승세 지속)

* 시가총액/GDP(%) : (FY21) 104 → (FY22) 112 → (FY23E) 102 / 장기평균 비율은 81%

- '22.1분기(1~3월) 명목GDP 세계 5위(IMF), '29년 세계 3위 경제 대국 전망(SBI)
 - IMF 기준 GDP, 환율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 인도의 명목GDP는 올해 1분기 8,547억 달러로, 영국의 8,16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5위를 기록
 - 인도는 G20 국가 중 유일하게 올해 6~7%대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IMF 기준 연간 기준 명목GDP 또한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
 - * 2022 G20 국가 경제성장률 : 미국(2.3%), 중국(3.2%), EURO(2.6%), 그 외 일본 등 G20(2~3%대)
 - '22년 2분기(4~6월) GDP 성장률은 13.5%로 전년 동기 20.1% 성장률에 이어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韓·中·印 최근 3개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국별 발표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취합

나.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백만 명	1,324	1,354	1,369	1,383	1,396	1,408	1,417	1,429
명목GDP*	십억 달러	2,262	2,652	2,704	2,832	2,665	3,174	3,299	3,468
1인당 명목GDP*	달러	1,598	1,981	1,998	2,070	1,935	2,283	2,515	2,745
실질성장률*	%	7.1	6.7	6.5	3.8	-6.7	8.8	6.9	5.1
실업률	%	5.5	5.4	5.3	5.3	9.0	8.0	7.2	6.9
소비자물가 상승률	%	4.9	3.3	3.9	3.7	6.6	5.1	7.0	5.2
재정수지 (GDP 대비)*	%	-3.5	-3.5	-3.4	-4.7	-9.2	-6.7	-6.6	-6.0
총수출	십억 달러	268.6	304.1	332.0	331.2	281.5	402.4	477.6	510.9
(對韓 수출)	"	11.5	15.0	15.6	15.0	11.9	15.6	12.9(9월)	-
총수입	"	376.0	452.2	518.7	488.9	376.9	579.1	729.5	766.5
(對韓 수입)	"	4.1	4.9	5.8	5.5	4.9	8.0	6.7(9월)	-
무역수지	십억 달러	-107.4	-148.1	-186.6	-157.6	-95.4	-176.7	-196.3	-194.2
경상수지	"	-12.1	-38.1	-65.6	-29.7	32.7	-33.4	-49.6	-48.9
환율 (연평균)	현지국/US\$	67.2	65.12	68.39	70.42	74.10	73.92	79.05	82.40
해외 직접 투자*	억 달러	153	165	135	131	150	176	46(9월)	-
외국인 직접 투자	억 달러	440	399	421	506	641	447	322(6월)	-

주: 2022, 2023년은 전망치, (*)는 인도 회계연도 기준(당해년 4월~차년 3월)

자료: 인구, 명목GDP, 실질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재정수지, 총수출, 총수입, 환율, 무역수지, 경상수지(EIU), 1인당 명목GDP(IMF), 對韓 수출, 對韓 수입(KITA), 해외 직접 투자(印 기업부), 외국인 직접 투자(印 산업무역진흥청)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소비·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 바탕으로 성장세 지속, 루피화 평가절하 등 일부 경제여건 악화
-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자주 인도' 정책으로 세계의 생산기지이자 수출기지로 발돋움
- ※ (위험) 비관세장벽·환경규제 등 / (기회) 전기차·그린·특별경제구역 등

가. 대외 여건 악화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인도 경제

■ 러·우 사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위험, 공급망 차질, 루피화 가치하락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생산·소비·고용·투자 부문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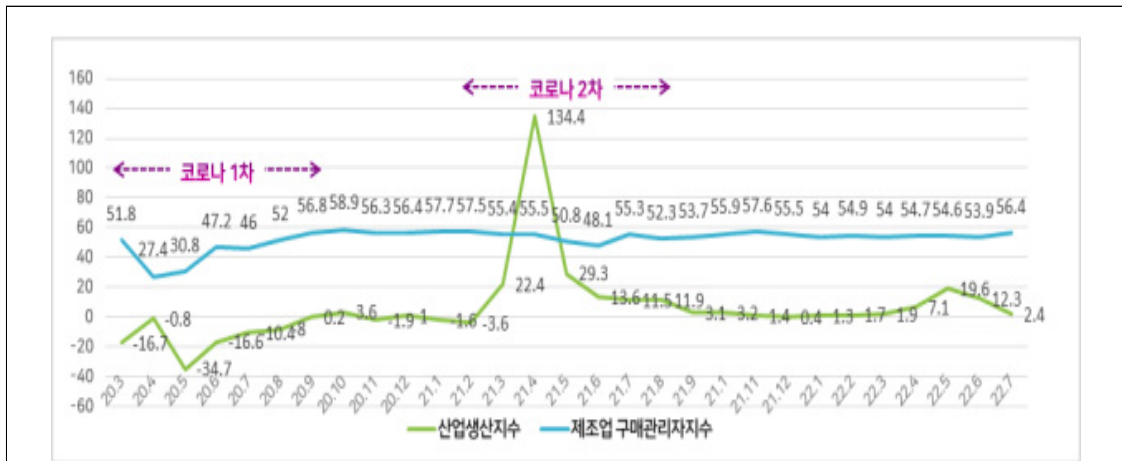
- 14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생산·제조 활발, 선제적 통화정책(금리인상) 및 확장적 재정(인프라 부흥정책)에 기인

- (생산) 제조업 분야 국제 주문 증가로 재고 및 고용 확대(PMI 13개월 연속 50 상회), 단계적 경제 회복으로 신흥국 중 가장 큰 성장 기대

* '00년 이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연평균 GDP 성장률 6~7%대를 유지하며 고성장세 기록

〈 최근 3개년 산업생산지수·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변동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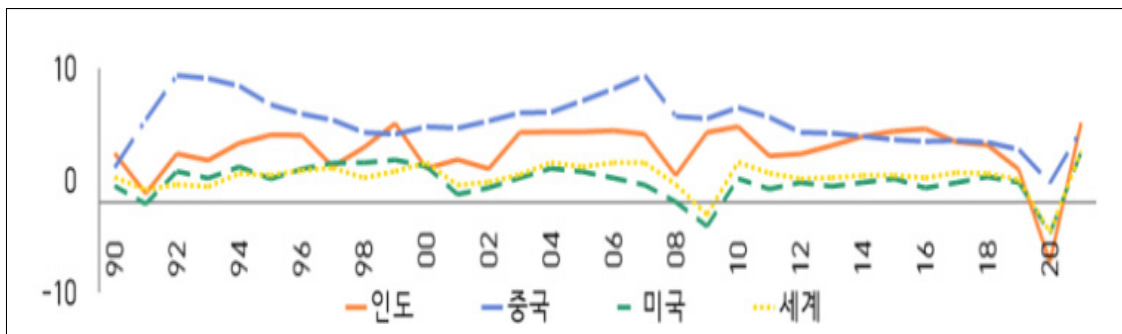
(단위: IIP(%), PMI(p))



자료: S&P Global, MoSPI(인도 통계국) 자료 바탕으로 뉴델리 무역관 편집

- (소비) 1.7조 달러의 거대 소비시장(BCG, '21) 보유, GDP의 약 70%가 국내 민간 소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젊은 인구층, 낮은 부양비 등 소비 확대
 - *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산 기준 인도 경제는 세계 3위 규모
 - * 인구의 3분의 2(약 9억 명)가 35세 미만이며, 낮은 부양가족 비율(Dependency Ratio)로 부양 노령인구가 적고, 자신들에게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음
- (정책)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 확대, 4차례 연속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루피화 가치하락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 850억 달러가량 사용
 - * '22년 인도 정부 자본지출 규모는 10조 루피(약 1,3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가량 증가
 - * 4%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다가 최근 5개월('22.5~9월)에 걸쳐 1.9%p를 인상(5.9%), 인도는 '22.12월, '23.2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의 긴축 사이클을 끝낼 것이라 예상됨(EIU, '22.10)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7월 기준 6.71%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8월 식품·채소 등 가격상승으로 다시 7%대로 증가하며, RBI의 관리비율(4±2%)을 9개월째 벗어난 상황이며, 생산자(WPI; Wholesale Price Index)가 소비자(CPI)에게 물가를 전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 WPI는 2022년 5월 16.63에서 9월 10.7까지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 '23년 3월까지 CPI는 5%대로 하락할 전망(SBI, '22.9.), '23년 평균 CPI는 5.2% 기록 전망(EIU, '22)
 - * 인도 축제 기간(9~10월) 수요 회복 속에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지속 판매함에 따라 '22년 4분기 CPI는 6.9%에 머무를 것이나, 긴축 통화정책과 상품가격 조정 등으로 '23년 초부터는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 식품가격 또한 10월 이후 추수가 본격화되며 인플레이션이 조정될 것(EIU, '22.9.)
- (자본) 명목GDP 대비 총 저축률 31.4%, 투자 34.3%로 자본축적도 증가('21.3.)하며, 건강한 저축 및 투자 비율을 보이며 성장을 이끌고 있음

〈 인도·미국·중국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90~'21) 〉



자료: World Bank('22.7.20.)

〈 2022년 주요 경제 지표 변화 양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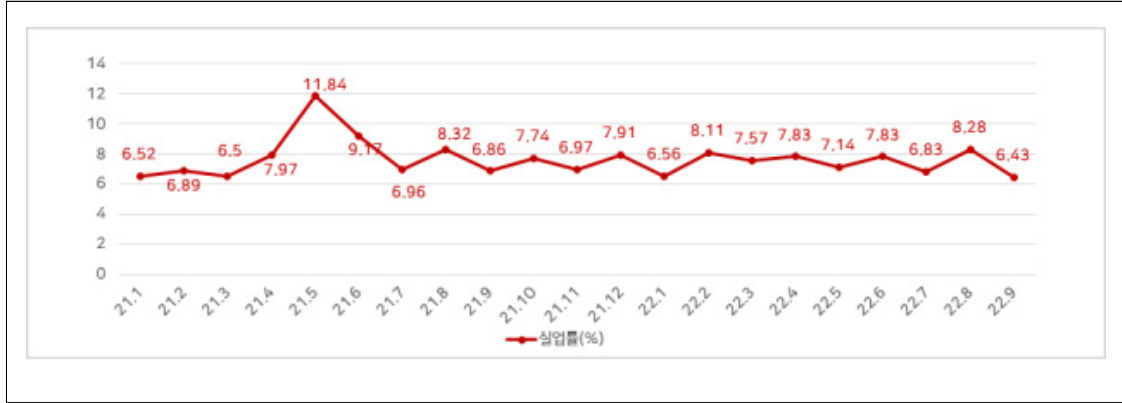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21년	2022년											
			'21.4~ '2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GDP 증가율(분기, 연)		%	8.7	4.1			13.5			6.2E			4.1E		
기본금리		%	4.0	4.0			4.4			4.9			5.4		
생산	산업생산지수(IIP)	%	11.4	1.5	1.7	2.2	7.1	19.6	12.3	2.2	-0.8	-	-	-	-
	구매관리자지수(PMI)	p	53.8	54.0	54.5	54.3	54.7	54.6	53.9	56.4	56.2	55.1	55.3	-	-
소비	도매판매물가지수(WPI)	%	11.7	13.68	13.43	14.63	15.38	16.63	16.23	13.93	12.41	10.7	-	-	-
	소비자물가지수(CPI)	%	5.3	6.01	6.07	6.95	7.79	7.04	7.01	6.71	7.00	7.41	-	-	-
투자	외국인투자(FDI)		586.3	155.8			165.8			-			-		
무역	수출액	억 달러	4,196.5	352.1	371.3	403.8	381.9	388.3	401.3	352.4	330.0	326.2	-	-	-
	수입액		6,118.9	519.3	557.1	590.7	582.6	606.2	663.1	662.6	616.8	593.5	-	-	-
구분		단위	2022년 최고치	주간											
				6.13.	6.20.	7.25.	8.1.	8.8.	8.16.	8.29.	9.12.	9.19.	9.26.	10.10.	10.17.
기타	환율(달러/루피)	-	82.35	78.23	77.9	79.82	79.13	79.53	79.65	79.87	79.68	79.74	81.47	82.33	82.39
	센섹스 지수	p	62,245	52,792	51,392	55,678	57,814	58,568	59,887	57,367	60,197	58,840	57,243	58,191	58,128

주: E는 전망치 표시, FDI는 소득 재투자 잉여금 및 기타 자본 제외한 Equity 기준
 자료: 인도 통계국(MoSPI), 인도 상공부, 인도중앙은행(RBI) 등 정부 자료 종합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이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제조업·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대규모 고용 창출, 경제성장의 회복을 이룩하고, 대면 서비스에 대한 억눌린 수요 방출로 추가적인 경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91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 세계 경제 편입을 위한 노력으로 경제의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를 추진, FDI를 개방하고 '14년 이후로는 Make in India, '자주 인도' 정책을 위시로 한 제조업 육성 및 수출국가화 노력 전개
 - 기존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22년까지 제조업의 GDP 기여율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Make in India' 정책 추진
 - * 인도 제조업 GDP 기여율(% , 회계연도 기준) : '20년 14.7 → '21년 14.4 → '22년 15.4E
 - '20.5월 Make in India 2.0 버전인 자주 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을 추진하며 글로벌 생산기지 및 글로벌 공급망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임을 발표
 - (실업률) 백신 공급 및 인프라 부흥 정책 등으로 대규모 고용 창출, '22.1월 6.5%까지 개선, '22.9월 6.4%를 기록, '23년에는 평균 6.9%로 수렴할 전망

〈 인도 최근 2개년 월별 실업률 추이 〉



자료: 인도 경제 모니터링 센터(CMIE)

- '20.3월 제조업 확대를 위해 총 15개 부문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Linked Incentive) 제도를 발표, 對中 의존도 감소,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투자 유입 및 수출 강화를 촉진코자 함

〈 PLI 개요 〉

- (적용분야/담당부처) 화학, 철강, 통신기기 등 총 15개 부문 / 11개 부처
- (규모/효과) 약 304.2억 달러(약 2.4조 루피) / 5년간 5,200억 달러 현지 생산
- (신청방법) 기간별 각 담당부처 사이트에 개설된 신청 창구 통해 신청
- (지원내용) 목표 달성 시, 4~6년간 수출액 혹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
- (주요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Dell, 폭스콘, 미츠비시전기, 지멘스, 네슬레, 홍하이 등

- 동 제도에 따라 PLI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지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약정한 투자와 매출 목표 달성 시 금전적 지원을 제공받음
- 현재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델(美), 미츠비시전기(日), 지멘스(獨), 네슬레(士), 홍하이(臺) 등 글로벌 기업들은 PLI를 활용하여 공급망 다각화 및 공급망 리스크 헷징

〈 인도 PLI를 활용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사례 ① - 애플社 〉

애플은 '21년 3월 신형 스마트폰 기종 아이폰12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를 인도 공장 이관 발표. 제품 생산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미국, 중국 간 정치·경제적 갈등이 커지면서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 인도 정부는 중국의 아이폰 생산분을 확보하기 위해 애플에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등 유인책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아이폰 위탁 생산 대만 3사(홍하이, 페가트론, 위스트론)는 지난 '20년 8월 전자기기 부문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신청, 애플의 생산 거점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추진 본격화

〈 인도 PLI를 활용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사례 ② - HP社 〉

HP는 美-中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19년 7월 중국 노트북 생산량의 30%를 중국 외 국가 이전을 발표 및 '20년 4월 인도 생산공장 확대 발표. HP 위탁생산업체 Flextronics는 '21년 5월 전자기기 제조부문 PLI를 신청했으며 '21년 12월부터 인도 첸나에서 노트북 첫 생산을 개시. 향후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 확대할 계획

- (PLI 2.0) 인도는 PLI 1.0을 성공리에 마친 후 PLI 2.0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섬유, IT 하드웨어 등이 대상 산업이 될 예정

* 인도는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가 인도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PLI 등 투자 유인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향 생산기지 이전 유도

→ (기회) 우리 기업 또한 중국, 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 구조를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으로 다변화하고, 차세대 산업기지 개발 적극 추진 필요

〈 PLI 2.0 대상 산업 예상 부문 〉

1. 섬유 : 가정용 섬유를 비롯한 다양한 의류 및 의류 관련 액세서리(단추, 레이스, 지퍼 등)를 대상으로 420억 루피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2. IT 하드웨어 :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지난 PLI 1.0 예산의 2배인 1,900억 루피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인센티브 요율 또한 2.5배 인상할 계획임. 현재 델, HP,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개정안을 두고 논의 진행 중
3. 완구 : 인도 완구업체는 글로벌 완구 부문 제조 허브 및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고자 완구 부문 PLI를 적극 도입할 예정

자료: 현지 언론보도 내용 정리

〈 분야별 PLI 제도 현황 〉

연번	분야	금액 (억 달러)	정책 발표일	지원 분야	대상 기업 수		주요 기업
					신청	승인	
1	모바일·부품	50.73	'20.3.21.	1) 휴대폰 2) 휴대폰 부품	22	16	Samsung, Lava, AT&S
2	전자기기	9.07	'21.2.24.	1) 노트북 2) 태블릿PC 3) All-in-one PC	19	14	Dell, Wistron, Foxconn
3	의료기기	4.23	'20.3.20.	1) 항암, 방사선치료 2) 핵의학방사선 등 3) 심장 관련 기기 4) 임플란트 등	28	13	Philips, Allied Medical
					14	8	
4	의약품	18.58	'21.2.24.	1) 바이오·복제약품 2) 유효 성분 등 3) 항암제 등	278	55	SunPharmaceuticals, Cipla
5	의약품 원료	8.59	'20.3.20.	1) 발효 기반 의약품 2) 합성 의약품	239	49	Aurobindo Pharma, Natural Biogenex, Kinvan Private Ltd
6	식품	13.50	'21.3.31.	1) 해산물 2) 증식식품 3) 과일 및 야채 4) 치즈류	215	149	Britannia Industries, Haldiram Snacks
7	통신기기	16.34	'21.2.17.	1) 전송장비 2) 4G/5G 기기 3) 스위치, 라우터 4) 기타(EGoS 지정)	37	31	Nokia, Dixon, Foxconn
8	태양광 PV 모듈	5.57	'21.4.7.	고효율 PV 모듈	19	3	Shirdi, Reliance, Adani
9	백색가전	7.72	'21.4.7.	1) 에어컨 2) LED 3) 에어컨/LED 부품	52	42	Panasomic, Havells, Daikin Air-conditioning
10	첨단 화학전지	22.42	'21.5.12.	화학전지	10	4	RIL, Ola, Rajesh Exports
11	섬유	13.23	'21.9.7.	섬유류(방산, 의료, 스포츠, 특수섬유 등)	67	61	RIL, Arvind, Bombay Dyeing, Welspun
12	드론 및 부품	0.14	'21.9.15.	1) 드론 2) 드론 핵심 부품	25	-	-
13	자동차·자동차 부품	32.13	'21.9.15.	1) 자동차 부품 2) 전기/수소차 부품	115	95	Hyundai, Kia, Suzuki, Tata
14	특수철강	7.83	'21.7.22.	1) 코팅/도금 철강 2) 고강도철강 3) 특수레일철강 4) 합금제품 및 철 5) 전기 강판	75	-	(신청) Tata Steel, JSW Steel, AMNS India
15	반도체	94.15	'21.12.15.	1) 디스플레이 팹 2) 화합물반도체 등 3) 반도체 조립시설 4) 반도체 디자인	14	-	(관심 표명) Foxconn, Vendata, Elest
총계		304.23			1,229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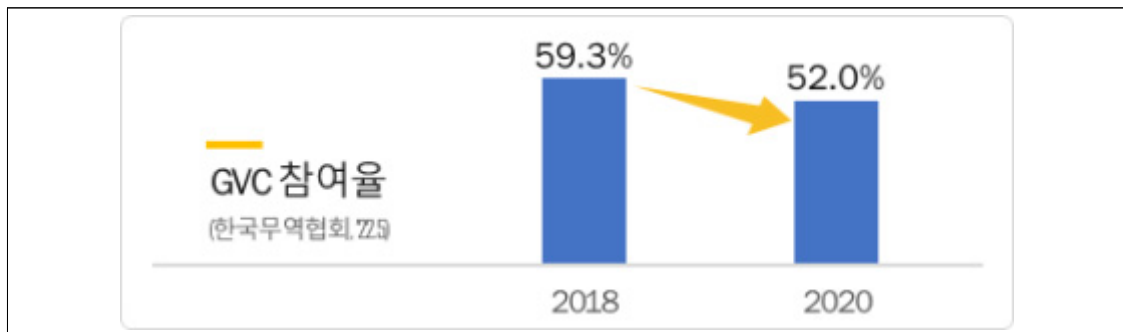
자료: 인도 중앙정부 자료 정리

나.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핵심 시장

■ 글로벌 공급망의 뉴 노멀과 인도의 위상

- 미-중 전략 경쟁 속 지역주의 심화로 GVC 지역화(Regionalization) 발생하며 전 세계 GVC 참여율은 하락하고, 가치사슬 효율성이 아닌 공급망 안정성의 극대화로 패러다임 전환

〈 전 세계 GVC 참여율 변화 〉



- 지역 블록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사 입장 국가 간 중국을 배제한 안전한 공급망 구축 도모
-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 신규 투자 및 핵심 생산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 현지 시장 추구형 직접투자를 위한 생산거점 이동을 모색하고 있음
 - * 글로벌 기업 63% 이상이 중국 내 생산기지의 40% 이상을 인도-동남아로 이전하는 脫중국 계획을 수립(UBS, '20), '20년부터 삼성, 위스트론, 폭스콘 등 생산공장을 탈중국-인도항 추세
 - 최종 소비자인 신흥시장(니어쇼어링) 및 동맹국(프렌드쇼어링)으로 공급망 이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신흥국 정부는 해외 신규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
 - * 애플 조달 품목 중 인도산 비중 100% 증가 예상(카운터포인트리서치, '22.4.), 애플 에어팟 및 Beats 헤드폰 생산업체를 인도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22.10.)
 - * ISMC(International Semiconductor Consortium), 인도 카르나타카주에 3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IC 파운드리) 신설 발표('22.5.)
 - 일부 선진국 정부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 기업 대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일본 정부는 '20년 4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정책을 발표. 중국에 제조시설을 둔 일본 기업이 베트남, 인도와 같은 타 아시아 국가로 공장 이전 시, 235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
 - * '공급 사슬 개혁' 정책을 통해 2,435억 엔을 배정하여 일본 기업이 중국 생산 공장을 타국으로 이전 시 비용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는 등 탈중국 정책 적극 추진

●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에 따른 공급망 핵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노동)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생산기지가자 풍부한 노동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제조업 하기 좋은 국가 2위(World Manufacturing Risk Index, '21.8)에 선정
 - * '23년 인도 인구는 14.28억 명으로 중국(14.26억 명)을 제치고 세계 1위 예상(UN, '22.7.)되며, 현재 8.5억 노동인구 중 50%가 27세 이하 청년으로 풍부하고 젊은 노동인구 보유(BCG, '21)
- (자본) 코로나19 이후, 對인도 FDI는 3개 회계연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22 회계연도 4분기 FDI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약 156억 달러
 - * 글로벌 기업 1,200개 사, 인도를 유망 투자국으로 선정(Deloitte, '21.9.)
 - * 미 글로벌 기업(아마존, 인텔, 구글, 쿠팡, 월마트, 메타 등) 전략적 대형 투자 결정

〈 최근 4개년 對인도 투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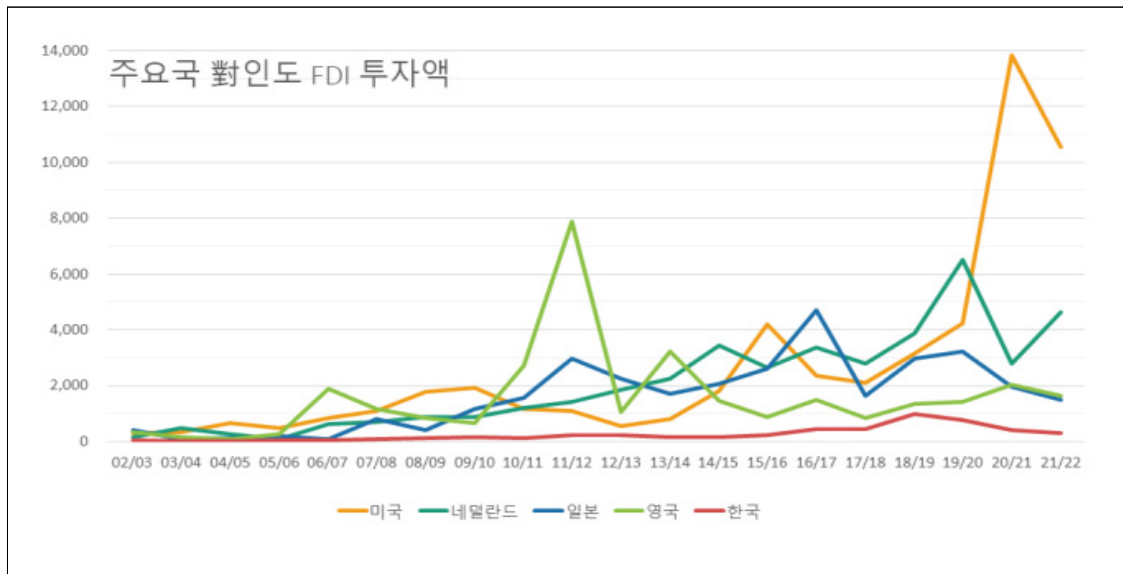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2018/19		2019/20		2020/21		2021/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44,366	△1.0	49,977	13.0	59,636	19.0	58,773	△1.0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Department for Promot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 주요국 對인도 FDI 투자액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다.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중국産 수입의존도 완화, 러-우 사태 이후 원자재 등 수입금액 증대로 심해지는 무역적자 완화 등을 위해 관세를 인상, 반덤핑 조치, 비관세 장벽을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 (위협) 우리 기업들은 △관세·원산지 인정 등 한-인도 CEPA 활용의 어려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자의적 관세 부과 등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투자 인센티브 미지급 등 다양한 애로 제기

〈 현지 진출 기업 애로사항 접수 내역 〉

- 조사 기간 및 규모 : 2022년 1~3분기 / 총 55개 사 96건의 對인도 진출 애로
- 조사방식 : 현지 공관, KOTRA, 코리아플러스 등을 통해 애로사항 접수
- 기업규모 : 대기업 16개(29.1%), 중견·중소기업 39개(70.9%)

- '20년 9월부터 시행된 FTA 원산지 검증 강화에 따른 추가서류 작성 부담 증가
 - 「Finance Act, 2020」제정(20.3.27)을 통해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내 제28DA조(원산지 관리 조항) 신설
 - 이 법률에 근거, 인도 수입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 FTA 체결국産 관세 혜택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보유·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 보증을 관세 담보로 제공 후 통관 가능
 -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만으로 FTA에 의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으나, 국내법을 개정하여 FTA 관세 특혜 적용 신청을 한 물품의 원산지 관련 정보를 기재한 서식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출자의 서류 작성 및 원가 정보 노출의 부담 가중
 - 관할 세관에 은행 보증 제공 및 수입 통관 후 원산지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 은행 보증이 해제되어야 하나 세관의 은행 보증 해제 조치 지연으로 비용 부담
 - (주의사항) 한-인도 CEPA 적용 * 원산지증명서 원본 송부, * 사이트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 FORM I 작성법 숙지
- '21년 이후, 품목분류 불일치로 인한 관세 차액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DRI 관세 조사 증가
 - 인도 관세조사국(DRI),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 HS 코드가 아닌, 그보다 높은 세율의 HS 코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차액 추징 시도(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 사례 다수 발생)
 - 또한, 관세 차액 미납부 시, 출고 금지 명령, 해당 기업의 종합적인 세액 심사 등 진출 기업 불이익 가능성 암시
 - 공탁금 제공 후,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후에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소송 진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예상
 - (대응방안) 수출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Advance Rulings), 수출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도 세관 담당자를 통해 HS 코드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 보관 및 *품목분류 국제 분쟁 신고 또는 소송 진행 등 신중한 의사결정

- '22년 2월, 연방예산안을 통해 점진적 관세 인상 계획 발표
 - 발전소, 공장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플랜트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존 0~5% 부과되던 관세율이 '23년 9월 30일부터 7.5%로 인상 예정
 - 단계별 제조업 지원 정책(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 시행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오디오 디바이스 등 제조를 위한 수입물품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관세 인상 예정
- 2019년 이후,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확대에 의한 비관세장벽 강화
 - '19년 11월,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작으로 '21년 석탄, 반도체, 비철금속 제품으로 대상 확대
 -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HS코드 8자리 기준으로 지정 품목 수입 시 온라인 시스템 내 정보 등록 및 수수료 납부 의무화
 - '22년 10월부 종이 제품(HS코드 8자리 기준 201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Paper Import Monitoring System) 시행

〈 인도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

종류	대상	HS Code	시행일	웹사이트
철강 (SIMS)	철강제품	72류 73류 86류	'19.11.21.	http://dgftebrc.nic.in:8090/SIMA/
석탄 (CIMS)	석탄	2701	'21.04.01.	https://imports.gov.in/CIMS/public/home
비철금속 (NFMIMS)	구리, 알루미늄	74류 76류	'21.04.12.	https://imports.gov.in/MIMSC/public/home https://imports.gov.in/MIMSA/public/home https://imports.gov.in/MIMSA/public/home
집적회로(반도체) (CHIMS)	반도체 집적회로	8542	'21.10.01.	https://imports.gov.in/MEITY/public/home
종이 (PIMS)	종이	48류	'22.10.01.	https://imports.gov.in/imsdpiit/public/home

자료: 인도 정부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웹사이트

-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의무화 대상 지속 확대('22.8)
 - 인도 필수 인증인 BIS 인증 대상을 태양광·자동차 부품 등 다양하게 확대
 - '20년 말부터 '22년까지 강제 인증 대상이 철강 및 화학물품 중심으로 지속적 확대하여 '22년 10월 기준, 474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 대상 품목 지정
 - * ISI 마크제도 대상 품목은 총 474개로 2021년 1월 대비 50여 개의 품목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2월부터 '22년 4월까지 한국 제조공장 방문 실사가 불가하여 ISI 마크제도 해당 물품의 인증 진행이 중단되었음. 인도 표준국은 인증 시행일 연장을 사전 고지하지 않아 인도 수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함

- 강한 보호무역주의로 인도 정부의 전 세계 대상 무역구제 신규 조사 건수는 '20년 100건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 추세
 - '21년 무역구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전체 38건을 기록, 단, 對한국 신규 조사 개시 5건 기록
 - 경기 침체 우려 및 소비업체의 반발 등으로 '21년부터 인도 정부의 무역구제 신규 조사 및 최종 판정 부과 건수 감소 추세를 보임
 - '22년 10월 기준, 對한국 17건(화학 8건, 고무 3건, 철강 4건, 전자 2건)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 '22년, 한국 대상 화학 1건(UDCA), 고무 2건(SBR, PVC Suspension Resins above 2ppm), 전기·전자제품 1건(Single Mode Optical Fibre), 철강 2건(Ferro Molybdenum, Alloy steel chisel, tool and hydraulic rock breaker)에 대해 무역구제 신규 조사 착수
- 보호무역주의 조치 심화로 비관세장벽 강화 지속, CEPA 활용 제약 증가 예상
 - (인증) BIS 인증 대상 확대뿐 아니라 의료기기·의료소프트웨어·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인도 중앙의약품관리국(CDSCO), 에너지효율국(BEE)에서 별도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여 수출 전 인증 획득 준비 기간 및 비용 부담 증가
 - (품목분쟁) '21년부터 인도 대법원 판례 및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인용하여 CEPA 적용 자동차 관련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조사 확대, 2년 및 5년간 수입 건에 대해 소급하여 관세 및 가산세 추징 사례 다수 발생

라. 인도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 배출 감축

■ 세계 3위 탄소 배출국 인도, '22.8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고 관련 법 개정, 각종 환경규제 시행 등 탈탄소 노력 전개

- (탄소 배출 현황) 인도는 26억 4,87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탄소 배출국이나, 1인당 배출량은 1.9만 톤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

* 미국(14.2만 톤, 15위), 한국(12.1만 톤, 23위), 중국(8.7만 톤, 33위) 대비 낮은 수준

〈 세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국 (2021년) 〉

(단위: 톤, %)

순위	국가명	CO2 배출량	점유율
-	전체	378억 5,758만	100.0
1	중국	124억 6,632만	32.93
2	미국	47억 5,208만	12.55
3	인도	26억 4,878만	7.00
4	러시아	19억 4,254만	5.13
5	일본	10억 8,469만	2.87
6	이란	7억 1,083만	1.88
7	독일	6억 6,588만	1.76
8	한국	6억 2,680만	1.66
9	인도네시아	6억 259만	1.59
10	사우디아라비아	5억 8,640만	1.55

자료: EU-EDGAR('22.9.1.)

- (탄소 배출 감축 동향) 유엔 기후변화협약 197개 회원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21년 제출), 인도는 1년 늦게 NDC를 제출('22.8.26.)
 - '30년까지 '05년 탄소 배출량 수준의 45%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국가 에너지 수요의 50%를 비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보존법 2022」 개정안, 인도 하원 통과('22.8.8.), 향후 그린수소 등 녹색연료 사용 의무화 및 탄소 크레딧 시장 기반 구축을 위해 개정되었음
 - * 동 법안은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바, 발효일을 추후 발표 예정

〈 '에너지 보존법 2022'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비화석 에너지원 사용 의무	① 광업, 철강, 시멘트, 섬유, 화학, 석유화학 산업 ②철도를 포함한 운송 부문 ③ 상업 건물에 대해서는 비화석 에너지 소비의 최소비율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미준수 시 벌금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중앙 정부 및 인가 기관은 배출권거래 등록기관에 탄소배출권 발급
에너지 보존 건축법	기존 에너지 보존법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주거용 시설 (① 법률 통지 이후 건립된 건물 ② 최소 연결된 전기 부하 100KW 또는 계약 전력 120 KVA인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
차량·선박 에너지 소비기준	에너지 소비기준의 적용 범위를 차량과 선박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준수 시 100만 루피(약 1,642만 원) 벌금 부과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 추진, 에너지·철강·시멘트 산업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전력·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인도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 시까지 탄소배출권 거래는 국내에서만 허용하며 국외 이전은 금지한다고 언급
- * 장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농업, 산림, 폐기물, 가정용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은 국외 이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거래시장에 대한 세부 내용은 '22.4분기 중 발표 예상
- (기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 관련 용품 수출(이차전지, 에너지 저장기술, 친환경 건축 기자재) 및 현지 제조 검토

■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쓰레기 산으로 골머리를 앓던 인도는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부터 생산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표하며 퇴출방법 고민

- (환경규제)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는 '22.7.1.일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수입·유통·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이에 따라 인도 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 식품 등에 사용되는 스틱류, 음료용 빨대, 포장재 등 상당한 넓은 범위에 규제가 시행

〈 '22년 7월 1일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현황 〉

분류	해당 제품 및 소비 부문
플라스틱 스틱	면봉, 풍선, 사탕,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되는 스틱
일회용품	젓가락, 손가락, 일회용 컵, 빨대, 식기류 등
포장용품	과자 포장지, 초청장, 담배포장지 등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PVC 배너(현수막, 입간판 등)

자료: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

- 엄격한 시행을 위해 감시조직을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별도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추후 PE, PP 및 PVC 등 폴리머 시장 지속 관망 필요할 것
- *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해 친환경적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재활용이 안 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인도 정부는 CSPCB(Central and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s)를 통해 1회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원자재 공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

〈 생산자의 플라스틱 제품 포장 가이드라인 〉

- 공시 : Guidelines on EPR
- 내용 :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친환경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과 방향을 명시
- 효과 :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순환경제 체계를 강화, 플라스틱 포장의 새로운 대체재 개발 유도, 지속가능한 포장으로의 변화 모색
- 비교 : '27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100% 목표 (현재 70% 수준)

자료: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22.2.16.)

-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종이 또는 골판지 형태의 재활용 가능 용품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22년 연말까지 재활용 비닐봉지의 두께를 더 두꺼운 것을 사용토록 규제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비닐 포장재를 사용토록 권고
 - * 50 micron('21.8) → 75 micron('21.9.30.) → 120 micron('22.12.31.)
- 철강재 등 대량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두께 제한의 단계적 강화로 관련 기업들의 포장비용 부담 증가 예상
- 인도 식음료 생산업체들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빨대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은 큰 편
 - * '21.8월 인도 정부는 해당 법 시행에 대해서 예고한 바 있으나, 기업들의 대응 준비는 굉장히 미비한 편이며, 대체품들의 낮은 품질로 소비자 불만 또한 다대
 - (위협) 철강·화학 진출기업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포장비용 부담 증가 등
- 한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기존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크게 증가하며 새로운 시장의 국면을 맞이함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 요구 △대도시의 극심한 대기오염 △원유 수입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도의 '전기차 전환' 과제 중요성 증가

- 환경요인에 따른 전기차 수요 급증, 해당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
 - (규모) 전기차 보급정책 및 완성차 업계의 신모델 출시를 통해 '30년 인도의 전기승용차 시장 규모는 약 100만~14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이륜·삼륜차 포함할 경우 1,380만~1,660만 대('22, 첸나이 무역관-Avalon Consulting)
 - (정책) '12년 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NEMMP)을 통한 초기 비전 수립 이후, FAME I('15), FAME II('19), PLI('20) 등 정책을 통해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등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 FAME :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and Electronic Vehicle

- 자동차의 현지 생산이 늘고, 인도 내 전기차 밸류체인이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對인도 자동차 부품 신규 시장 발굴이 시급
 - 인도 전기차 부품 수입액은 총 382백만 달러('21)로 한국산 일부 배터리(9백만 달러)를 제외하면 배터리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충전기/컨버터, 모터/컨트롤러 등 대부분이 중국산
 - 이륜 전기차의 잇따른 화재로 인한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
 - * 인도 정부는 지속되는 이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 결함과 테스트 기준 부재로 보고, '23년 1월까지 강화된 새로운 안전 규정(AIS156) 도입 예정
 - (기회) 전기차 후발국인 인도 내에서 밸류체인이 형성되기 전 PLI 등 인센티브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 상승을 기회로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기회로 고려할 수 있음

■ 모디 총리, 독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그린수소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여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로 발돋움할 것임을 표명

- '06년 National Hydrogen Energy RoadMap에 따라 '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 2천만 톤 목표 설정, 국가수소정책(National Hydrogen Mission, '21.8.15.), 그린수소정책(Green Hydrogen Policy, '22.2.17.)을 발표하며 그린수소 비중을 확대
 - 인도 정부는 '30년 그린수소 5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는 '그린수소정책' 달성을 위해 그린수소구매의무(GHPO)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 정책은 탄소 배출 집약적인 산업인 정유회사, 비료 및 철강회사가 대상이 될 것
 - * 조달 의무화 비율 : (FY23/24) 10~15%(예상) → (FY28/29) 25%(상향 조정 예상)
- 모디 정부는 예산안 발표('22.2.) 시 그린수소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한 바 있음
 - 그린수소정책 1단계 발표('22.2.17.)하며, 신재생에너지가 그린수소를 만드는 기본 원재료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진흥을 먼저 시행해 NDC를 달성하고 그 이후 이행할 예정임을 밝힘
 - 그린수소의 현재 비용 kg당 350루피(약 5,600원)에서 2029/30 회계연도까지 160루피(2,560원)로 절감, 그린수소를 PLI 제도에 포함 예정임을 발표
 - *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전기분해기 제조에 150억 루피 규모(19억 4천만 달러)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도입 방안 검토 중
- 적절한 정책 활용, 재정 지원, 저비용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면 '30년에는 그린수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16%, '50년에는 94%까지 충족시킬 것 (NITI Aayog, '22)
 - 인도는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으로 '30년까지 철강 생산능력을 3억 톤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그린수소로 대체 시 엄청난 이산화탄소 감축 예상
 - * 철강 1톤 생산 시 이산화탄소 2.3톤 배출
 - 그린수소 시장가치는 '30년까지 80억 달러, '50년까지 3,4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금(10억 달러)이 필요할 것

- 최근 관련한 그린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기업의 투자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린수소 관련 투자 동향 〉

일시	내용
'22.6월	◦ ACME그룹(인도 태양에너지 개발업체)과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남서부 주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공장에 총 67억 달러 투자 약속 ◦ 이는 '27년까지 연간 120만 톤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할 공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MOU에 기반하며, 이를 위한 전력을 전용 태양광 발전소에서 제공될 예정
'22.4월	◦ 하이데라바드에 본사를 둔 그린코 그룹과 벨기에에 본사를 둔 존 코커릴사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2GW 수소전기 공장을 인도에 짓겠다고 발표
'21년	◦ 릴라이언스, 아다니 등 민간 대기업이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각각 750억 달러,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음
'22.4월	◦ OIL(Oil India)는 인도 최초 99.99% 순수 그린수소 시험공장을 가동하였고, 이는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성공한 사례 ◦ 100KW 음이온교환막(AEM) 전해질 어레이를 이용, 기존 500Kw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 생산량을 현재 10kg에서 30kg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2.3월	◦ 인도 도로교통부 장관은 도요타, 국제자동차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인도 최초 그린수소 시범사업인 연료전지 전기차 사업을 실시 ◦ 연료전지전기차(FCEV) 도요타 Mirai를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이에 따라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1.7월	◦ NTPC, 인도 북부 Ladakh 지역에 인도 최초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

자료: 인도 현지 언론보도 자료

마. 인도의 對세계 수출, 양적/질적 변화

■ 인도, 제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지로 전환 및 무역적자 해소 노력

- FY21/22 인도 수출액 전년 대비 44.6% 증가하며 4,218억 달러로 사상 최대 달성,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FY21/22 전년 대비 103% 증가(印 상공부)
 - 印 상공부 장관, 다보스 포럼에서 “2030년까지 인도 수출이 1조 달러에 도달할 것” 언급, 단순한 원자재 수출보다는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제품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
 - 석유화학제품(152% ↑), 면사/직물/핸드룸 등(55% ↑), 인조 직물 등(46% ↑), 엔지니어링 제품(45% ↑) 등이 인도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음

〈 최근 3개년 인도 수출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수출액	증가율	총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FY 21/22	421,894.28	44.6	612,607.18	55.3	-190,712.91
FY 20/21	291,808.47	-6.9	394,435.85	-16.9	-102,627.38
FY 19/20	313,361.03	-5.1	474,709.27	-7.7	-161,348.24

자료: 인도 상공부

- 단순 원자재 및 재래식 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출구조 변화, 특히 엔지니어링 제품(금속 제품, 산업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구성요소, 운송 장비, 의료기기 등)은 FY 16/17 수출액의 5%만을 차지하였으나, FY21/22에 수출액의 27%를 차지하며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Zero Duty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EPCG, 자본재 수입에 대해 무관세 적용하되 제조품 반드시 수출 필요) 정책이 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엔지니어링 제품의 영국, 미국, 독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300%, 133%, 64% 증가했으며, 철강제품은 러시아 제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 시장 수요가 전년 대비 15% 증가
- 인도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전년 대비 국가별 수출량이 호주 105%, 네덜란드 94%, 벨기에 93%, 이탈리아 73% 등 증가
 - 인도 對세계 교역액 기준 2021년 미국이 1,1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1,154억 달러)을 제치고 제1 교역국이 되었음
- 경쟁력 있는 인프라, 수출입 면세,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인도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내 다국적 기업 및 수출 기업들 입주 증가
 - 인도는 열악한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 부족,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계약 이행의 문제, 물류 지연 등과 같은 기존 병목(Bottleneck) 현상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의 한 축이 되는 데에 있어 주요 장애물로 지적받고 있음
 -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경제특구(SEZ)로, 입주기업은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면세 수입, 창고 보관 및 재판매/재송장 발행, 그리고 제3국으로의 재수출 등 관세 및 무역 부문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음
 - 현재 213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승인되어 운영 중이나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상황
 - 입주된 기업 중 한국 진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여 인센티브 등 정보가 부재하여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 주도로 관련 조사를 수행

(참고) SEZ 지역별 경제특구 현황조사

- (대상) 첸나이(Sri City, MEPZ), 벵갈루루(Manyata, KIADB) 뭄바이(SEEPZ, JNPT)
- (조사주체)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 Invest India, KOTRA
- (진행방식) 현장방문단 구성, 3대 경제도시 경제특구 현장조사 및 비교분석
- (대상 선정기준) △정부-민간 운영 각 1개소 △전자제품, 화학 등 주요 제품 수출 특구

- 현장조사 결과, 이들의 경제특구가 기업의 사업환경에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임을 확인
 - 개발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민간기업 개발 경제특구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음
 - 관계자들과 중앙-주정부는 매우 긴밀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입주 관련 승인, 인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
 - 중앙정부 개발 경제특구 내에는 경제특구 승인 절차 등 최고 결정자인 개발 위원장이 위치하고 있음
- 경제특구는 위치 및 교통의 편리함, 절차의 신속성, 저렴한 임차료, 다양한 세금혜택 등 진출 기업이 겪고 있는 많은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임
 - (전략적 위치) 국제공항 및 항구와의 인접성, 도로·철도·메트로 등 교통망
 - * (벵갈루루/KIADB 항공우주특구) 공항과 연결된 특별 입구가 마련되어 있어 수출입 관련 물품 조달이 즉시 처리되고 있음
 - * (첸나이/Sri City) 첸나이 도심 및 항구와 2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도심 인프라 접근성이 낮음
 - (인센티브) 수출입 면세, 100% FDI 허용 등 사항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정부의 세제 혜택에 따라 정도가 상이함
 - * (벵갈루루/KIADB 항공우주특구) 토지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법인 설립비 지원, 인자세·등록세·전기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
 - (통관 절차) 특별 통관 루트가 마련되어 있어 수출입 통관 절차가 신속하며, 통관 관련 정부 직원이 상주해 있는 바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 가능
 - (인프라) 특구 개발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등 인프라가 잘 개발되어 있음
 - * 인도의 큰 단점인 단전, 상하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부에서 별도로 특구 전용 전력 공급
 - * 첸나이 Sri City, 벵갈루루 Manyata 기술단지, KIADB 항공우주특구 등은 최첨단 시설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 뭄바이 SEEPZ는 입주 건물 노후화로 2022년부터 리노베이션 추진, JNPT의 경우 '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최근 도로 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이 건설 중임
- 대부분 경제특구에는 전자제품, 엔지니어링,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주정부의 투자유치 선호 분야에 따라 일부 제한된 업체만 입주되는 경우도 발생
 - * (벵갈루루 KIADB) 방산, 항공, 우주 관련 기업 / (뭄바이 SEEPZ) 보석 관련 기업
- 인터뷰 실시한 대다수 입주 기업들은 입주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표시했으며,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 성장과 함께 입주 공간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인도 지역별 경제특구 비교 〉

구분	첸나이		벵갈루루		뭄바이	
	Sri City	MEPZ	Manyata 기술단지	KIADB 항공우주특구	JNPT 특구	SEEPZ
개발 주체	민간	중앙정부	민간	중앙정부	민간	중앙정부
개발 연도	2006년	1984년	2006년	2009년	2019년	1973년
구성	경제특구, 국내관세특구, FT WZ 등	경제특구	경제특구, 비경제특구	경제특구	경제특구	경제특구
크기	7,500에이커	262에이커	122에이커	252에이커	684에이커	111에이커
위치	첸나이 공항 2시간 거리	첸나이 도심, 첸나이 공항 8km	국제공항 20분 거리	국제공항 직접 연결	JNPT 항구 부지	국제공항 6km
세제 혜택	수출입 면세, 신속 통관	수출입 면세, 신속 통관	수출입 면세, 신속 통관	수출입 면세, 신속 통관, 인지세·전기세 등 면세	수출입 면세, 신속 통관	수출입 면세, 신속 통관, 소득세 면제 등
임대료 수준 (m2/월)	100루피 (1.25달러)	176루피 (2.2달러)	-	-	-	-
승인·입주 준비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 승인 후 즉시 입주	1년 이내 승인 후 즉시 입주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승인 후 즉시 입주
인프라	도로·전력· 상하수 처리	도로·전력· 상하수 처리	최첨단시설	최첨단시설	인프라 건설 중	도로·전력· 상하수 처리
사회 인프라	주거단지·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	보육시설 등	야외 스포츠 공간·호텔 등	주거단지· 의료기관 등	없음	은행· 체육관 등
노동력/ 노조문제	직업훈련센터, 노조문제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문제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문제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문제 없음	없음	직업훈련센터, 노조문제 없음
보안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입주기업 수	28개국 190개 기업	105개 인도 기업	글로벌 68개 기업	보잉 등 우주항공업체	6개 기업	260개 인도 기업
주요 분야	전자, 화학 등	전자, 엔지니어링 등	IT 서비스	우주항공	물류	제약, 보석
우리 기업 유무	2개 기업 입주 중	-	-	-	-	-
입주기업 만족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자료: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김정화 연구원, '22.10.31.)

■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Cotton) 생산국이지만, 수출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대비하여 뒤처져 있음. 그러나 주변국 스리랑카가 경제위기를 겪음에 따라 인도가 라틴 아메리카,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주문을 받으며 대안국으로 부상

- 印 상공부 장관, 2030년 섬유 수출액 1,000억 달러 목표 제시, UAE, 호주와의 CEPA 체결로 섬유 부문 관세가 면제되며, 수출 증가 예상
- 원자재 가격 상승과 면화 수입에 대한 관세가 섬유업계의 부담이었으나, 면화 수입 또한 관세 면제('22.5.14.~9.30.)가 시행되며, 면화 내수 생산 및 목화 자체 생산이 장려되고 있음
- 섬유 부문 PLI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부문 30조 원 매출 증대 예상

■ 산업무역진흥청(DPIIT), 인도 對세계 수출 확대를 위해 식품 등 400여 개 제품 브랜드화

- 인도 對세계 수출 확대 및 관련 마케팅으로 약 400여 개의 식품, 공예품 등 지역적 특산품을 브랜드화하고 '한 개 지역, 한 개 특산품 발굴' 계획의 일환으로 GI(Geographical Indication, 제품에 지역 표시를 통해 브랜드화) 박람회 등 개최 예정
 - '22.7월까지 총 420여 개 품목이 GI 등록을 받았으며, 이 중 150여 개 제품은 농식품, 240여 개 품목은 수공업품, 핸드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인도는 각 지역 특산 식품(망고, 레몬, 킹칠리 등)을 영국, 바레인, 카타르 등지로 수출하며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2023

인도 진출전략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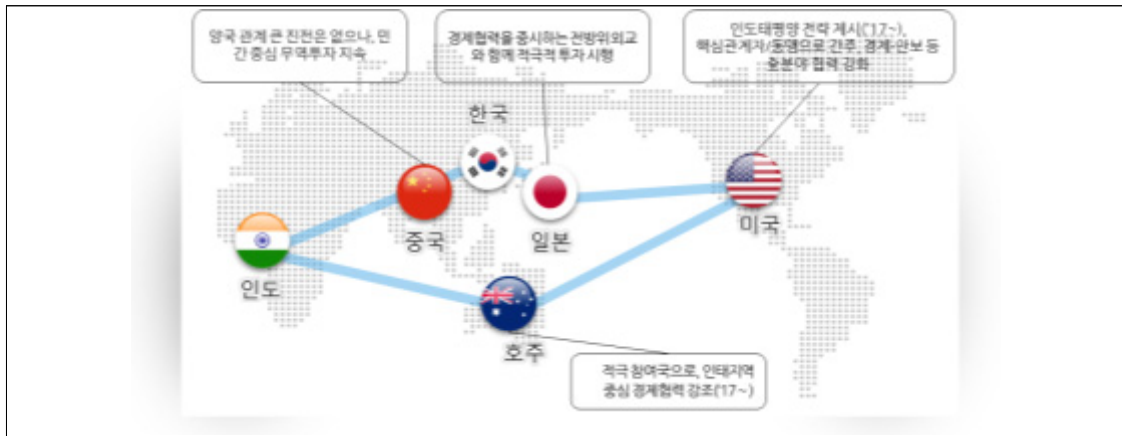
- ※ (정치) 모디노믹스 지속 예상, 글로벌 공급망 뉴 노멀 속 주요국 전략거점으로 거듭
- ※ (경제) 대외적 여건 악화 및 무역과 재정적 쌍둥이 적자 속에서도 인도 경제 고성장세
- ※ (산업) 정부의 적극적 제조업 육성 노력과 함께 전기차 전환에 따른 新산업 트렌드 발생
- ※ (정책·규제) CSR·환경규제 등 인도 ESG에 주목, 자본을 바탕으로 한 親기업 정책 유지

가. 정치 환경

- (선거) 무르무 드라우파디 대통령이 인도 제15대 대통령으로 선출('22.7), 인도 5개 주의 의회 선거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hartiya Janta Party)이 5개 주 중 4곳에서 승리하며 '모디노믹스' 연속성 강화 기대
 - 제15대 대통령은 인도의 첫 부족민 출신 대통령이자 두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22.7.25일부 정식 취임하게 되었음
 - 인도는 내각책임제로 대통령은 헌법상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지만, 무르무의 당선은 소수 부족민의 권익 향상 등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 * 당선자는 인도의 700여 개 부족(인구의 8%) 중 '산탈' 부족 출신, 인도 카스트 등 전통사회 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계층
 - * 압둘 칼람('02/이슬람), 프라티바 파틸('07/여성), 람 나트 코빈드('17/불가촉천민) 등 대개 인도 대통령의 경우 사회통합과 소수계층을 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함
 - 2022년 3월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서 현 집권 여당인 BJP당의 2024년 총선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커져 모디 정부의 현재 추진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연방제 공화국인 인도에서 주 의회 선거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로 평가되며, 5년마다 직접투표를 실시, 과반을 차지한 주 여당이 집권당이 되어 입법 및 예산권을 갖게 됨. 연방정부 상원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이들 주 의회 의원임
 -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BJP당 소속 상원의원은 전체 의석수 245석 중 97석에서 104석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가 이번 선거에서 BJP당의 손을 들며, 더욱 큰 승리로 보임
 - BJP당 요기 아디타나스 우타르프라데시주 지방의회 총리도 연임에 성공하며, BJP 정권의 연장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對인도 협력, 특히 인프라 부문의 협력이 공고화될 필요성 증가(KIEP, '22.3.)
 - 2022년 말, 2023년에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카르나타카, 텔랑가나 등 11개 주 의회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선거 결과 모니터링 필요

■ (주요국 외교) 글로벌 공급망 뉴 노멀 시대, 주요국의 對인도 전략과 주요 이슈

〈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對인도 전략과 현황 〉



자료: 현지 언론보도 자료 및 정부 자료 바탕으로 뉴델리 무역관 편집

- (美) 인도-태평양 전략 제시('17~), 인도를 동 전략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동맹으로 간주, 경제·안보 등 쉰분야 협력 강화 → Quad(쿼드)·IPEF(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
 - 우방국·인도 간 연계성을 높이는 다자주의 접근과 인도와의 직접 교류 기반 주요 분야(공급망·신재생에너지·백신 등) 협력 확대 병행
 - 1위 교역국(1,125억 달러, 비중 11.6%)·1위 수출국(712억 달러, 비중 18.0%)·3위 수입국(413억 달러, 비중 7.0%)·최대 투자국(누적 투자액, 실질 1위)
 - * '00년 이후 對인도 누적 투자액은 556억 달러로 1위(조세회피처 모리셔스, 싱가포르 제외)
 - 코로나19 기간 미국의 IT·통신·헬스케어 부문 등 유수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대규모 M&A 딜과 투자를 지속하며 경제적 교류 극대화, 최근 美 CDC는 전염병 예방, 조기 발견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인도 3대 의학연구기관에 1억 2,2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 그러나 인도는 국제 노동 법규, 정부의 보조금 지원, 탈탄소 정책에 있어 일부 부문에서 미국 등 선진국 및 국제사회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우 사태에 따른 미국 중심 對러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으며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일부 엇나가며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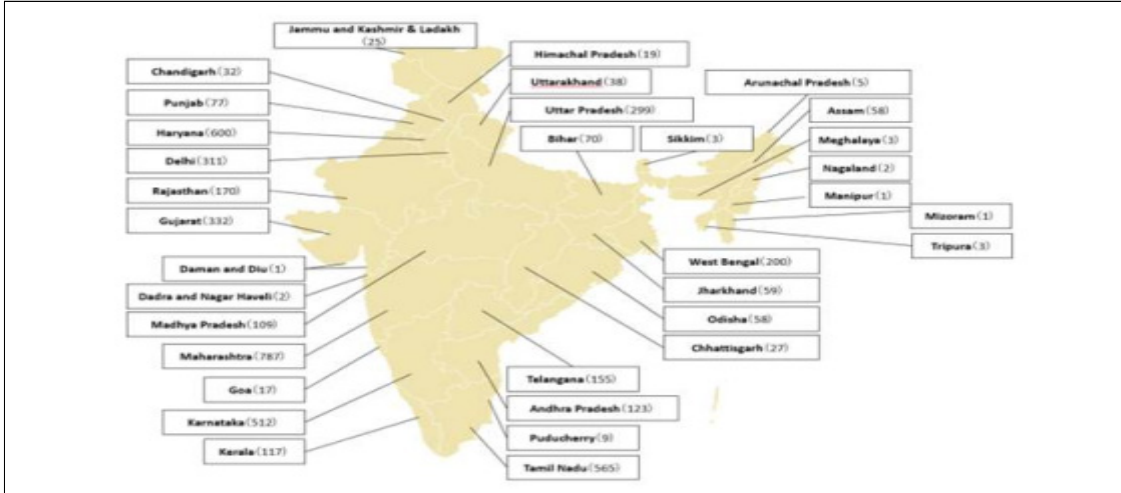
〈 COP 26에서 인도 입장과 최종 합의 결과 〉

구분	인도 입장	글래스고 기후 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미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선진국들이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선 신흥국에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 '21년 10월, 인도 환경부는 '넷제로' 달성 시기 설정이 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선진국들이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는 것이 더 중요	- 각국은 '22년 말까지 상향 조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 인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제출 '15년 COP 21 회의에서 파리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NDC를 상향하여 제출 의무화 - 인도는 '15년 COP 21 회의에서 최초로 NDC를 제출하였으나, '21년 COP 26 회의에서는 미제출
기후 재원	- 인도가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은 5%에 불과 - 개도국의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후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선진국들은 '25년까지 총 5,000억 달러 기후 재원 조성 - 기후 재원에서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위한 재원 2배 확대
석탄 감축	- 인도 에너지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의 사용 중단은 어려운 상황 '석탄의 단계적 사용 중단'을 '석탄의 단계적 감축'으로 대체 유도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 합의
메탄 감축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메탄을 대량 방출하고 있는 인도는 메탄 감축협정에 미동의	한국, 미국, EU 등 100여 개국은 '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30% 감축에 동의 (인도 미포함)

자료: 현지 언론 등 종합하여 KOTRA 편집

- (日)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전방위 외교로 적극적 투자 시행 → ODA(공적개발원조)·CEPA(경제협정) 투자 진출
 - 인도 ODA 최대 공여국으로 현재 약 100여 건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경제협력 추가 체결('22.3)로, 5년간 5조엔(약 51조 원) 투자 예정
 - '00년 이후 누적 투자액이 377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법인 기준 약 1,439개 사('22.6), 연락사무소 포함 시 4,790개 사('22.6) 진출 → 인도를 생산·유통 허브로 삼아 중동·유럽·아시아 시장 공략
 - * 지역별로는 마하라슈트라(뭄바이 및 푸네)에 797개 사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하리아나(600), 타밀나두(565), 카르나타카(512)에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

〈 일본 진출 기업의 주별 분포도 〉



자료: JETRO, 인도 진출 일본 기업 리스트

-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서남아시아 지역 이외에 최초 방문한 국가는 일본으로, 인도 외교 정책상 일본의 중요성은 매우 큰 편
- 인도 내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등 총 12개의 일본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아쌈(Assam) 지역에 13번째 일본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中) 양국 관계 큰 진전 없이 민간 중심 무역·투자 지속, '20년 이후 지속된 對中 경제 의존도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입 증가 추세
 - 인도 정부는 對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무역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21/22 회계연도 對중국 수입액은 20/21 회계연도 대비 45% 상승한 945.7억 달러를 기록
 - * 인도의 對中 수입(억 달러) : (FY19/20) 652.6 → (FY20/21) 651.1 → (FY21/22) 945.7
 - 인도의 컴퓨터 하드웨어, 전자부품, 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가 상승했으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우 사태에 의한 상품가격 상승과 보복 소비 심리로 인해 소비재 및 산업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 * (FY21/22 對중국 주요 수입품) 전기기계·장비·음향녹음기(299억 달러), 유기화학(125억 달러), 보일러·기계기기(198억 달러) 등
 -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한 갈등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는 투자 등 경제·산업 부문에서의 중국 진출을 지속 규제
 - * ('21.2) 판공초 호수 인근 철수 → ('22.3) 양국 외교장관 회담 → ('22.9) 인도-중국 핫스프링 국경 분쟁 지역서 철군
 - 對인도 2위 교역국(1,105억 달러, 비중 11.4%)·1위 수입국(875억 달러, 15.3%), 중국 기업들은 우회 투자를 통해 인도 시장 선점 노력
 - * 텐센트 등 주요 기업, 인도 IT 분야에 최근 5년간 약 40억 달러 투자

● (기타) IPEF 무역 원활화 관련, 아세안, 호주, 인근국 등 국가와의 관계

-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 외교장관,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한 컨퍼런스에서 IPEF 관련하여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통해 인도가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인도는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 IPEF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의견 및 인프라 수준 차이의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인도의 IPEF 참여를 통해 인도가 원자재 공급에 필요한 대체 가능 국가를 확대함을 통해 유연한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2년 4월, 인도는 호주와의 FT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IPEF 참여는 양국 간 상호 협력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호주는 인도를 동맹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 안보협력 강화 및 대중 경제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인도를 중국 대체 수출시장으로 고려하며 인도의 구매력을 활용코자 하고 있음
 - * 印-濠 ECTA 서명('22.4)에 이어 연내 CECA 타결 목표

● (러시아) 인도의 군수물자 수입 의존국, 러-우 사태 이후 對러 원유 수입 증가

-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 및 파키스탄과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군수물자 수입을 의존하고 있음

◦ 카슈미르 지역

- 히말라야 산맥 내 3개국 국경 지대로 남쪽은 인도령, 북서쪽은 파키스탄령, 북동부는 중국령
- 종교 갈등과 영유권 분쟁에 의한 내전 빈번



- 인도와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독립 이후 영국식 군사교리와 무기를 소련제 무기로 교체하였고,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하고 있음
 - * 2017~21년 인도 주요 무기 수입국(SIPRI) : 1위 러시아(46%), 2위 프랑스(27%), 3위 미국(12%)
 - ** 인도와 중국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로부터 최신 전차의 개량형 T-90MS 464대 추가 규모 계약을 체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를 비난하는 가운데 인도는 침묵하며 '중립'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유 수입 금지 압박에도 지속적으로 對러 원유 할인된 가격으로 지속 수입
 - * '22.10월 월 수입량 기준, 인도의 對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점유율 20.5%로 2위에 등극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수입량(10월 기준 3위)을 압도

〈 2022년 인도 원유 월별 수입 추이(상위 5개국, 2022.1~8.) 〉

(단위: 백만 달러)

수입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계
이라크	2,144	3,079	4,272	3,941	3,529	3,862	3,201	2,926	26,957
사우디	2,514	2,452	3,158	2,896	2,531	2,780	2,677	3,275	22,288
UAE	440	1,527	1,384	2,195	1,891	1,245	2,005	1,426	12,116
러시아	178	-	343	1,092	1,902	2,891	2,880	2,647	11,935
미국	426	1,652	1,649	1,050	597	832	881	843	7,933

주: 원유(HS Code 2709 한정) 수입량 추이 분석

자료: Global Trade Atlas('22.11.01.)

- 인도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對러 원유를 지속 수입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은 쿼드(Quad) 회원국으로서 對러 제재에 동참해달라며 인도의 역할을 촉구하였음('22.3.)

* 쿼드(Quad) :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참여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 양국 경제적 관계 인정하나 對러 제재 동참 촉구(3.15, 백악관)
- 나토, 쿼드 등 동맹 단결력 강조, 인도의 입장 명확화 촉구(3.21, 바이든 대통령)

-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경제교류를 지속하는 등 양국이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악화된 인-중 관계 개선 기대

나.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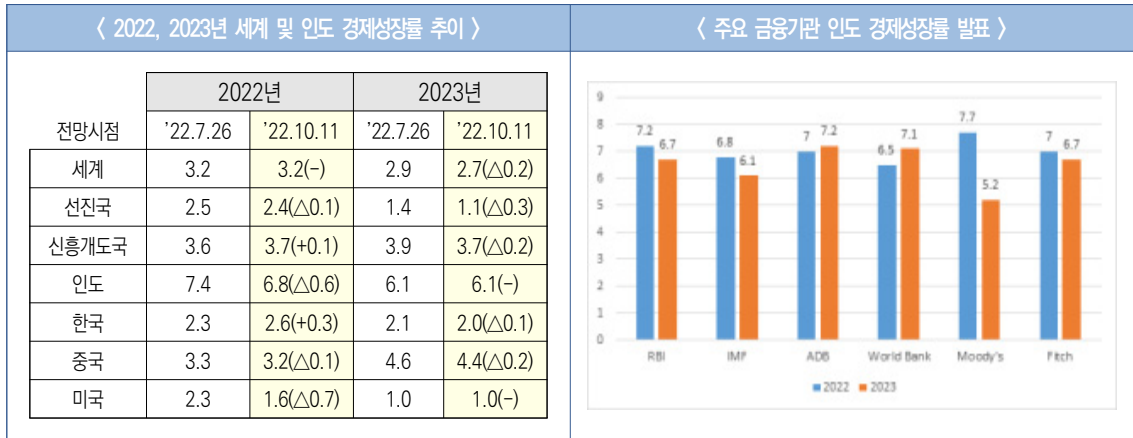
■ 인도 주요 경제 지표 (2022/23 회계연도)

GDP	US\$ 3조 4,700억 (IMF)			
경제성장률	6.8% (IMF)			
1인당 GDP	US\$ 2,470 (IMF)			
실업률	7.9% ('22년 10월 19일, CMIE)			
물가상승률	6.4% (IMF)			
환율	US\$ 1 = RS. 82.37 ('22년 10월 19일, RBI)			
외채	US\$ 6,207억 ('22년 3월, RBI)			
외환 보유고	US\$ 5,738억 ('22년 8월 5일, RBI)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수출액(증감)	313,361(+3.39%)	291,808(△6.88%)	422,004(+44.62%)
	수입액(증감)	474,709(△7.66%)	394,436(△16.91%)	613,052(+55.42%)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IMF, CMIE(Center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 및 대외적 여건 악화 속에서도 경제 상승세 유지

- (경제성장) 식민지 모국인 영국을 제치고 명목GDP 5위('22.1분기 기준, IMF), 2002년 14위에서 20년 만에 5위로 도약하며 9단계 상승, 7년 뒤인 '29년에는 3위 규모로 성장할 전망(SBI)
 - 2021/22 회계연도 이후 V자 반등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IMF는 지난 10월 금년도 인도 GDP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 8.2%에서 6.8%로 하향
 - 식품·에너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소비·투자 악영향
 - *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 ('20) △6.6 → ('21) 8.7 → ('22) 6.8 → ('23E) 6.1
 - 하향된 수취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상승으로 특수를 보고 있는 일부 중동국 등 제외하고 신흥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의 약 2배이며, 내년에도 약 1.5배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22.7., '22.10.)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22년 9~10월)

- (기업환경) 칼바람 부는 글로벌 증시 속 유일하게 성장하는 인도 주식시장, 급속히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Ease of Doing Business)
 - 주식시장 규모 면에서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 최근 3개월간(6.28~9.28) 美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08%, 韓 코스피지수는 11.44% 하락한 가운데 인도 센섹스 지수는 6.55% 상승(이코노미스트, '22.9.)
 - * 센섹스(Sensex) :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 기업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주가지수
 - * 최근 3개월 주식형 펀드 수익률(FnGuide) : 印(15.6%), 中(-16.9%), 유럽(-4.7%), 美(-1.1%)
 - 높은 경제성장률과 내수 소비의 반등으로 인도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9월까지 실적 기준 글로벌 증시 2위를 차지(Investing.com, '22.9.)
 - * 브라질(+6.0%), 인도(+1.52%), 영국(-2.0%), 일본(-4.25%) 등

〈 인도 센섹스 지수 추이 (1986~2022년) 〉



자료: BSE SENSEX, GOOGLE 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가공

- 적극적인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세계 3위 규모
- '16.1월 'Startup India' 출범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22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지수에서 인도는 상위 100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0개 도시 중 벵갈루루(8위), 뉴델리(13위), 뭄바이(17위)가 포함되었음
-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37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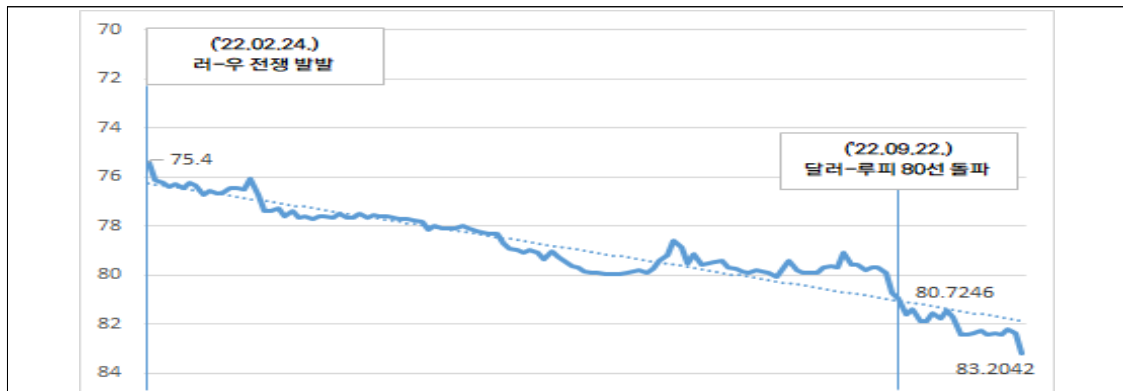
〈 2022 IMD 국가경쟁력 주요 경쟁국 순위 〉

구분	인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전체 순위	37(▲6)	17(▼1)	59(▼2)	44(▼7)	60(▲2)
경제 성과	28(▲9)	4(-)	48(▲3)	42(▼7)	59(▲2)
정부 효율성	45(▲1)	29(▼2)	61(▲1)	35(▼9)	53(▲8)
사업 효율성	23(▲9)	15(▲2)	52(▼3)	31(▼6)	56(▲2)
인프라	49(-)	21(▼3)	53(▼1)	52(▲5)	60(▲1)

주: 2022년 순위(2021년 대비 순위 변동)를 ▲(상승), ▼(하락)으로 표시
 자료: IMD 보고서(2021, 2022)

- 라-우 사태 이후 공급망 혼란 속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 심화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유를 85%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세계 3대 원유 수입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 * '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7.79%로 8년래 최고치 기록, 최근 9개월 연속 RBI의 목표치인 6%를 상회하고 있음('22.10월 기준)
 - 근원 CPI(6.3%), 식품 CPI(8.4%), 도매물가지수(10.7%),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 미국의 매패적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RBI는 루피 가치화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850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나, 루피/달러 환율의 마지노선이었던 80선을 돌파하며 위협요인으로 작용, 10월 기준 인도 최초로 83까지 하락
 - * 그러나 RBI가 매패적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지속적 개입 등으로 환율 상승 속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

〈 러-우 사태 이후 달러-루피 환율 변동 추이 ('22.2.24~10.20.) 〉



자료: RBI 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가공

- 세계 무역량 증가세 둔화 속에서 인도는 금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 FDI 등 인도 투자의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 그러나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세계 경제 불안에 따른 신뢰 저하가 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수출 증가율은 부진
- 2022/23 회계기간('22.4.~'22.8.) 인도의 무역적자는 약 1,245억 달러로 전년 동기(약 537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

■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및 제한을 없애며 엔데믹에 다다른 상황, 이에 따른 경제 회복으로 중장기 성장 도모

- 소비 회복과 함께 2022년 4~6월 분기 경제성장률 13.5%로 전년 동기('96년 이후 최고치, 20.1%)에 이어 두 자릿수의 높은 수치 기록
- 농촌지역 중심으로 실업률 개선
 - 분기별 실업률은 감소하는 추세, 몬순(장마) 시즌이었던 '22.8월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9월 6.43%로 크게 하락하며 양호한 수치 유지
 - * '21년 2차 확산 시점(5월) 실업률은 농촌, 도시지역 모두 두 자릿수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회복, '22.9월 실업률 6.43%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개선

〈 최근 인도 월간 실업률 추이 〉

구분	2021년			2022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도시 실업률	7.37	8.20	9.30	8.14	7.57	8.28	9.22	8.21	7.30	8.21	9.57	7.70
농촌 실업률	7.91	6.41	7.28	5.83	8.37	7.24	7.18	6.62	8.03	6.14	7.68	5.84
총 실업률	7.74	6.97	7.91	6.56	8.11	7.57	7.83	7.12	7.80	6.80	8.28	6.43

자료: CMIE('22.10.20)

■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 인도 전반 및 경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 증대 필요

- (경제정책의 역사) 혼합경제 체제와 보호무역주의로 빈부 격차, 부패 발생('47~'90)하였으나, '91년 FDI 개방, '14년 Make In India 등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최근 글로벌 GVC 편입 노력 지속
 - 안정적인 FDI 유입으로 '21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7위(644억 달러), 가족 친화적 사회로 해외 이민 시 친척이 함께 이주하는 형태를 띠며 세계 1위 송금 경제를 이룩하며, 인도 성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음
 - * 재외 거주민 年 자국 송금액('21) : 인도(890억 달러), 멕시코(540억 달러), 중국(530억 달러)
 - '22년 8월 5일 기준 인도 외환 보유액은 5,738억 달러로 중국, 일본, 스위스에 이어 세계 4위, 수입 원자재·식품 등의 가격 인상으로 매월 증가하는 무역적자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인도 펀더멘탈 중 하나

- (한-인도 주요 이슈) 양국 경제 규모나 중요도 대비, 교역 규모 및 투자액 정체,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및 규제 기조 지속으로 한국 기업 애로 다대

- * 印, 한국의 7대 수출 16대 수입국(수출 2.4%·수입 1.3%, '21CY), 12대 투자국(0.88%, '22FY)
- * '21년 교역액 전년 대비 40.5% 증가한 역대 최고치(23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5억 달러('11) 기록 후 10년 이상 250억 달러 이하로, 2030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목표 대비 미흡

(참고) 기업 애로 개요 ('21.1~'22.9)

- (유형별) ① CEPA 활용 ② 현지 투자 ③ 비관세장벽 ④ 환경규제 등
- (규모별) 56개 사, 97건/대기업 16개(28%), 중견·중소기업 40개(72%)
- (진행방식) 분기별 기업 애로사항 관리카드 작성·취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참고) 필수 인증, 인센티브 환급 지연, CEPA 활용, 환경규제 등 일부 애로 해소 진행 중

- 인도의 '실리주의적 외교정책과 경제전략', 그리고 한국의 對인도 전략의 현황에 대한 파악과 향후 변화 모색 필요

- 인도는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주요국 중심 경제협력은 강화하고, 중국 등 특정국 중심으로 차별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중국산 앱 통신장비 규제, 투자사전승인제 등 중국을 고려한 규제

(참고) 주요 규제 사례

- (원산지) 중국산 앱(틱톡, 위챗 등 300여 개) 금지, 중국산 통신장비 금지('20~)
- (투자) 중국 對인도 투자 시 사전 승인제, 중국 기업 정부조달 허가제('20~)
- (특이사항) 기존 텐센트가 배급했던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긴급 금지('22.8)

- 관세율 인상, 필수인증 강화, 수입사전허가 확대 등 관세·비관세장벽 활용

- * '18년 이후 평균 관세율 상승, '21년 이후 필수인증 품목 약 190여 개 증가
- * 반덤핑 232건, 상계관세 20건, 세이프가드 3건 등 세계 최다 무역규제조치(WTO, '21.12)

- (공급망) 지역 협력 확대로 중국을 배제한 안전한 공급망 구축, 印·濠·日 삼자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SCRI) 출범('21.4)

- * 아세안 경유 中 제품 유입을 원천 차단 목적으로, 공급망 복원 모범사례 공유 및 3개국 기업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부여

- 對中 견제를 목표로 쿼드 적극 참여('20~), 美·印 협력관계 구체화

- * '주요 기술 공급망 원천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및 '쿼드 투자자 네트워크' 발족('22.5)

- 美·中 사이 '이중 헛징 전략' 구사, 특히 역내 小多者 협력 강화

- * 제1차 안테 비즈니스 서밋('21.7) 등 다자 협력 확대 및 쿼드플러스 확대에 적극적

- 인·태지역 외 국가와도 다양한 협력 플랫폼 시도

- * 뉴쿼드(美·印·이스라엘·UAE), 印·EU 연결성 파트너십 등 적극적 다자외교 추진

(참고) 印-주요국 무역협정 사례

- (EU) FTA 협상, 8년만 재개('21.5), 1차 완료('22.7) 및 2차 예정('22.9)
- (英) 印·英 무역 파트너십 고도화 협정('21.5) 후 FTA 공식 협상 개시('22.1)
 - *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2030 로드맵 동시 발표('21.5)
- (豪) IndAus ECTA ('22.4) 서명
- (그 외 주요국) UAE CEPA('22.5)·모리셔스 CECPA('21.4) 발효, GCC(Gulf Cooperation Council)·캐나다 FTA 협상 및 연내 체결 노력

- (한국) 최근 對인도 정책은 과거 신남방정책에 이어, 연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예정)에 정책 업그레이드로 협력관계를 높이는 방향
 - * 미 협력 및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전략적 가치 중시 전망
- 협력관계를 美·中·日·러 수준으로 높여 외교·통상 레버리지 강화
 - * 무역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상생번영 추구(신남방정책, '17.11~)
-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반영, 정책 업그레이드(신남방정책 플러스, '20.10~)
 - *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 구축 등 7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개편

〈 수교 이후 대인도 주요 정책 변화 〉



〈 한국-인도 주요 경제·안보 협의체 현황 〉



* 한국과 양자 FTA 발효 중인 국가** 인도와 양자 FTA 또는 CEPA 발효 중인 국가

자료: KITA 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가공

다. 산업 환경

■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도모, 8대 중점 산업군 지원

-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농업, 서비스업에서 벗어나 제조업 육성 노력
 - 1991년 경제개방 당시 30%에 달했던 농업의 GDP 기여율은 현재 18.8%로 감소하였으며, 농업의 감소분이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이어짐
 - 인도 정부는 2014년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적극 육성, '22년까지 제조업 GDP 기여율 25% 달성 목표

〈 Make in India 육성 제조업 〉

구분	정부 지정 주요 제조업
노동집약적 산업(4)	①섬유/의류, ②가죽/신발, ③보석, ④식품가공
자본재 산업(4)	①기계, ②전자/전자기기, ③수송, ④광업기기
전략 산업(11)	①항공, ②항만, ③IT 하드웨어, ④통신기기, ⑤방산기기, ⑥태양에너지, ⑦신재생에너지, ⑧철도, ⑨도로 ⑩관광, 의료, ⑪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경쟁력 보유 산업(6)	①자동차, 부품, ②바이오기술, ③제약, ④IT&BPM, ⑤우주, ⑥웰빙

- 그러나 2017/18 회계연도 기준 16.6%를 차지하던 제조업의 GDP 비중은 오히려 2020/21 회계연도 코로나19 기간 14.4%까지 하락, 2021/22 회계연도 15.4%로 소폭 상승 → 여전히 17%를 하회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재편 요구로 인해 인도는 '자주 인도' 정책을 통해 지속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음

〈 인도의 산업구조 (총부가가치생산(GVA) 기준) 〉

(단위: %)

산업 분야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농업	18.0	18.3	17.6	18.4	20.2	18.8
산업	광업	2.3	2.2	2.2	1.9	2.3
	제조업	16.7	16.6	16.3	14.7	15.4
	유틸리티	2.5	2.7	2.6	2.6	2.5
	건설	7.7	7.7	7.9	7.4	8.0
서비스업	52.6	52.5	53.4	55.0	54.3	53.0

자료: Office of Economic Adviser('22.2)

● 8대 핵심 산업군과 주요 산업

- 인도 정부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학, 비료, 철, 시멘트, 전력 산업 분야를 8대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산업생산(IIP)에 대한 기여율은 40.27%
 - * 석유화학제품 생산(28.04%), 전력 생산(19.85%), 철강(17.92%) 순으로 비중이 큰 편

- 인도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이 있으며, 자동차와 전기전자, 통신의 경우 FDI 유치 기반의 주력 육성산업
- 그 외에 투자 유치 10대 타겟 산업으로는 ①전력 ②중공업 ③헬스케어 ④식품가공 ⑤전기전자·IT ⑥화학 ⑦항공우주·방산 ⑧물류 ⑨서비스 ⑩피혁 등

■ 주요 산업별 현황

● (IT&ITeS) 인도 IT 서비스 산업의 상징으로 수출 주력 산업

- 인도 IT 산업은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ITeS(IT enabled Services)로 구분되며, 1991년 경제개방 이후 서구 국가들의 IT 관련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며 발전
- '21년 IT 서비스 산업 규모는 141.5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체 IT 산업의 77.06%를 차지. '21년 전년 대비 7.9%의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8.9%의 고성장을 기대하는 유망 산업(IDC, '22.4)
-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1/22 회계연도 기준 1,7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9% 증가
- 인도 2022~23 연방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IT 및 통신 부문에 예산 약 8,856억 루피 규모 투입하였으며, 이 중 2022년 IT 관련 지출액은 1,018억 달러 예상

● (자동차) 인도는 '21년 약 44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 글로벌 생산기지

- 2021년 상용차 생산 41.3%, 승용차 생산 27.3%가량 늘며, 전년 대비 차량 생산량이 약 29.5% 상승, 세계 4위 생산국에 등극
-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년 4~5월 차량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며 '20년 기준 생산량이 25.0% 감소한 339만 대로 6위를 기록하였으며, '19년에는 452만 대 생산하며 5위를 기록하였음

〈 2021년 국가별 차량 생산량 〉

순위	국가명	순위 변동	2021년 생산량	2020년 대비 생산 증감률
1	중국	-	26,080,220	+3.3%
2	미국	-	9,167,214	+3.9%
3	일본	-	8,067,557	-2.7%
4	인도	↑ 2	4,399,112	+29.5%
5	한국	-	3,462,404	-1.2%
6	독일	↓ 2	3,308,692	-11.5%
7	멕시코	-	3,145,653	-0.9%
세계 총 생산			77,621,582	+3.2%

주: 상용차, 승용차 기준

자료: OICA

- 현대차 및 기아차는 현지 투자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 진출, 인도 승용차 시장 판매량 기준 현대차 2위(점유율 17%), 기아차 4위(점유율 6%) 기록하고 있음
 - * 현대차 인도법인은 '21년 차량 13만 대를 수출하여, 인도 2위의 자동차 수출업체
 - * “인도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마지막 시장으로 판단” (현지 진출 자동차 부품사)
- 이륜차/삼륜차 및 저가 승용차가 주를 이루는 개도국형 자동차 시장
- 낮은 소득 수준, 짧은 출퇴근 거리, 도심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이륜차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선호되고 택시도 삼륜차(릭샤)가 주를 이룸
 - * '19 차종별 판매량(만 대) : 이륜 2,118(81%), 승용 338(15%), 상용 101(3%), 삼륜 70(1%)
- (전기전자) OTT 콘텐츠, 온라인게임 등 새로운 M&E 부문 수요와 성장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등세에 힘입어 '22년 스마트폰 시장 지속 성장
 - '21년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7억 대로 전년 대비 6.0%가량 상승하였으며, 5G 도입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7.7%로 성장할 전망 (Euromonitor, '22.10.)
 - * '22년 상반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7,1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하락,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 및 생산가격 증대가 원인 (IDC, '22.8.)

〈 인도의 5G 시장 및 주파수 경매 추진 동향 〉

- (시장) 세계 2위 규모 스마트폰 시장(8.4억 명, '21.上), 5G 사용자는 '27년 전체 가입자의 39%로 증가할 전망(4.87억 명)
- (정책) '15년 이후 추진된 '디지털 인디아 3대 비전' 일환 5G 인프라 구축 시행, 5G 주파수 경매 71%(51,236MHz) 1.5조 루피(약 190억 달러) 입찰, 10월 본격 서비스 개시('22.7.26.)
- (사시점) 5G 통신망 구축으로 통신망 기계·부품 등 관련 제조부품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5G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배제되며 우리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 * 인도 모바일 기지국 및 안테나 타워 수는 4G 통신망 구축('14~) 추진과 함께 증가하였으며, 5G 통신망 구축 시 유사한 효과 예상

〈 인도 모바일 기지국 및 안테나 타워 수 〉

구분	'14년	'21년	성장률
인도 모바일 기지국(개)	80만	230만	187%
인도 안테나 타워(개)	40만	66만	65%

자료: Invest India

- '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완전 수입 대체(No Import Zone)'를 달성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관련 부품의 수입은 당분간 증가 전망
- 인도 스마트폰, IT, 5G 통신, 전기차 등 주요 부문의 반도체 부품 수요 증가에 따라 인도는 R&D, 디자인, 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한 육성정책으로 7,600억 루피(94.1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PLI 발표('21.12월)

- * 현재 폭스콘, 베단타, IGSS Ventures, ISMC 등 총 14개의 기업이 동 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각각 2개의 생산시설(팩) 설립, 1.7조 루피의 투자 유치, 13만 개의 고용 창출 예상
- 반도체 PLI,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 계획(SPECS) 등 발표 후,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었음
- * 인도 정부는 '22.2분기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52.9%에 달하는 TSMC와 인텔과 같은 세계 주요 업체와 현지 반도체 공장 설립 논의 지속

〈 반도체 관련, 인도 투자 동향 및 최근 뉴스 〉

일시	발표내용
'22.7월	◦ 싱가포르 IGSS Ventures, 3년 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반도체 공장(웨이퍼) 설립 추진, 4조 5천억 원 투자 예정, 주정부와 MOU 체결
'22.8월	◦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회사 PSMC(파워칩반도체제조공사), 인도 내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을 위해 인도 기업들과 제휴 논의 중 * PSMC는 TSMC, UMC에 이어 대만에서 3번째로 큰 반도체 파운드리
'22.9월	◦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과 인도 베단타,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암다바드에 반도체 공장 건설 예정, 약 27조 원 투자 예정, 합작투자사를 통해 반도체 공장과 디스플레이 팩 구축하여 2년 내 생산할 계획
'22.10월	◦ 인 정부, 두 달 내 반도체 제조시설 제안 승인 (Economic Times, 10.12.) ◦ 인도-미국,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Economic Times, 10.12.) ◦ 인 최초 반도체 칩 제조업체 폴리마텍 생산 시장 (ET Auto, 10.11.) ◦ 퀄컴, 모디 총리와 반도체 및 5G 관련 논의 (Business Today, 10.7.)

자료: 현지 언론 발표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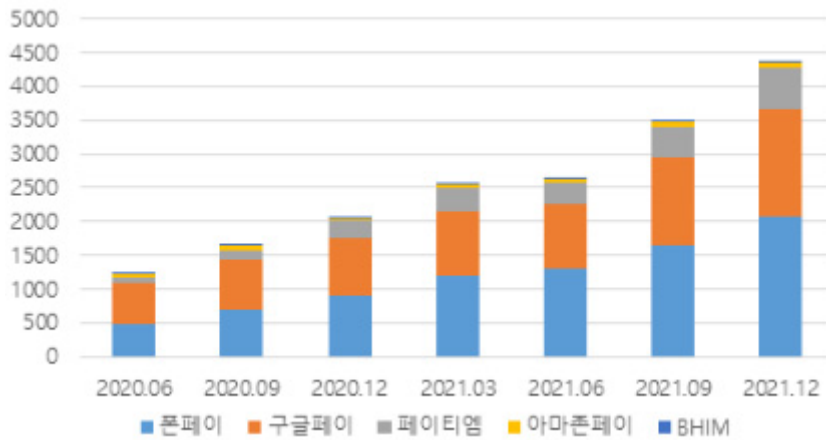
- 인도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되며 핀테크 시장 급성장, RBI는 '22년부터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디지털 루피(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예정, G20 의장국을 맡는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할 계획

〈 인도 핀테크 시장 〉

- (성장배경) 핀테크 산업 2023년 1,380억 달러 전망, 연평균 성장률 20%(Invest India), 인도 2,1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 67%가 지난 5년 내 출범, '21년 유니콘 기업 17개 사
- (정책) 인도 금융결제원(NPCI), 2016년 UPI(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도입으로 모바일 결제 앱을 통한 실시간 결제 가능, 폰페이(PhonePe), 페이티엠(Paytm), 구글페이 등 관련 시장 급성장
- (시사점) 열악한 금융 시스템, '현금' 사회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등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 적극 도입으로 관련 시장 성장 전망

〈 인도 주요 UPI 거래량 〉

(단위: 백만 건)



자료: 인도 금융결제원 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가공

- (철강) 인도 제조업 핵심 후방산업인 인도 정부의 적극적 산업 활성화 시도로 세계 1위 해면철 생산국, 세계 2위 조강 생산국 등극
 - IBEF(2022.1월)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조강(철강 원자재) 생산량은 98.39MT이며, 중국에 이어 생산량 세계 2위
 - '07/'08 회계연도 1인당 철강 소비량은 46kg에 달했으나, '18/'19 회계연도 74.1kg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 4.4%를 달성, 인도 정부는 '30/'31 회계연도까지 소비량을 160kg로 확대할 예정임을 발표(IBEf, 인도 정부)
 - 야금 및 광업 부문 FDI는 '00.4월부터 '21.9월까지 누적 기준 약 190억 달러에 달하며, 인도 철강 완제품 수출 규모는 '21년 1,500만 톤으로 크게 증가
 - 인도는 '05년 국가철강정책(NSP; Natioanl Steel Policy)를 발표한 이후, '17년 버전의 NSP, '19년 국가광물정책(NMP), '21년 특수강 PLI 등을 발표하며 적극적 철강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인도 철강 산업 주요 법안 및 정책 〉

일시	정책명	내용
'17.5월	국가 철강정책 (National Steel Policy)	- 철강 생산량 2030/31 회계연도까지 3억 톤 확장 - 관련 중소기업 육성, 원자재 확보, 수입 의존 축소 등
'20.2월	미션 푸르보다야 (Mission Purvodaya)	- 동부 산업 발전 도모, 인도 철강공사(SAIL) 역할 강화 - 서벵갈 골카타 지역 내 통합된 철강 허브를 설립 - 동부지역 향후 인도 철 생산량 75% 점유 예상, 현재 점결탄, 크롬 포함 전체 철강석의 80% 매장된 지역
'21.7월	특수강 생산연계 인센티브 (Specialty Steel PLI)	- 632.2억 루피(8.48억 달러) 규모의 특수철강 PLI 발표, '22.9월 기준 75개사 신청, 승인 기업 미발표
'22.5월	철광석 수입관세 인상, 관련 제품 수입 관세 인하	- 철강·석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정부는 제조원가 절감, 물가상승 억제에 위해 수출입세 조정 - 철광석·펠릿 등 수출세 인상 및 신규 부과, 석탄·코크스 등 수입세는 0%로 인하

자료: KIEP,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는 철강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2021년에는 러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점결탄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의 정부 및 기업과도 JV 설립, FDI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화학) 화학산업 육성 정책, 대규모 내수시장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 유지

- 인도는 제약 부문을 제외한 화학 부문에서 세계 수출 14위, 수입 8위를 달성하며 화학 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음
- 인도 화학산업 시장 규모는 2021/22 회계연도 2,130억 달러이며, '19~'25년간 연평균 9.3%로 성장하여 2025/26 회계연도에는 3,040억 달러에 달할 전망, GDP의 25%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20.2월)하였으나, 현재 1.4%에 불과
- 화학산업 다운스트림 부문 성장을 위해 구자라트 등 석유화학 투자지역(PCPIR) 지정 및 특별경제지구(SEZ)를 설치하여 각종 세제 혜택 부여
- 비료를 제외한 화학산업 부문 FDI는 '00.4월~'21.9월 누적 기준 약 190억 9천만 달러이며, 제약 부문 PLI 등 정부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됨
 - * (부문별 PLI 및 규모) △의약품 4.2억 달러, △의약품 18.5억 달러, △의약품원료 8.5억 달러
- 인도의 화학제품 판매량은 아시아 4위 세계 6위 수준이며, 폴리머제품의 소비량은 세계 3위('21.3)로, 1인당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소비가 세계 평균보다 아직 낮아 내수 역시 향후 크게 증가 전망. 특히 특수화학, 유기화학, 폴리머, 그린 케미칼 등 수요 확대가 동반되며, 지속적 성장 예상
- 또한 석유 내수의 65% 이상을 원유를 정제해 얻고 있어 석유화학 제품 원재료를 자체 조달하는 등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보유

■ (산업 트렌드) 인도의 전기차 시장, “Make In India” 정책에 맞물려 급부상하는 자동차 산업과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환 가속화

- “Make in India” 정책과 맞물려 급부상하는 인도 자동차 산업
 - 코로나19 사태로 인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자동차 산업은 지속 성장 중임
 - '20년 세계 자동차 생산국 6위에서 '21년에는 4위로 2계단 상승

〈 인도 자동차 시장 특징 〉

- (1위) 세계 최대 이륜차 생산국, 수출국, 소비국
- (2위) 세계 버스 생산 2위 (1위 중국)
- (3위) 세계 대형 상용차 생산 3위 (1위 중국, 2위 일본)
- (4위) 세계 승용차 생산 4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 (7위) 세계 상용차 생산 7위

- 전 세계 주요 다국적 메이커들이 현지 업체들과 경쟁하는 각축장
 - 이륜차 및 삼륜차 시장은 히어로, 바자즈, 혼다, 피아지오, 마힌드라, TVS, 아틀 등 현지 기업 및 일본 기업 등이 상위의 점유율을 차지
 - 상용차 부문의 경우 타타, 마힌드라, 아속 레이랜드, 에이처 등 인도의 4대 기업이 판매의 90% 이상 점유
 - 사륜차의 시장점유율은 마루티 스즈키(인도·일본 합작), 현대차(한국), 타타(인도), 기아차(한국), 마힌드라(인도) 順

〈2021년 인도 자동차 시장의 차종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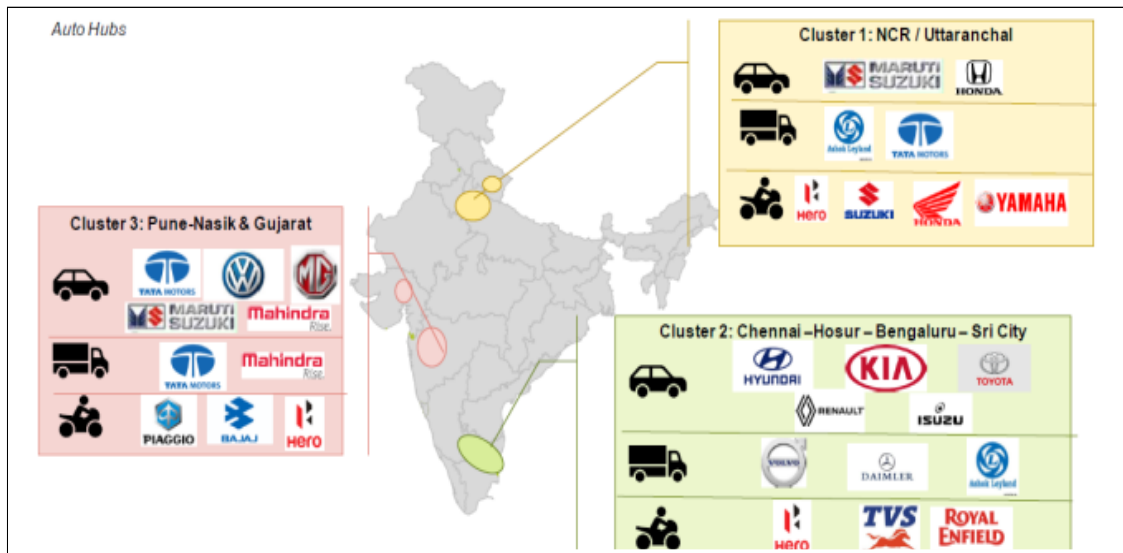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이륜차	히로	37	혼다	26	TVS	14	바자즈	12	로얄엔필드	4
삼륜차	바자즈	51	피아지오	29	마힌드라	10	아틀	7	TVS	4
사륜차	마루티스즈키	49	현대차	17	타타	8	기아차	6	마힌드라	5
상용차	타타	42	마힌드라	27	아속레이랜드	16	에이처	6	마루티스즈키	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1)

- 인도 자동차산업 지역(허브)은 크게 3대 클러스터로 나뉠 수가 있음
 - △ (뉴델리) 델리NCR 등 수도권 인근 지역 △ (뭄바이) 인근 푸네와 구자라트 지역 △(첸나이) 타밀나두주를 중심으로 인근 AP주 및 카르나타카주

- 우리나라에서는 첸나이가 ‘인도의 디트로이트’라고 알려져 있음
 - 다국적 완성차 브랜드들이 대부분 타밀나두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말 현대차가 타밀나두에 100개 이상의 협력사와 함께 진출함
 - 세계 10대 자동차 허브 안에 들며 자동차 관련 공장이 1,400개가 넘음
 - 인도의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타밀나두주에서 차지하고 있음

〈 인도 자동차 허브 현황 〉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Avalon Consulting(2022)

- 인도 전기차 보급 현황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삼륜차와 이륜차가 판매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2021년 전기차 생산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기 이전인 2020년 7월 기준 인도 내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기차(이륜차, 삼륜차 포함)는 52만 대에 불과했음
 - 이륜차와 삼륜차가 각각 판매량의 79% 및 17%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사륜차는 4%에 그침
- 최근 5년 인도 전기차 시장은 7배 성장했으며 '20년 코로나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으나 '21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함
- 기존의 메이커들이 대부분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신규 메이커들도 등장하고 있음
 - (기존) 마루티스즈키, 타타, 마힌드라, 현대, 바자즈, TVS, 피아지오 등
 - (신규) 올라, 올렉트라, PMI, BGauss, Kinetic Green, JBM, Ampere 등

〈 연도별 인도 전기차 판매 현황 〉

(단위: 천 대)

	2017	2018	2019	2020	2021
이륜차	54.8	126.0	152.0	143.8	400
삼륜차	4.2	10.7	11.2	7.2	17.4
사륜차	1.0	0.8	2.8	5.9	22.4
기타	1.3	1.4	1.9	0.8	3.3
전체	61.3	138.9	167.9	157.7	443.1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Avalon Consulting

- 인도에서는 사륜차의 경우 타타가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85%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MG(12%), 현대차(1%)가 추격하고 있음
 - 마루티스즈키는 2025년 첫 전기차를 선보이기로 하는 등 전기차 사업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현대차는 기존의 Ioniq5 외에도 '28년까지 전기차 6개 모델을 더 출시할 예정
 - 테슬라는 뱅갈루루에 '22년 1월 리서치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지생산은 없는 상황이며 완성차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하여 아직 테슬라 전기차의 인도 수출도 거의 없는 상황임
 - * 인도 내 테슬라는 무케시 암바니(릴라이언스 회장) 등 부유층 극소수만 보유
- 이륜차의 경우 기존의 이륜차 강자인 Hero사가 전기 이륜차 부문에서도 25%로 시장점유율 1위를 이끌고 있으며 그 뒤를 Okinawa(19%), 올라(5%), TVS(3%), 바자즈(2%) 등이 따르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음
- 전기 삼륜차는 마힌드라가 79%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Piaggio가 21%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전기 버스의 경우 3대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PMI(33%), 타타(24%), Olectra(19%)
-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현재 1만 개 수준이지만 2025년까지 70만 개를 건설 계획
 - 현재 Tata Power(현대차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22.5월 체결), Zeon Charging, Indian Oil, Bharat Petroleum, Charge Zone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분야에 투자 중
- 인도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2012년 제시된 NEMMP2020(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및 이를 구체화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인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이 있음
 - (NEMMP 2020) 2020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6백만 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차량 구매자와 제조업자에게 인센티브, 충전소 인프라 설치 등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나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비중이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FAME) 2015년부터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전기차 기술 개발, 수요 창출, 시범사업 수행,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

- 2021년에는 2천 600억 루피(4.2조 원) 규모의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여 전기차 산업 육성 도모
 - 그동안의 정책들이 전기를 구매하고 전기차 인프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PLI 정책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PLI 지원 범위 : 전기차, 전기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전기 부품, 충전소 등
- 이외에도 지방정부에서도 개별적으로 전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
 - 인도의 28개 주 가운데 경제력이 약한 동북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방정부들이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를 발표한 상황임

〈 인도 주정부별 전기차 정책 발표 현황 〉

지방정부	세부 내용
타밀나두	2030년까지 연간 5% 이상의 버스를 전기차로 전환 6대 주요 도시 내 삼륜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
카르나타카	2030년까지 삼륜차, 택시 등을 100% 전기차로 전환 - 전기차 소비세에 무이자 대출 제공 - 벵갈루루 시내에 전기차 충전소 112개 설치
뉴델리	2024년까지 신규 등록 전기차 점유율 25%까지 제고 - 구형 이륜차 폐차 시 인센티브 제공 - 전기차(사륜차/삼륜차) 구매 시 3만 루피 인센티브 지급
안드라프라데시	2030년까지 시내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전환 2024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도로세 및 등록세 면제 2024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판매 목표
케랄라	2025년까지 전기버스 6천 대 운영 - 전기차에 대한 도로세 및 통행료 면제
구자라트	전기차 충전소 세금 면제
마하라슈트라	정부 관용차 100%를 전기차로 전환
텔랑가나	2025년까지 전체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전환
마드야프라데시	2028년까지 시내버스 100% 전기차로 전환
우타르프라데시	2030년까지 전 차량의 70%를 전기차로 전환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Avalon Consulting

라. 정책·규제 환경

■ (정책) Make in India 2.0 기반, 산업구조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

- 인도 내 제조시설을 확대하고, 스스로 생산하는 Make in India 2.0 버전인 자주 인도 정책 발표('20.5.)
 - 5가지 항목(경제, 인프라, 시스템, 수요, 인구)을 중심으로 인도 내 제조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으로, 2024/25 회계연도까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진행 중
 - '16년부터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을 통해 제조 시스템 강화 및 내수 가치 향상 노력
 -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현지 생산을 장려하여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급망 기지로 변신

〈 자주 인도 정책 5가지 항목 〉



자료: Outlook India 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재가공

- 주 수입품(반도체부품·휴대폰부품 등) 현지 생산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 도모
 - * 對中 무역적자 397.4억 달러('20) → 644.3억 달러('21)로 62.1% 증가, 무역의존도 완화 목표
 - 전자차·전자제품 등 현지 생산·수출 시 수출액 일부 인센티브로 지급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 강화
 - * 총리 주재 제1차 FDI 활성화 대책회의('20.4) 개최 이후 韓·美·日·中 등 주요국 주재 인도 대사관을 통해 진출 희망 기업 확인 및 토지 제공 등 인센티브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존 수출보조제도(MEIS)가 '20.12월부 종료됨에 따라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新 수출지원제도인 RoDTEP 발표, 1,245.4억 루피 지원('21.1.)
 -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원자재·부품·전기·연료 등) 대상으로 부과된 간접세(지방세, 광업세, 농산물세, 부가가치세 등) 0.01~4.3% 비율 내 환급
 - 노동집약적 산업인 보석, 농업, 가죽, 해양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등도 지원. 다만, 제약·철강·화학 산업은 제외

■ (ESG, 환경) 인도 정부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및 안정화된 전력 공급망 구축 △친환경 빌딩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그린 이니셔티브 및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변화하고 진출하고 있음

-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에 근거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은 인도를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既 선정
 -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뿐이며, 향후 우선 협력대상국(17개국)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 예정
 - * (既 체결: 1개국) 베트남 / (체결 추진: 17개국) 인도, 인니, 칠레, 태국, 몽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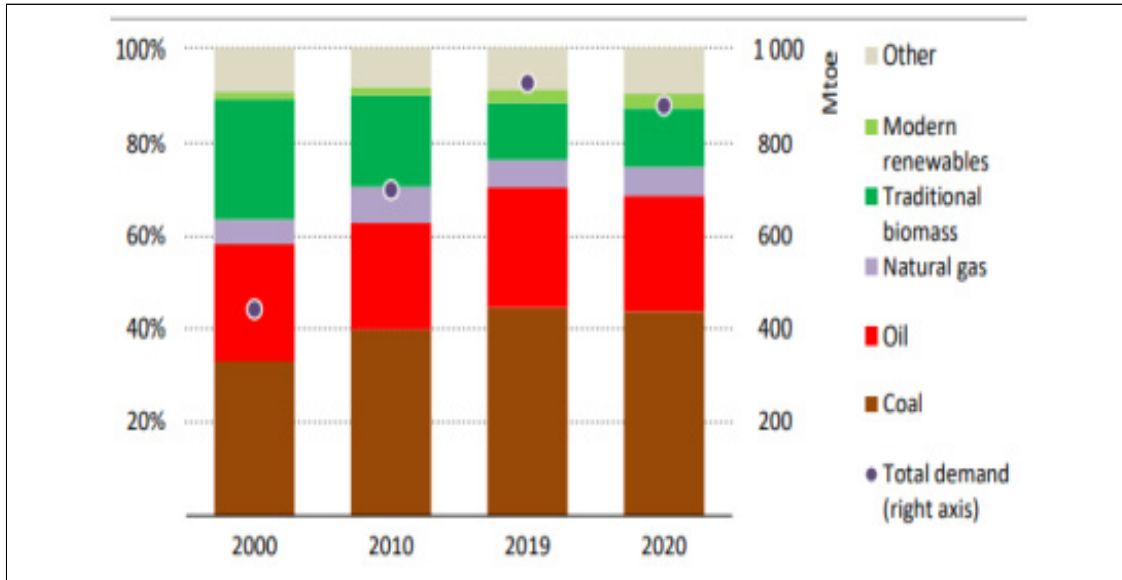
〈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 〉

- 개도국에서의 기술·자본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 가능
- 원조국-개도국 간 감축분의 이중 계산 방지를 위해 양자 협의를 통해 감축분 비율 결정

- 인도와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이 체결된 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인도 NDC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정책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 * 인도 환경부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 <https://ckcpindia.nic.in/>
- 현지 발주 프로젝트 사업 또는 ODA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추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에 유리한 환경 조성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망분야 : 농업, 산림, 폐기물, 가정용 에너지 부문
- 이외에도 기업들의 수출 기회요인으로는 △전기차 관련 이차전지, 충전 인프라, 부품 등 △에너지 저장기술("P2G") 설계, 시공, 운영 솔루션 △친환경 건축 기자재 등을 꼽을 수 있겠음
- 인도의 1차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석탄·석유(고체)바이오매스가 '90년 이래로 1차 에너지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은 52.8%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음

〈 인도 1차 에너지믹스 추이 〉

(단위: Mtoe)



자료: IEA Outlook 2021

- 모디 정부, 신재생 발전에너지를 2022년까지 175GW, 2030년까지 500GW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을 10억 톤으로 줄여 2070년에는 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42GW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확장해야 하며, 정부는 2022년, 2027년을 목표로 설정하여 석탄에너지 생산 비중 축소
 - ※ 석탄에너지 생산 비중 축소 목표 : ('22) 45% → ('27) 40% → ('30) 33~35%
 - 2022년에는 100GW는 태양력, 60GW는 풍력, 10GW는 바이오매스, 5GW는 소수력 발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흥책이 시행되고 있음

〈 에너지·전력 관련 최근 정책 및 이슈 〉

구분	정책명	정책내용
지속가능한 개발·전력· 그린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 '16)	• 주정부 소요전력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구매. 즉, 전기공급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할 의무 발생 * 의무조달비율 변동 : ('16.3) 3% → ('18.7) 17% → ('22) 21% * 수력에너지도 2019년 3월부터 RPO 대상에 포함
	그린 에너지 회랑 프로젝트 II (Green Energy Corridor, '22)	•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 내 기존 발전소와 동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1.1월 약 1조 원 규모의 2단계 프로젝트를 승인 • '26년까지 7개 주에 전력 송전 인프라 구축, 발전 능력 제고
	2022/23 인도 연방예산안 ('22)	• 고효율 태양광 모듈 제조를 위한 PLI, 25.7억 달러 예산 배정 • 신재생에너지 개발 총괄 인도태양에너지협회에 1.32억 달러 배정 •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 데이터센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인프라' 부문 격상, 저리로 대출·외채 및 민간자본 차입 가능 • 중앙 공해관리 위원회에 1,320만 달러 배정 • 석유 정제용 메탄올, 초산 등 특정 화학물질 관세 인하 시행 • 환경 관련 인허가 통합 단일창구 PARIVESH 범위를 모든 환경 관련 허가로 확대, 4개의 허가절차를 중앙센터를 통하여 한 번에 진행도록 개선
	송배전 장비에 대한 PLI 검토 ('22.10.)	• 최근 인도 전력 그리드에 중국, 러시아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며, 전력 및 통신 인프라 안보 및 일부 주요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송배전 장비 PLI 검토 중
석유·석탄	LNG 천연가스 정책('21)	• LNG 재가스화 능력을 현재 연 42.5 MTPA에서 2030년까지 70 MTPA, 2040년까지 100 MTPA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초안 발표
	대기오염 개선 프로그램('19)	•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석탄발전소 폐쇄 → '20.2월까지 노후 발전소 170여 개 폐쇄 완료
태양광	국가 태양광 발전 미션 (National Solar Mission, '10)	• 2014/15 회계연도부터 2022/23 회계연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확대, 40GW는 지붕형, 40GW는 유틸리티형, 20GW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로 달성 • 2021.12.31일까지 49.35GW의 태양광 발전용량이 설치됨
	고효율 태양광 모듈 PLI('21)	• 태양광 모듈 국산화를 통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450억 루피(6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 발표 • '22.2.1일 연방예산안 발표에서 1,950억 루피 추가 배정
풍력	국가 풍력-태양광 복합발전('18)	• '22년 풍력 10GW 달성 목표에 따라 낮에는 태양광을, 밤에는 풍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봄 * 라자스탄, 타밀나두주에서 1,440MW 복합발전 추진 중
수력	국가수소정책 (National Hydrogen Mission, '21)	• 그린수소 생산·사용 확대, '30년까지 그린수소 2천만 톤 생산 • 그린수소 비용 절감, 현재 kg당 350루피(약 4.3USD)에서 '30년까지 kg당 160루피(약 2USD), 그린수소 PLI 예고
	그린수소정책 (Green Hydrogen Policy, '22)	• '30년까지 그린수소 연 5백만 톤 생산, '50년까지 그린수소 비중 75%까지 확대할 예정, 공·민간기업에서도 생산 본격화 • 그린수소 수요 촉진을 위해 정유·비료 철강 조달 의무화 * 조달 의무화 비율 : (FY23/24) 10~15%E → (FY28/29) 25% (상향 조정 예상) • '30년까지 수소연료 기반 열차 운행 목표

자료: 각 정부기관, 현지 언론 보도자료 종합

- 인도는 에너지믹스 내 가스의 비중을 2010년 8% 수준에서 2030년 1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30년까지 LNG를 연료 및 공급 원료로 사용토록 장려하고 있음
 - 인도는 '19년 기준 세계 4위 LNG 수입국으로 수입량 기준 자국 총 가스 수요의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FY15/16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9% 증가, 향후 '30년까지는 매년 7% 성장 전망
 -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가스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2040년에는 부분적으로 가스발전이 석탄발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
 - * '가스'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천연가스(LNG)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수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ESG, 사회적책임) 인도는 기업의 CSR 시행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로, 최근 ESG의 중요성 증대로 정부 차원의 CSR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발 빠르게 ESG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인도, 2013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취지로 회사법(Company Act, 1956)을 개정했으며, 동법 제135조를 통해 CSR 활동 및 관련 공시를 의무화
 - 기업의 이익 2%를 교육, 보건, 환경, 젠더, 기술개발 등에 투자해야 하는 책임 발생
 - 주요 기업들은 2019년 정부가 발표한 기업 책임 가이드라인(RBC Guidelines)에 따라 사업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BRSR)를 제출해야 하나, '22.3월까지의 자율 제출, 2022/23 회계연도부터 의무 제출 사항으로 변동
 - CSR 의무 제출 대상 조건은 최근 3년 이내에 총매출 100억 루피 이상/순자산 50억 루피 이상/순이익 5,000만 루피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임

〈글로벌 및 진출(희망) 기업 ESG 경영(CSR) 사례〉

(의료/교육) S사 / 저소득 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	(재난/교육) C사 / 재난 지원, 학교시설 건립
• 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학습 기회 제공, 취업준비생 대상 기술인력 양성, 임직원 강의를 통한 IOT 우수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의료환경 개선 등 → (수혜) 학생 43만 명, 교사 8천 명, 장학금 수혜학생 800명 등	• 지진, 폭우 등으로 매년 피해를 겪는 지역에 대한 재난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지역학교 시설 정비 및 교육용 디지털 툴 제공 → (수혜) 9개 지역학교, 수해복구지역 3개 주 등
(안전/의료) G사 / 지역사회 안전위생 관리	(교육/기부) M사 / 인도 빈곤 퇴치를 위한 기부
• RO 정수기 지원, 워터 탱크 설치 등 식수 개선, 화장실 설치, 개인 위생 습관 교육 등 안전 위생, 지역학교 교실 증설, 스마트 툴 제공, 의료캠프 운영 등 →(수혜) 2개 주 지역사회 및 주민	• 소외계층 아동에게 책, 옷, 필기구, 방한용품 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 수행 → (수혜) 3개 공립학교 학생

자료: 각 사 홈페이지, KOTRA 뉴델리 무역관('21~'22)

■ (ESG, 거버넌스) 2023년, 인도 G20 의장국을 맡아 세계 경제 대다수를 대표하는 국가가 인도에서 함께 모여 경제협력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인도는 1년간 G20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인도 내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G20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 G20 정상회담은 2023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
 - G20(Group of Twenty)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부 협력 포럼으로, 인도 포함 19개국과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되어 있음
 - G20은 세계 GDP의 약 90%, 국제 무역의 80%,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럼
 - 현재 G20 의제와 그 우선순위는 논의 중에 있으나, △기후변화 과제, △그린에너지 관련 개발, △식량 불안정, △금융 부문 해결, △신흥국 부채 증가 해결 등이 될 것
 - UN은 인도가 G20 국가들을 동원하여 부채에 시달리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서남아 신흥국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인도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규제 수립을 G20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으며, G20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글로벌 동맹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내년도 인도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
 - 인도는 당초 2022년 의장국이었으나,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통해 2023년으로 변경,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이전 '가시화된 실적'을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개최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
- 2023년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해이자 인도가 G20 의장국을 맡은 해로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고, 인도는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한 해
 - 현재 G20 등 주요 포럼을 앞두고 러-우 사태 발발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및 탈탄소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 증가
 - 한국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공급망 밸류체인 선점, 관련 기자재 및 제품 수출 기회 확대를 통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장 분석

- ※ (시장 특성) 14억 거대 소비시장(Demand), 젊은 노동시장(Demography), 핀테크·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Digital)
- ※ (수출입) 무역적자 지속, 자국 제조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시행 및 자국 내 물가안정을 위한 곡물 수출 금지 등 식량안보 정책 시행
- ※ (투자 진출) 투자환경 개선 노력으로 FDI 호조세, 인프라·규제·세무조사 등은 진출 기업 애로로 작용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약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 세계 2위 인구 규모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거대 소비시장 형성
 -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1인당 GDP는 2,283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중산층의 증가 및 총 가구소득의 증가로 소비 규모가 커지고 있음
 - * (연평균 총 가구소득, USD) ('10) 4,899 → ('19) 6,633(+35.3%) → ('30) 9,267(+39.7%)
 - * 연평균 총 가구소득 12,600달러 이상 계층은 2019년 12%(3,600만 가구)를 차지, 2030년 전체의 23%(7,900만 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보스턴 컨설팅 그룹(2022)에 따르면, 2021년 인도 소비시장 규모는 1.6조~1.7조 달러(130조~140조 루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노동인력(15~64세)이 8.5억 명(총 인구의 63.6%)에 달하며, 이 중 50%가 27세 이하의 젊은 층이고, 0~14세 영유아 인구는 총 인구의 31.2%로 세계에서 5번째로 젊은 국가로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노동시장을 보유
 - 부양인구에 비해 생산인구가 많아질 전망이며, 현재 인구구조 또한 피라미드형을 보여주고 있는 인상적인 형태, 소비와 생산의 향후 전망 낙관적일 예정
 - 132개국의 글로벌 혁신지수를 담고 있는 GI(Global Innovation Index 2021)에 따르면, 인도는 46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하였음 (WIPO, '21)
 - * 인도는 서남아시아 지역 1위, 중하위소득 그룹 2위(1위는 베트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81위에서 2021년 46위까지 7년간 35단계를 지속 상승하였음
 - * ICT 서비스 수출(1위), 국내 산업 다각화(12위), 이공계 졸업생 비율(12위), 상위 과학기술(S&T)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
 -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과학자 및 기술자를 보유한 국가로, 우수한 노동력과 향후 진보되는 기술력에 대해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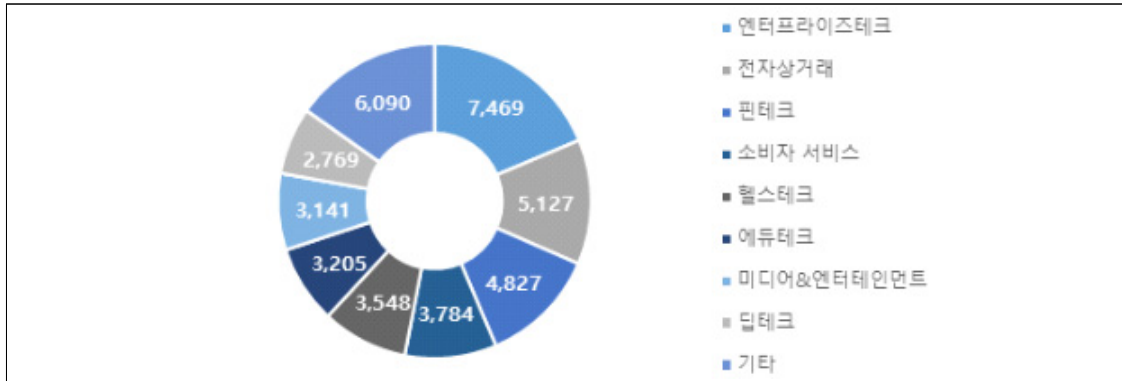
■ 세계의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한 친기업 정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 친기업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
 - 'Make in India', 'Digital India',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지원정책(PLI, RoDTEP) 등 친기업 지원정책 추진으로 세계의 공장 지향
 - 간접세제 개혁 완료(통합간접세 도입, '17.7.1.), 노동법, 토지 취득법 완화 추진
- 도시화 진행 속 인프라 개선 및 인접국 간 주요 인프라 연계 확대 노력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고속도로, 철도, 전력, 수처리 시설 등
 - 민·관 합작 파트너십(PPP)을 통해 벵골만 연안국(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네팔 등)간 고속도로 연결, 항만, 전력 거래, 국경무역 촉진 노력 지속
 - 2022년 인도 건설 인프라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정부의 인프라 부흥정책에 의해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전년 대비 5.8%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연평균 7.0%의 성장률 예상
- 인도는 G20 국가 중 유일하게 올해 6~7%대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동일한 지속세가 유지될 경우 2022/23 회계연도 기준 세계 5위 규모에 등극
 - 미-중 무역 분쟁 극화, 중국의 시진핑 주석 3연임 이후 강화되는 사회주의 체제 등 여러 정치경제적 생태계 변화로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시화되며 인도가 대안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음
 - 특히, 인도는 '20.5월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유혈사태가 발생 이후 對중국 의존도 감소, 중국산 앱 규제, 투자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아직 對중국 수입 등 중국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인 영향력 감소로 글로벌 진출 기업들에게 반사이익 효과가 발생, '차이나 런'과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맞물려 인도의 생산기지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 * (FDI) 마이크로소프트사,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달러 투자, 펩시코, 인도 내 식품공장 확장을 위해 2,400만 달러 투자, 애플 아이폰 14, 에어팟 등 인도로 일부 생산 이전 계획
- 인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아세안 등으로 수출 또는 진출할 수 있는 신흥국의 스프링보드이자 허브로 작용

■ 글로벌 스타트업의 성지이자 급성장하는 유니콘 생태계

- 2016/17 회계연도 733개에 불과하던 스타트업은 2021/22 회계연도 기준 65,861개로 6년간 약 880%가량 성장
 - 2021/22 회계연도 내에만 1만 4천여 개의 스타트업 설립 ('22.2, Economic Survey)
 - * 인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액티브 스타트업'은 3만 9,960개 사로, 특히 엔터프라이즈테크사가 7,469개 사(18.7%), 전자상거래사가 5,127개 사(12.8%)로 많은 비중 차지

〈 인도 Active Start-up 산업 분포 〉



자료: Inc42 Plus

- '21년 인도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은 총 420억 달러로 전년 119억 달러 대비 2.5배가량 증가했으며, 투자 유치 건수는 953건에서 66% 증가한 1,583건 (Orios, '22)

* '21년 투자 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252%가량 상승하며, 엄청난 변화 국면을 맞이

* ('21년 인도 S/U 투자액, 달러) 美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70억), 日 소프트뱅크(140억) 등

〈 인도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 및 건수 변화 추이 〉

(단위: 개, 십억 달러)



자료: Inc42 Plus

■ 글로벌 유니콘 기업(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은 '22.2.2일 1,000개 사 등극, '22년 10.7일 기준 1,191개에 이르는 상황이며, 그 중 인도는 '21년 41개에서 29개 증가한 70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 美(644), 中(172)에 이어 유니콘 기업 수 3위 기록 ('22.10, CB Insights)

* CB Insight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분류기준으로, 창업자의 국적 및 활동 시장을 근거로 하는 인도 정부 기준과 상이. 인도 정부 기준으로는 112개의 인도 유니콘 기업 존재

〈 인도 유니콘 기업 현황 〉

(단위: 십억 달러)

연번	기업명	가치	분야	연번	기업명	가치	분야
1	Acko General Insurance	1.1	핀테크	36	Mensa Brands	1	브랜드 마케팅
2	Amagi	1	인터넷 서비스	37	MobiKwik	1	핀테크
3	apna	1.1	인터넷 서비스	38	Mobile Premier League	2.45	인터넷 서비스
4	BharatPe	2.85	핀테크	39	MyGlam	1.2	전자상거래&D2C
5	BlackBuck	1	운송, 물류	40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6.5	핀테크
6	BYJU's	22	에듀테크	41	NoBroker	1	인터넷 서비스
7	CarDekho	1.2	전자상거래&D2C	42	OfBusiness	5	전자상거래&D2C
8	Cars24	3.3	전자상거래&D2C	43	Ola Cabs	7.5	전기차, 운송
9	CoinDCX	2.15	핀테크	44	Ola Electric Mobility	5	전기차, 운송
10	CoinSwitch Kuber	1.9	핀테크	45	OneCard	1.4	핀테크
11	CRED	4.01	핀테크	46	Open	1	핀테크
12	CredAvenue	1.3	핀테크	47	OYO Rooms	9	여행
13	CureFit	1.5	피트니스, 건강	48	PhysicsWallah	1.1	에듀테크
14	Darwinbox	1	인터넷 서비스	49	Pine Labs	5	핀테크
15	DealShare	1.7	전자상거래&D2C	50	PolicyBazaar	2.4	핀테크
16	Digit Insurance	4	핀테크	51	Pristyn Care	1.4	피트니스, 건강
17	Dream11	8	인터넷 서비스	52	Purple	1.1	전자상거래&D2C
18	ElasticRun	1.5	운송, 물류	53	Razorpay	7.5	핀테크
19	Eruditus Executive Education	3.2	에듀테크	54	Rebel Foods	1.4	전자상거래&D2C
20	FirstCry	2.1	전자상거래&D2C	55	Rivigo	1.07	운송, 물류
21	Five Star Business Finance	1.4	금융	56	ShareChat	5	인터넷 서비스
22	Fractal Analytics	1	데이터관리 및 분석	57	Shiprocket	1.3	운송, 물류
23	Games24x7	2.5	인터넷 서비스	58	Slice	1.8	핀테크
24	GlobalBees	1.1	전자상거래&D2C	59	Snapdeal	1	전자상거래&D2C
25	Groww	3	핀테크	60	Spinny	1.75	전자상거래&D2C
26	Hasura	1	인터넷 서비스	61	Swiggy	10.7	운송, 물류
27	Infra.Market	2.5	전자상거래&D2C	62	Udaan	3.1	운송, 물류
28	InMobi	1	모바일광고 플랫폼	63	Unacademy	3.44	에듀테크
29	LEAD School	1.1	에듀테크	64	UpGrad	2.25	에듀테크
30	LeadSquared	1	인터넷 서비스	65	Upstox	3.4	핀테크
31	Lenskart	4.5	전자상거래&D2C	66	Urban Company	2.1	전자상거래&D2C
32	Licious	1	전자상거래&D2C	67	Vedantu	1	에듀테크
33	LivSpace	1.2	전자상거래&D2C	68	VerSe Innovation(Dailyhunt)	5	인터넷 서비스
34	Mamaearth	1.07	전자상거래&D2C	69	Xpressbees	1.2	운송, 물류
35	Meesho	4.9	인터넷 서비스	70	Zetwerk	2.68	인터넷 서비스

자료: CB insights(2022.10.7.)

- Zomato(식품 배달), 폴리스바자르(보험테크), Paytm(핀테크), Nykaa(전자상거래) 등은 기업공개에 성공했으며, 에듀테크 기업 BYJU's와 식품 배달 기업 Swiggy가 데카콘 기업(기업 가치 100억 달러)에 등극하였음

〈 2021년 인도 스타트업 중 상장된 기업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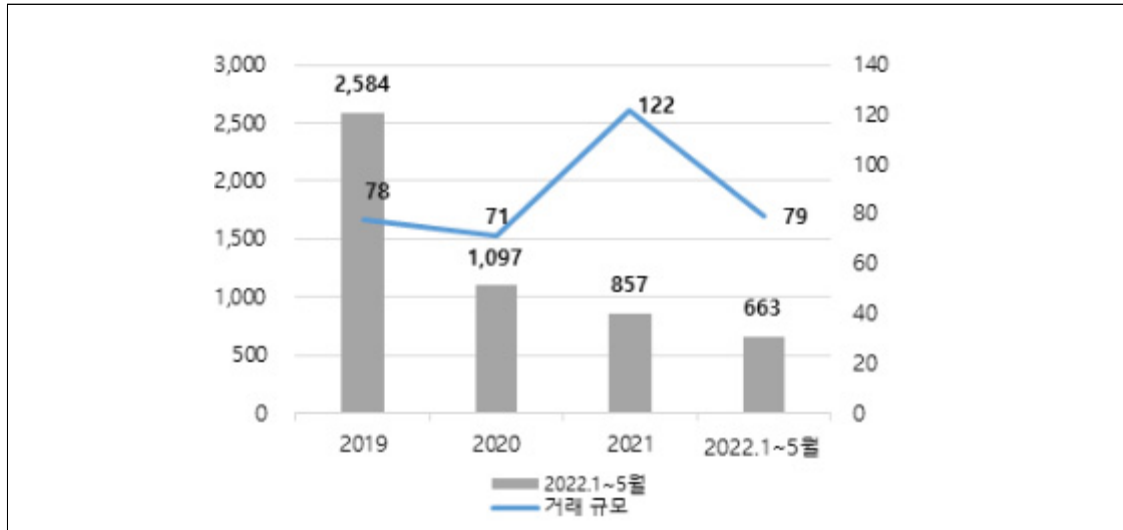
회사명	기업공개 일자	산업 분야	기업가치(2021.12.)
EaseMyTrip	3.8.	여행 플랫폼	760
Nazara Technologies	3.17.	게임&스포츠 플랫폼	950
Zomato	7.14.	식품 배달	15,000
CarTrade	8.20.	자동차 판매 플랫폼	700
Freshworks	9.22.	기업용 소프트웨어(SaaS)	7,600
Nykaa	11.10.	화장품 유통	13,000
Fino	11.12.	핀테크	450
Policybazaar	11.15.	보험테크	7,000
Paytm	11.18.	핀테크	14,000
RateGain	12.17.	기업용 소프트웨어(SaaS)	-
MapMyIndia	12.18.	기업용 소프트웨어(SaaS)/GIS	-

자료: Inc42 Plus

- 주식시장 상장(IPO) 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Exit) 차원에서 M&A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인도는 특히 대기업-스타트업 간 또는 스타트업 간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Grant Thornton Bharat, 2022 Dealtracker)
 - 인도의 2021년 총 M&A 거래 건수는 499건으로 이 중 스타트업 M&A는 24.4%인 12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거래 규모는 약 8억 5,700만 달러에 달함
 - 122건 중 114건은 인도 내에서 발생, 나머지 8건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M&A가 이루어졌음
 - 2022년 5월까지의 약 79건의 스타트업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연도별 인도 스타트업 M&A 추이 〉

(단위: 건, 백만 달러)



자료: Grant Thornton Bharat 'Deal Tracker'('22.6.)

- (위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유망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투자확대 지속 가능성 △여성의 낮은 국내총생산 기여도(18%, Mckinsey) △인도 소비자의 저가격 선호 성향 △현지 기업만으로 이루어져 해외 스타트업 창업과 현지 네트워킹의 어려움 등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려운 부분도 상존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문화 콘텐츠 소비 향유자의 증대로 소비재 (유통)시장의 성장 지속

● 인도 소비재 시장 규모의 성장과 유통시장 전망

- (시장 규모) '32년 세계 3대 소비재 유통시장 성장 예상
 - * (규모) 現 6,900억 달러(세계 5위)에서 '32년 2조 달러(세계 3대)로 성장 예상
 - * 인도 소매유통시장 ('10) 2,500억 달러→ ('21) 6,900억 달러→ ('32) 1.9조 달러 (BCG, '22)
- (품목) 주 소비 품목은 식료품(68%), 패션·잡화(9.8%), 가전(9.2%) 순 (IBEF, '22)
- (구조) 유통구조는 점포(매장)형 93%, 비점포형 7% 차지
 - * 전통소매점 키라나(75%) 비중 압도적, 단 비중 감소 추세 88%('19) → 75%('21)
- (전망)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점포형 빠르게 성장
 - * 비점포형 매출 비중: ('17) 2.8% → ('19) 5.2% → ('21) 6.9%

〈 유형별 주요 기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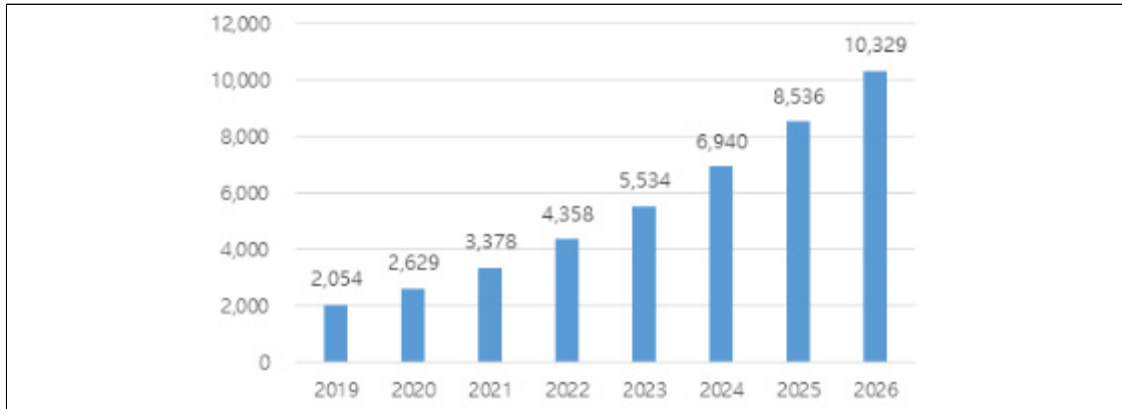
소매점	분류	주요 기업(브랜드)명
점포형	복합 소매점	하이퍼마켓 Avenue Supermarts(D-Mart), RPG Group (Spencer's) Future Group (Big Bazaar)
		슈퍼마켓 Reliance(Smart/Fresh), Aditya Birla Group(More), Future Group(FoodHall), RPG Group(Nature's Basket)
		편의점 Twenty-Four Seven, Easy Day
	전문 소매점	의류 Reliance Trends, Brand Factory, Max
		위생·제약 Apollo Pharmacy, Health&Glow, WellnessForever
		가구·생활 Colour Idea Store, Godrej Interio, Home Town
		전자제품 Reliance Digital, Tata Croma
비점포형	백화점 Shopper's Stop, Lifestyle, Central, Pantaloons	
	온라인 소매점	인터넷쇼핑몰 Flipkart, Amazon, Myntra, Nykaa, Tata Big Basket
		TV홈쇼핑 Naaptol, eZMall

자료: 현지 언론 등

-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1년 전년 대비 28.5% 증가한 3조 3,770억 루피(약 425억 달러) 규모이며, 2021~2026년 연평균 25%가량 증가해 10.3조 루피(약 1,2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디지털 인디아 정책 발표 이후 시작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전자상거래 유통시장 및 인도의 소비시장은 오히려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음
 - * 2021년 디지털 전환 추이 : 인터넷 보급률 60%대, 스마트폰 사용자 40%대 등
 - 일례로 인도 양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플립카트는 2021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1.5배, 2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인도, 올해 평균 임금상승률 10.6% 기록, 전자상거래 부문 인상률 가장 높아
 - * 부문별 임금 상승률(%): (전자상거래) 12.8, (스타트업) 12.7, (하이테크/정보통신) 11.3, (금융) 10.7

〈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추이(2019~2026년) 〉

(단위: 십억 루피)



자료: 유로모니터

- 소비재 수입액은 60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의 약 10%를 차지 (WITS, '22)
 - (주 수입국) 중국(17.4%), 유럽(14.2%), 카타르(12.2%), UAE(8.7%), 미국(7.1%) 순
 - * 한국은 '17년 금 수입 일시 증가분을 제외하곤 3~4%대 유지 (WITS)
 - (주 수입품) 농수산물(32.5%), 섬유패션(14.7%), 가전(10.5%) 순
 - * 수입 증가율은 유아용품(31.1%), 화장품(16.4%) 의약품(14.1%) 순 (KITA, '19)
- 우리나라의 對인도 소비재 부문 수출 규모는 '21년 전체 소비재 수출액 788억 달러의 0.35%인 2.7억 달러에 불과
 - * 소비재 수출액 추이 : ('18) 2.3억 → ('19) 2.84억 → ('20) 2.34억 → ('21) 2.7억 (15.3%↑)
 -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로 의약품 수출 604% 증가
 - * 의약품 수출액 : ('19) 4백만 달러 → ('20) 2천7백만 달러 (관세청)
 - 화장품 수출 증가세 지속, 스킨케어는 인도 전체 수입국 중 3위
 - * 화장품 수출액 : ('18) 7백만 달러 → ('19) 1천2백만 달러 → ('21) 2천5백만 달러 (GTA)
 - * 인도 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 : ('19) 5.2% → ('20) 9.6%, 3위 (GTA)
 -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식품 수출 증가, 라면 수출 150% 증가
 - * 식품 수출액 : ('19) 7백만 달러 → ('20) 1천1백만 달러 (48.1% 증가) (ITC)
 - * 라면 수출액 : ('19) 1.4백만 달러 → ('20) 3.4백만 달러 (146% 증가) (Euromonitor)

나. 수출입

■ 인도의 교역 동향 및 무역적자 현황

● 교역액 기준 세계 13위 기록

- 2022년 8월 기준 인도의 총 교역액은 8,040억 5,400만 달러로 세계에서 13번째
- 2021/22 회계연도(2021.4.~2022.3.) 기준,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50.7%가량 증가한 수치로 수출 4,219억 달러, 수입 6,126억 달러, 무역적자 1,907억 달러를 기록
 - * 인도 정부는 긍정적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23 회계연도에는 수출이 4,7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2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했음
- 인도의 자국 수출 증진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22.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공급망 혼란 가속화로 인해 원유·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86.55%가량 상승
 - * 그러나 수입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서며 전년도 수채(1.2%)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

〈 인도 교역액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금액	증감률
수입	514,462	486,058	373,172	572,909	490,619	40.24
수출	324,754	324,340	276,388	395,425	313,435	22.98
교역액	839,216	810,398	649,560	968,334	804,054	32.97
무역적자	-189,709	-161,719	-96,784	-177,485	-177,183	86.55

자료: Global Trade Atlas('22.11.01), 2022년 1~8월 누적 기준

- 인도 주요 무역 상대국은 교역 규모 기준으로 ①미국, ②중국, ③UAE, ④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주요 수출국은 ①미국, ②UAE, ③중국, ④방글라데시, 수입국은 ①중국, ②UAE, ③미국, ④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21년 기준으로 對중 무역적자를 對미 흑자 및 인근국 흑자로 만회하는 구조
-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는 에너지 제품(정유, 원유, 석탄)과 귀금속(다이아몬드, 금)이 있으며, 특히 원유와 정유는 각각 인도 최대 수입 품목과 수출 품목으로서 이라크, 사우디, UAE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싱가포르, UAE, 네덜란드 등으로 정유를 수출하는 형태

〈 인도 주요 교역 상대국 (2022.1~8월 누적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1	미국	90,064.7	55,519.2	34,544.5	20,974.7
2	중국	81,476.0	10,951.9	70,524.0	-59,572.1
3	UAE	56,962.0	21,775.1	35,186.9	-13,411.8
4	사우디아라비아	37,853.9	6,487.6	31,366.2	-24,878.6
5	이라크	30,076.8	1,673.9	28,403.8	-26,728.8
6	인도네시아	26,143.0	7,268.1	18,874.9	-11,606.8
7	싱가포르	23,447.1	8,120.8	15,326.2	-7,205.4
8	러시아	22,236.1	1,705.1	20,530.9	-18,825.8
9	호주	20,845.0	6,431.6	14,413.3	-7,981.7
10	홍콩	20,402.4	6,811.8	13,590.6	-6,778.7
11	한국	18,800.3	5,689.7	13,110.5	-7,420.7
對세계 총액		804,054.0	313,435.4	490,618.6	-177,183.1

자료: Global Trade Atlas('22.11.01), 2022년 1~8월 누적 기준

- 인도 수입 물품 중 원유(HS Code 2709 한정) 수입액이 전체의 23.4%('22.8월 누적 기준)로 원유 생산국 및 제조업 강국이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국
 - 인도의 수입 상위 10개국 중 미국, UAE, 사우디,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산유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교역량 폭증
 - * 2022년 8월 누적 기준, 러시아는 인도의 교역 상대국 8위에 등극

〈 인도의 주요 수입 품목 분석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 기준 상위 수입 품목		수입 비중 (%)			2022.1~8	
			2020	2021	2022	수입액	증가율
1	HS 27 (석유화학)	HS2709(석유 및 역청유)	17.38	18.56	23.41	114,854	88.37
		HS2701(석탄 및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4.25	4.48	7.30	35,824	154.15
2	HS 71 (보석류)	HS7108(금)	5.88	9.73	5.02	24,631	-32.71
		HS7102(다이아몬드)	4.28	4.59	3.96	19,444	11.16
3	HS 85 (전자기기)	HS8542(반도체)	2.26	2.16	2.22	10,889	35.75
		HS8517(무선통신망용 전화기)	3.40	2.31	2.11	10,330	28.13
4	HS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	HS8471(자동자료처리기계)	1.94	1.90	1.62	7,962	22.77
		HS8411(터보제트, 가스터빈)	0.59	0.43	0.43	2,104	63.69
5	HS 29 (유기·무기화합물)	HS2905(비환식 알코올)	0.41	0.47	0.41	2,021	31.78
		HS2933(헤테로고리 화합물)	0.55	0.43	0.39	1,898	14.26

자료: Global Trade Atlas('22.11.01), 2022년 1~8월 누적 기준

■ (공급망) 글로벌 식량·에너지 안보 속 식량 보호주의 정책, 에너지 자원정책 실시, 최대 설탕 생산국이자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식량 안보 정책을 지속할 경우 세계 공급량 감소로 관련 제품을 주로 교역하는 태국, 호주 등이 유사한 정책을 취하면 한국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22.3월 중순 이후 인도의 급작스러운 폭염으로 인해 곡물의 예상 수확량이 급감하고 러-우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 부족 및 국내 시장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도는 5월 이후 밀, 쌀, 설탕 등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
 - 러-우 사태 장기화로 인해 식량 안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 인도는 FY22/23까지 밀 수출을 3배 확대하고, 이집트, 카타르, 예멘 등 중동 및 아프리카에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 선포
 - '22.5월 인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 약 12~1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높은 물가상승률(8%대)을 고려하여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5.13.)
 - *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나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은 1% 미만이고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하거나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에 700만 톤가량만 수출하는 추세
 - 밀 수출 금지(5.13.)에 이어 설탕 수출 제한(5.24.) 등 식품 내수가격을 안정화하고, 인근국 등을 고려한 식량 안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음
 - '22.9월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몬순(장마) 시즌에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보임에 따라 생산량이 급감할 것을 예상, 식품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 부스려진 쌀알(싸라기 등 하자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다양한 등급의 쌀 수출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규제 방침을 내놓았음
 - * 인도는 150여 개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600만 톤대인 2위 베트남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으로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 해당 수출 물량 중 360만 톤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 대상인 '부스려진 쌀알'에 해당함
 - * 한국은 쌀 제품(HS Code 1006 한정)을 인도로부터 2020년, 2021년 연간 6백만 달러가량 수입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인도를 주요 쌀 수입국으로 보긴 어려움
 - '22.10.28.일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는 '22년 5월 발표한 설탕 수출 제한 조치('22.6~10월)를 10월 31일부로 1년 추가 연장, 수출 허용량도 축소(1천만→8백만)
 - 인도 현지 설탕 가격은 '22.5월(1차 조치) 이후 10월 기준 13%가량 하락하며 안정화되었으나, 이상 기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이 더 많은 사탕수수를 바이오에탄올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세계 설탕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함으로써 인도는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시행
 - 한국은 호주, 태국 두 국가로부터 전체 수입 비중 중 85%의 설탕을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도 수입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향후 세계 공급량 감소로 태국, 호주 등에서도 유사한 식량 안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수입 대국으로 수요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국제유가 급등은 인도 경제에 가장 큰 동통거리임.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국제 시세보다 30~40달러 싼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제수지 및 물가 압박을 크게 완화
 -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5배 이상 늘렸음. '22.2월 일 평균 3만 배럴에서 6월 일 평균 100만 배럴 가량을 수입(WSJ, '22.6.)
 - * '22.5월 러시아의 인도 석유 수출량은 하루 74만 배럴로 4월의 28만 4천 배럴 대비, 그리고 전년도 동월 수치인 3만 5천 배럴 대비 급증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언론사에 따르면 인도 정유회사들은 이렇게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의 원산지를 변경해 세계 곳곳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언론 추정(Bloomberg, '22.6.6.)
 - 중국과 인도가 합의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면서 對러 제재 효과를 약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22.5월 전월 대비 17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임 (NYT, '22.6.)

■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무역구제정책

■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하는 국가

- 인도는 반덤핑 189건, 상계관세 14건, 세이프가드 2건(양자 세이프가드 포함)을 부과하고 있음 (WTO, '22.6.30.)

〈 인도의 對세계 무역구제 현황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上
반덤핑	212	213	232	260	273	275	252	218	202	189
상계	-	-	-	1	2	2	7	11	13	14
세이프가드	2	4	3	5	1	1	1	3	2	2
합계	214	217	235	266	276	278	260	232	217	205

자료: WTO

- '20년 신규 조사 개시 100건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하여 '21년 누적 기준 31건의 신규 조사 개시(반덤핑관세 29건, 상계관세 2건)

〈 인도 정부 품목별 무역구제 조사 개시 현황 〉

연도	화학	철강	플라스틱/고무	섬유	기타	합계
2016	31	16	9	9	4	69
2017	19	1	-	15	14	49
2018	8	12	20	1	5	46
2019	24	23	6	8	17	78
2020	43	16	12	9	20	100
2021	14	6	3	-	8	31
2022上	3	-	-	-	3	6
합계	142	74	50	42	71	373

자료: DGTR(무역구제총국)

- 산업 육성 정책과 무역수지 불균형에 의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화학, 철강 등)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 위주로 무역구제 조치 시행
-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건수는 '22년 10월 DGTR 기준 총 17건으로, 화학 8건, 철강 4건, 고무 3건, 전자 2건에 대해 조사 진행 및 조치 시행 중
- '19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 인도 내 제조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미부과 결정을 내리는 사례 증가
- '22년 상반기 중 우르소데옥시콜산(UDCA)과 단일모드광섬유(SMOF)에 대하여 對한국 무역구제 신규 조사를 개시함
- 또한,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의 재심에 따라 부과 연장 권고에도 불구하고, 對한국 3건(철강 2건, 섬유 1건)의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22년 2월, 연방예산안을 통해 對한국 철강 1건의 반덤핑관세 조치를 철회

〈 '21년 인도의 무역구제 신규 조사 개시 국가 현황 〉

중국	러시아	일본	태국	UAE	EU	베트남	한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쿠웨이트	사우디	미국	카타르
12	2	2	2	2	2	2	1	1	1	1	1	1	1

자료: WTO

- 그러나 수입 금지·제한, 과도한 서류 요구, 자의적 품목 분류, 인증 강화 등 비관세장벽은 증가 추세

〈 2022년 인도의 FTA 체결국 중심 관세·비관세장벽 조치 현황 〉

구분	주요 조치 내용
수입 전 등록 의무	◦ '19년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IMS) 시행 후 '21년 3월 구리 및 알루미늄 제품 모니터링 시스템(Non Ferrous Metal Import Monitoring System)으로 추가 확대 시행 ◦ '21년 9월, 반도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The Chip Imports Monitoring System) 시행으로, 수입신고 15일 전까지 제품 정보 등록 및 신고 수수료 납부 의무 ◦ '22년 10월, 종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Paper Import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여 HS코드 8자리 기준으로 201개 품목(48류)에 대하여 수입신고일 전까지 제품 정보 등록 및 신고 수수료 납부 의무화
무역구제	◦ '22년 10월 기준, 한국 대상 조사 및 조치 진행 중인 건은 총 17건으로 화학 8건, 철강 4건, 플라스틱 및 고무 3건, 전기전자 2건 ◦ '22년, 한국 대상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화학 1건(UDCA), 고무 2건(SBR, PVC Suspension Resins above 2ppm), 전기·전자제품 1건(Single Mode Optical Fibre), 철강 2건(Ferro Molybdenum, Alloy steel chisel, tool and hydraulic rock breaker)
인증 강화	◦ 2019년부터 철강·화학 분야(ABS, 전기아연도금강판 등) 중심으로 BIS 인증 대상 확대 추세 ◦ 온라인 공장 실사 및 해외 지정 기관을 통한 공장 실사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안을 활용하지 않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증 절차 진행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22년 4월부터 실사 재개
원산지 검증 강화	◦ 원산지 검증 시 잠정신고에 따른 은행 보증 제공 요구 후, 원산지 검증 완료 이후에도 은행 보증 해제 지연 발생 ◦ 2020년 9월부터 원산지증명서 외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가 정보 및 거래 증빙 내역 등 요구
자의적 품목분류 및 관세조사	◦ 수입물품에 대해 고세율 또는 CEPA 미양허 품목으로 주장함으로써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와 HS 협약에 근거한 일반적인 품목분류의 불일치 발생 ◦ 인도 세관의 자의적 품목분류에 근거한 관세조사국(DRI)의 일방적 관세조사 및 추징 확대
수입제한 물품 확대	◦ 2022년 2월 인도 DGFT(인도 대외무역총국)에서 카메라 모듈 중 일부를 수입제한 물품으로 지정 ◦ 2020년 인도는 컬러 TV, 에어컨, 타이어 등에 대하여 수입 제한 물품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수입 제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인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완료까지 2~3개월 정도 소요

자료: 정부 자료 및 무역관 조사 자료 종합

●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액 500억 달러까지 확대

-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前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한-인도 간 교역을 현재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
- 2018년 양국간 교역액은 215억 달러, 2019년 교역량은 207억 달러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수출액은 감소. 그러나 '21년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도(GDP 세계 5위)와 한국(11위)의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가능성 다대
- 2021년 2월, 인도 의회의 통상위원회는 철강 분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강조하며, 국가 간 교역에서 상호주의를 위해 한국, 일본, 아세안과의 FTA 재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
- 2022년 1월 11일, 뉴델리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의 상공부 장관의 면담으로 2019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 합의

● 한국, 인도,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하여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탈탄소화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출범('22.5)

- 인도는 IPEF를 통해 참여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을 제외한 다자 협력체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피유시 고알 인도 상공부 장관,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2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방문
- '22년 9월 IPEF 장관회의에서 인도는 무역 부문에 앞서서 자격으로 참여하고 합의안 윤곽이 결정되면 가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힘

〈 IPEF 주요 내용 〉

주요 필러 및 의제	논의 내용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디지털 무역, 무역 원활화)	- 디지털 무역 규범을 역내 국가들에 적용 도모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과 데이터 지역화 요건 완화 -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무역의 관세 철폐 - 사이버 보안 및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연동 - 참여국 간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통한 무역 절차 간소화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 기후, 보건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 공유 - 공급망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협약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반도체, 배터리, 주요 원자재 등에 대한 공동 비축 방안 모색 - 신흥 및 개발도상국 내 공항, 항만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친환경 협력 및 인프라 구축	- 친환경 청정 에너지 개발 및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 참여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를 통해 신흥 및 개발도상국 내 탄소 집약적 에너지 설비들 대체
조세 협력 및 반부패	- 참여국 간 이중 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 정부 조달에서의 투명성 제도 방안 논의

자료: KI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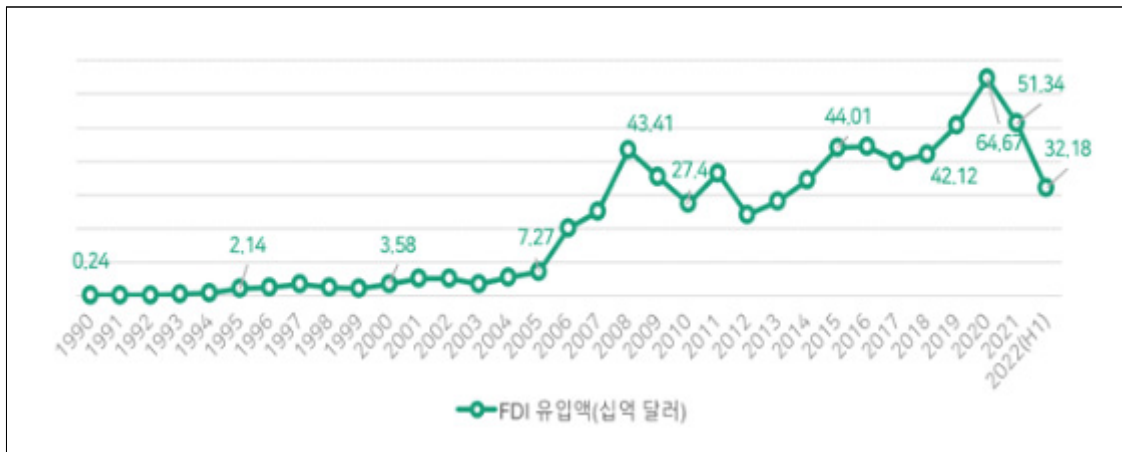
다. 투자 진출

■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

- '14년 모디 정부 수립 이후 'Make in India' 정책을 표방하며 취임 후 3년간 21개 산업 분야에 걸쳐 87개의 FDI 규정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해오고 있으며, 2017년 8월 새로운 FDI 정책 발표 이후 FDI가 지속 상승세

〈 1991년 경제개방 이후 對인도 FDI 유입액 추이 〉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 인도 2021년 대비 FDI 유입 하락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국 7위 기록
 - 인도는 FDI 유입량은 4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650억 대비 대폭 감소했으나, 순위는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상승함 ('22.6, UNCTAD)
 - * 주요 순위권 국가로는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브라질 등이 있음
 - 2022년 상반기 32.18억 달러 기록, 전년 동기 25.73억 대비 25%가량 증가

〈 최근 5개년 對인도 투자 현황 (CY 기준) 〉

(단위: 십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40	▲10	42	△12	51	▲9	65	▲8	45	▲7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 회계연도별 FDI 현황

- 2021/22 회계연도 對인도 투자는 전년 대비 1% 하락한 587.73억 달러를 기록
- 다만, 2021/22 회계연도 기타 자본 유입을 포함하여 집계할 경우 835.7억 달러로 인도 최대 FDI 유입액을 달성, 이는 20년간 20배 증가한 수치임
- * 인도 정부는 자기자본 유입, 수입 재투자를 비롯한 기타 자본 등의 유입 모두 FDI 유입으로 집계

〈 분기별 FDI 변화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1분기 (4~6월)		2분기 (7~9월)		3분기 (10~12월)		4분기 (차년 1~3월)		연간 누적 (4월~차년 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7/18	10,408	37.1	14,946	6.5	10,587	-25.5	8,916	16.7	44,856	3.0
2018/19	12,752	22.5	9,913	-33.6	10,828	2.2	10,874	21.9	44,366	-1.0
2019/20	16,329	28.0	9,766	-1.4	10,674	-1.4	13,209	21.4	49,977	13.0
2020/21	6,562	-59.8	23,442	140.0	21,467	101.1	8,166	-38.1	59,636	19.0
2021/22	17,567	168.0	13,587	-42.0	12,021	-44.1	15,599	91.0	58,773	-1.0
2022/23	16,589	-5.5	-	-	-	-	-	-	-	-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인도 회계연도(동년 4월~차년 3월) 기준

● 산업별 FDI 현황

- 누적 기준, 對인도 투자 주요 분야는 서비스산업(16.0%)이며, 컴퓨터(14.7%), 통신(6.4%), 무역(5.9%), 자동차(5.5%) 順
- * 서비스 분야는 금융, 은행, 보험, R&D 기술 등을 포함
- 2021/22 회계연도 주요 투자 산업으로는 컴퓨터 SW/HW, 서비스, 자동차 順
- 제약 분야의 경우 타 산업 대비 투자액은 크지 않으나 2021/22년 회계연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20 회계연도 대비 약 172% 증가한 14.14억 달러를 기록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산업은 팬데믹 시기에 기업들이 가치사슬 전반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 해당 기초는 계속될 전망
- 2021/22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 분야는 약 7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인도 정부의 전기차 진흥책으로 인해 향후 전기차 분야 투자는 지속될 예정

〈 업종별 對인도 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액 기준)	산업 분야	2020/21 회계연도	2021/22 회계연도	2022/23 (4~6월)	2000.4월~2022.6월	
					누적액	비중
1	서비스	5,060	7,131	2,573	96,767	16.0
2	컴퓨터 SW/HW	26,145	14,461	3,427	88,944	14.7
3	통신	392	668	618	38,950	6.4
4	무역	2,608	4,538	2,033	36,774	6.1
5	자동차	1,637	6,994	691	33,532	5.5
6	건설(인프라)	7,875	3,248	680	28,649	4.7
7	건설(주거)	422	125	11	26,221	4.3
9	화학	847	966	960	20,412	3.4
8	제약	1,490	1,414	497	19,902	3.3
10	야금	1,340	2,272	63	17,078	2.3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 인도의 M&A 현황

- 2021년 인도의 인바운드 M&A는 건수 기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38% 감소한 11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저조한 추세
 - 금액 기준 IT&ITeS(49%), 에너지·원자재(26%) 분야에 집중된 양상
 - 2018년 이후 인바운드 M&A 거래(건, 금액)는 지속 감소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인도 내 M&A(Domesitc M&A)의 경우 2021년 379건, 236억 달러 규모로 역대 3번째 규모이며, M&A 건수 또한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
 - 특히, BYJU's의 의대 입시 교육업체 Akash Educational Service 인수는 세계 최대 규모 에듀테크 딜이었음
 - 거래 건수 측면에서 2020년 락다운으로 연기된 딜이 2021년에 성사되어 거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인도 M&A 현황 (2018~2021년) 〉

(단위: 십억 달러, 건)



자료: Grand Thornton Bharat

■ 주요국 對인도 투자 진출 및 협력 현황

● 누적액 기준, 미국,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이 주요 對인도 투자국

- '20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 누적액 기준, 對인도 투자국 순위는 ①모리셔스(26.5%), ②싱가포르(22.6%), ③미국(9.2%) 순이나 투자 우회처인 모리셔스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미국(9.2%), 네덜란드(7.0%), 일본(7.0%), 영국(5.4%) 順
- * 1982년 인도-모리셔스 간 상호 투자 대상 면세 협약 체결로, 모리셔스를 통해 우회 투자 다수
- 2022년 2월, 인도-UAE는 포괄적경제동반(CEPA)을 체결, 5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뿐만 아닌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2/23 회계연도 1분기 모리셔스-싱가포르 제외 21.46억 달러 투자로 동분기 1위 투자국

〈 국가별 對인도 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국가	2020/21 회계연도	2021/22 회계연도	2022/23 (4~6월)	2000.4월~2022.6월	
					누적액	비중(%)
1	모리셔스	5,639	9,392	2,369	160,110	26.5
2	싱가포르	17,419	15,878	5,687	136,653	22.6
3	미국	13,823	10,549	1,464	55,615	9.2
4	네덜란드	2,789	4,620	1,078	42,339	7.0
5	일본	1,950	1,494	851	37,793	6.2
6	영국	2,043	1,647	279	32,180	5.3
7	케이맨 제도	2,799	3,818	450	14,602	2.4
8	UAE	4,203	1,032	2,146	14,371	2.4
9	독일	667	728	89	13,680	2.3
10	키프로스	386	233	605	11,971	2.0
13	한국	405	300	102	5,284	0.9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 (미국) 미국은 인도의 주요 FDI 투자국(3위)으로 2000/01 회계연도부터 2021/22 회계연도까지 미국의 연간 평균 對인도 FDI는 약 24억 6,143만 달러

〈 미국의 對인도 FDI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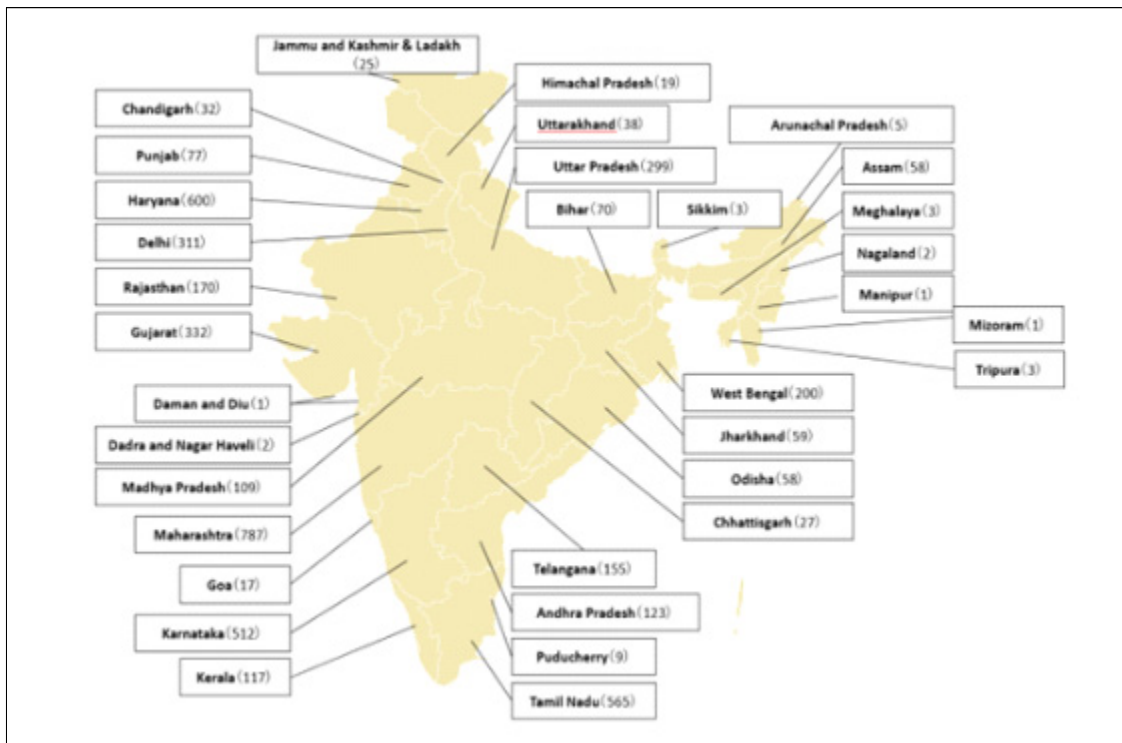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 2020/21년 대인도 FDI는 1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였으나, 2021/22년에는 105억 달러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최근 3개년간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음
- 인도·태평양 지역의 투자 비중은 2015년 7.5%에서 2020년 19.3%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에 대한 FDI가 정체되는 추세 속에서 아세안과 인도 지역은 중국의 대체 투자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최근 3년간 미국의 투자자들은 인도의 전자상거래·리테일, 통신 등 주요 핵심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 식품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투자 또한 보이고 있음
 - * (Reliance Jio, 통신) 페이스북 57억 달러, 구글 45억 달러, 쿠팡 9,700만 달러 등
 - * 애플은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라 발표하면서 일부 부품 생산기지를 점차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으로 보임
- 이러한 투자현황 외에 미국은 인도와의 에너지·군사·인적교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음
 - * ('20.10.)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교류 및 협력 협정(BECA)' 서명, 인도와 미 국방부 국가지리정보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 협정으로 국가안보 강화
 - * ('21.9.) '전략적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SCEP)' 협정을 체결, 신형 연료 부문 협력 확대
 - * ('21.3.) 미국은 매년 평균 8만5천 개의 H-1B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중 인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바이든 정권 교체 이후 비자 규제 완화로 인적 교류 증진
- (일본) 일본은 인도의 제5위 투자국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은 양국이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담, 협정 체결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인도는 1980년대 인도의 경제개방 이전부터 인도에 진출

- * 1981년, 스즈카-마루티 합작기업 설립하여 인도 진출, '21년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47.8%를 기록하고 있음
- * ('22.3.) 印-日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향후 5년간 인도에 5조 엔(372억 달러) 투자 예정임을 발표, 고속철도(신칸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관련 부문 투자 예정이며 일본 기업을 유치해 공장을 지을 것을 발표
- 2011년 8월 한-일본 CEPA 협정 발효 이후, 2011/12 회계연도 인도 FDI는 29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가량 급격히 증가, 2016/17 회계연도는 역대 최대치인 47억 900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현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은 주요 투자 분야가 IT 중심이었던 미국과 달리 자동차 제조업, 화학 공업, 전자기기 등 위주로 진출해 있음
- 일본은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등 총 12개의 일본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아삼 지역에 13번째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발표하였음
- 인도 내 운영 기업은 1,439개이며, 인도 내 일본 기업의 거점(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포함) 수는 약 4,790개 사로 집계되고 있음
- * 지역별로는 마하라슈트라(787개 사), 하리아나(600개 사), 타밀나두(565개 사), 카르나타카(512개 사)가 위치하고 있음
- '20년 탈중국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에 제조시설을 둔 일본 기업이 인도 등 타 아시아 국가로 공장 이전 시 235억 엔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발표, '공급사슬개혁' 정책으로 2,435억 엔을 배정하여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추진

〈 일본 진출 기업 주별 분포도 〉



자료: JETRO

- 인도는 일본의 가장 큰 수원국으로, 최근 영국, 미국 등 대인도 ODA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원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2016~2020년) ODA 공여 총액 기준 2위인 독일(22.9억 달러)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
- 1958년 이래로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를 통해 협력 중이며, 일본 정부 ODA 정책에 따라 차관, 무상원조, 기술협력 3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 ('21.3.) JICA는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환경보호 등 인도 정부 주요 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2조 4천억 달러 대규모 엔 차관을 실시
- 뭄바이-암다바드 신칸센(Bullet-Train) 도입 사업을 위해 일본 업체로부터 신칸센 24대 입찰받아 인수받을 예정, 프로젝트 예상 가치는 145억 2천만 달러로 관련 노선 여행시간을 기존 7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할 예정
 - * ('22.5) 인도 서부 '뭄바이-암다바드 구간 고속철도(MAHSR) 건설계획(3기)'를 대상으로 1,000억 엔 한도 엔 차관 제공 서한을 인도 정부와 교환, 신칸센 시스템을 이용해 동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인도 정부에 용자금을 제공할 예정
 - * 회랑 건설은 2023년도로 예상되며, 고속열차의 평균 속도는 기존 110~130km에서 160~200km 수준으로 증가할 것

〈 최근 3개년 對인도 해외 투자 현황 〉

연번	분야	기업명	발표시기	국가	투자내용
1	전자상거래	아마존	20.1	미국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화 지원 등 10억 달러
2		타이거 글로벌	21.4	미국	◦ 이커머스 유니콘 기업 3사* 6.25억 달러 *Infra.Market, Moglix, OfBusiness
3		소프트뱅크	21.4	일본	◦ 식품배달기업 '스위기(Swiggy)' 4억 5천만 달러
4		월마트	21.7	미국	◦ 이커머스 기업 '플립카트(Flipkart)' 36억 달러 공동투자
5		텐센트	22.6	중국	◦ 이커머스 기업 '플립카트(Flipkart)' 2억 6천만 달러
6	통신	페이스북	20.4	미국	◦ 3대 통신사 'Reliance Jio' 57억 달러
7		인텔	20.7	미국	◦ Reliance Jio에 2억 3천만 달러
8		구글	20.7	미국	◦ '인도 디지털화 기금' 신설, 100억 달러* *이 중 Reliance Jio에 45억 달러
9		퀄컴	20.7	미국	◦ Reliance Jio에 9,700만 달러, 5G 인프라 정비
10	자동차	쿠보타	21.11	일본	◦ 트랙터 제조기업 'Escorts' 12억 달러
11		현대차	21.12	한국	◦ 인도 전기차 연구개발 4억 5천만 달러
12		ZF	22.3	독일	◦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2천만 달러
13		스즈키	22.3	일본	◦ 전기차 현지 생산 공장설비 11억 달러
14	전자기기	삼성	22.3	한국	◦ 냉장고 및 부품 공장 건설 2억 달러
15		다이킨	22.4	일본	◦ 에어컨 공장 설립 1억 3천만 달러
16		오포	22.8	중국	◦ 현지 판매 공급망 강화 6천만 달러
17	물류	FedEx	21.7	미국	◦ 물류 스타트업 '딜리버리(Delhivery)' 1억 달러
18		미쓰이 물산	21.11	일본	◦ 콜드체인 기업 'TCI' 8,500만 달러
19		아마존	22.6	미국	◦ 물류산업 4,715만 달러
20		파나토니	22.7	미국	◦ 물류단지 개발 2억 달러

연번	분야	기업명	발표시기	국가	투자내용
21	IT/ITES	크래프톤	21.6~7	한국	◦ 웹플랫폼 스타트업 2개사* 5,800만 달러 *로코(Loco) 및 프라틸리피(Pratilipi)
22		Prosus Ventures	21.8	네덜란드	◦ 결제게이트웨이 'BillDesk' 47억 달러 인수
23		마이크로소프트	22.1	미국	◦ 데이터센터 설립 20억 달러
24		미래에셋벤처스	22.8	한국	◦ 핀테크기업 '자이키산(Jai Kisan)' 3억 달러
25	에너지	Norfund	21.6	노르웨이	◦ 태양광기업 'Fourth Partner' 1억 2천만 달러
26	식품	펍스코	22.6	미국	◦ 식품공장 확장 2,400만 달러
27	가구	이케아	22.6	스웨덴	◦ 남부지역 사업 확대 3억 8천만 달러
28	소비재	네슬레 인디아	22.8	스위스	◦ 애완동물 사료 사업 1,600만 달러 인수
29	의료	바디텍메드	22.8	한국	◦ 체외진단 생산공장 건설 380만 달러
30	R&D	다이킨	22.8	인도	◦ 전자제품 R&D센터 설립 6,200만 달러

자료: 현지 언론 기사 편집

■ 인도 투자 진출 진입장벽

- 인도의 투자 친화적인 환경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 시 애로사항 존재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FDI 규제 완화 등 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책 수립 등으로 투자 진출 진입장벽을 높이는 중
 - * '19년 전자상거래 외투 기업은 타 기업의 주식 보유 상한 25% 제한 및 제품 대폭 할인 등을 금지한 바 있음
- 복잡한 인도 세제 및 과세 엄격화에 따른 진출 기업 애로 다수 발생
 - 인도 규제 당국은 자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기업들에게 엄격한 세무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中 기업 샤오미의 탈세 정황을 포착, 관세조사국(DRI)에서 약 1,154억 원의 벌금 부과
 - 中 기업뿐만 아닌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도 당국의 비공식적 세무조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어려움을 호소
 - 5월 인도 대법원,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모회사/타 계열사에서 인도법인으로 직원(주재원) 파견을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 18% GST 부과 대상으로 판결했으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기업의 진출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애로 발생이 예상됨
 - * 파견비용에 대한 GST 소급 적용 시, 2017/18 회계연도의 연차 신고기한이 연장된 상황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세무 조사관이 추징이 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진출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인도 내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

- 타국 대비 인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편이내(월 평균 \$181) '21년 인도의 임금 상승률은 9%를 기록, '22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약 9.3%에 달하며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22.9, Statista)
- * 2022년 ASEAN 임금 상승률 전망: 인도네시아(6.6%), 필리핀(5.4%), 태국(3.8%), 베트남 (7.8%)
- '19년 9.7%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당시 일본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상승 문제가 대두된 바, 향후 한국 진출 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인프라 부족은 여전한 문제

- 인도는 인프라 부흥계획(PM Gati Shakti)을 시행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 다만, 현재까지도 인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 부족, 미흡한 배수시설에 따른 도로 침수 및 파손에 따른 물류 지연 및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애로가 존재

라. ODA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對인도 개발협력 현황

- 인도는 원조 수혜국인 동시에 원조 공여국으로, 양자 간 최대 원조 공여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順, 다자간 원조의 경우 세계은행임
- (양자) 무상원조 총액 대비 G7 국가의 비율이 약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등에 비해 영국, 미국의 對인도 ODA는 감소 추세에 있음
- (다자) 다자간개발은행(MDB)들은 인프라 개발을, 기타 국제기구들은 빈곤 및 질병 퇴치, 보건과 교육 등 사회 개발을 지원

〈 주요 공여국의 對인도 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57년 누적
1	일본	1,007.7	1,554.63	1,375.4	1,794.77	691.82	6,424.4
2	독일	222.5	525.99	244.28	555.5	746.53	2,294.87
3	프랑스	138.5	180.87	302.67	214.73	343.07	1,179.88
4	영국	124.9	116.07	126.29	137.53	121.69	626.57
5	미국	91.0	109.89	117.84	72.2	68.01	459.01
6	이스라엘	3.0	37.49	27.26	24.4	27.08	119.3
7	이탈리아	15.1	11.45	17.89	16.69	15.85	77.01
8	노르웨이	17.6	18.18	10.25	13.7	9.37	69.15
9	캐나다	5.8	5.47	4.39	8	6.19	29.92
10	스웨덴	5.1	5.3	5.43	5.38	5.25	26.46
11	한국	0.6	0.72	0.69	3.17	3.75	8.93
ODA 총액		2,678.67	3,197.68	2,461.63	2,550.41	1,794.21	12,682.6
G7 총계		1,605.96	2,504.36	2,188.75	2,799.42	1,993.16	11,091.65

자료: OECD

〈 양자 지원 對인도 ODA 현황 〉

국가	중점 분야 및 이슈
일본 (최대 원조 공여국)	- (교통) 지하철 교통망(6개 도시, 400km), 도로 건설(비하르 지역, 82-83번 고속국도) 등 - (에너지) 11.8GW의 에너지 생산을 지원, 5,000개 이상의 에너지 효율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재생에너지개발청(IREDA: Indi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gency)과 긴밀히 협력 - (협력) '22.3.19. 인도-일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 전기차, 에너지 효율성,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4개의 통합된 워킹그룹(WG)을 운영 예정
독일 (그린 분야 협력)	- (분야) △기후변화 및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산림, 수자원 등) △직업교육 및 보건 - (협력) '22.5.2. 베를린에서 열린 제6차 인도-독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두 정상은 녹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미국 (전략적 개발 협력)	- (분야) 1951~2011년 인도 식량원조를 해왔으나, 이후 식량 원조 중단, 전략적 개발 협력의 노선을 취함 - (협력) USAID(미국 국제개발처) '2020~2024 인도 국제개발전략'에 따르면 인도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연결성(네팔, 티벳 등)에 초점

자료: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 현지 언론 등 종합

■ 한국의 對인도 개발협력 추진

-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17~'21) 총 1,376만 달러의 ODA를 인도에 제공하였고, 무상원조의 비중이 ODA의 100%를 차지
 * '87~'21년 총 3,074만 달러 중 28.3%에 해당하는 지원액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으로 지난 2년간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교육(14%), 중소기업 개발(10%), 기타(15%) 등에 지원
- 2015년 인도의 ODA 정책 변경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인도 내 개발협력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對인도 개발협력 원조의 길이 열린 상황
 - * 印 재무부, 인프라 개발 자원 마련을 위해 기존 ODA 정책을 완화하여, 원조 도입 대상국을 G7, 러시아, EU 이외의 국가로 확대 하는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
 - '15.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100억 달러 금융 패키지 공동성명(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 발표. 이에 따라 '나그부르-뭄바이 지능형 교통망 구축사업*' 등이 뭄바이 지역에서 ODA(공적개발원조)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물류 분야 현대화 사업'을 위한 ADB 융자사업 진행 예정 (한국수출입은행)
 - * 마하라슈트라 도로개발공사(MSRDC) 사업 실시 / 통행요금징수시스템(TCS),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MS)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을 통한 역량 강화

- 우리 정부는 인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1.1월)에서 인도를 ODA 중점협력국(2021~2025)으로 신규 지정하고 對인도 국가협력전략을 수립, 6대 중점협력 분야 선정
 - △ 지역개발/스마트시티(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 △ 교통(세계 2위 도로망, 4위 철도망 보유, 인프라 부문 교통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 배정) △ 수처리(하수정화처리시설 부족, 불안정한 상수도 공급 등) △ 환경(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대기질 개선, 산림 및 습지 등 보존 복원) △ 그린 에너지(환경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자원) △ ICT(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분야, 전자정부 시스템, 행정 시스템 전산화,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 경험 보유, 인도 또한 '디지털 인디아' 정책에 따른 보편적 인터넷 사용을 강조하고 있음)

마. 프로젝트

■ 물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

- 글로벌 물류사 Agility에 따르면 인도의 2022년 신흥시장 물류지수(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는 7.21로 중국(8.50)에 이어 2위를 기록
 - * 신흥시장 물류지수: 국내외 산업 규모 및 현황, 시장 안정성 및 접근성을 토대로 평가
 - '20년 인도 물류비용은 연간 2,150억 달러에 이르며, '19~'25년 연평균 1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 (시장조사업체, Research and Markets)
 - * 인도의 물류비용은 자국 총 GDP의 14% 수준으로 BRICS 평균(11%), 미국과 유럽 기준(8~10%) 대비 높은 편으로 물류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
 - '21년 상업 활동으로 약 46억 톤의 화물을 생산, 연간 총 물동량은 3조 톤-km
 - * 톤-Km는 화물의 수송량을 나타내는 기호로, 수송한 화물의 중량(t)과 수송거리(Km)의 곱
 -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수출 증가, 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 규모 확대에 향후 5년 내에는 GDP 성장을 전망치와 유사하게 물동량도 7%의 연간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

■ 인프라 시장 자본 지출 현황 - 국가인프라구축계획(NIP)

- 경제성장 및 인프라 투자 강화를 위해 정부는 111조 루피(1.5조 달러) 규모의 국가인프라구축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발표('19.12월)
 - 5개년(FY19/20~FY24/25) 투자계획에 따라 에너지(24%), 도로(18%), 도시 건설(17%), 철도(12%) 순으로 예산이 할당되어 자본 투자가 활발히 진행
 - * 해당 계획은 운송, 물류, 에너지, 수처리&위생 등 3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위 4개 부문은 도로(23%), 에너지(21%), 물과 위생시설(15%), 철도(12%)이며, 도시개발(대중교통, 주거), 산업 인프라(물류), 공항, 항만 등에 투자하고 있음
 - 섹터별 자본 점유율은 卅정부(40%), 중앙정부(39%), 민간(21%) 순이며, 프로젝트 또한 자본 점유율에 맞게 중앙/주 정부에서 각각 39%씩, 민간 부문에서 22%를 진행
 - 총 프로젝트는 8,951개로 2,42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22.9., NIP)
 - * 국가 기반시설 파이프라인(NIP) 프로젝트 규모는 향후 9,366개로 확장될 예정

■ 인프라 부흥 계획 (PM Gati Shakti Master Plan)

- 모디 총리는 인도 독립 75주년 행사에서 운송수단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7개의 핵심 엔진인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해운, 물류에 '24~'25년간 약 100조 루피(1.3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임을 밝힘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원유가격 상승, 공급망 위기 등으로 물류비용의 절감은 수출 경쟁력 확보에 있어 핵심 부문
 - '21.10월 16개 중앙부처 및 주정부의 인프라 계획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
- 인프라 부흥 계획은 수로 및 항만 개발, 회랑 개발 등 하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결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 주요 물류/인프라 프로젝트 〉

부문	프로젝트명	발표연도	세부내용
철도	화물 전용 회랑 프로젝트 (Freight Corridors)	2007년	◦ 인도 전역을 잇는 철도 인프라인 '화물 전용 회랑(DFC, Dedicated Freight Corridors)' 건설 프로젝트 ◦ 현재 동부 DFC와 서부 DFC 사이 3,358km의 화물 전용 철도 회랑 중 657km가 '21.3월까지 완료되었고, '23.3월 최종 완료될 예정
항만	사가르말라 개발 계획 (Sagarmala and Inland waterways)	2015년	◦ 약 7,500km 해안선 규모의 항구를 개발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현재 5.48조 루피(740억 달러)의 투자 가치가 있는 802개 프로젝트로 확장된 상황 ◦ '22.5월 기준 202개 프로젝트(9,928억 루피 규모)가 완료, 216개 프로젝트(2.12조 루피)가 시행 중이고, 384개 프로젝트(2.37조 루피)가 시행 예정 ◦ 해상 노선을 활용하여 화물 운송 시 도로 운송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화물량을 운반할 수 있고, 비용은 절반 수준 ◦ 프로젝트 시행 이후 약 1만 건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향후 10년간 약 1천만 건의 추가 고용 창출 예상
공항	UDAN 개발 계획 (Ude Desh ka Aam Naagrik)	2016년	◦ 힌디어로 "대중을 위한 공항"을 의미, 보조 항공노선과 지역공항 개발을 통해 인도의 2, 3군 도시들을 연결 ◦ '19~'24년 내 2,500억 루피를 들여 100개의 신공항, 헬기장 등을 개발 ◦ '21.12월 기준 4번의 입찰을 거쳐 약 948개의 유효 노선이 최종 후보 항공사에 할당 ◦ FY19/20 9개 공항 개발 완료, '20.12월까지 14개 공항이 개발되었고 FY22/23에는 각각 20개 공항 개발 예정
도로	바라트말라 건설 계획 (Bharatmala Pariyojana)	2017년	◦ '98년부터 추진된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의 종료와 함께 발족된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로, 10.63조 루피(약 1,400억 달러)를 투자하여 83,677km 길이의 국도 및 고속도로, 그린필드형 고속도로를 설립 ◦ 정부 도로 건설 계획을 위한 단일 예산 중 가장 큰 규모 ◦ 50개의 경제회랑, 24개의 물류단지와 북동지역 7개의 복합항만을 잇는 66개 IC(8,000km), 116개 FR(7,500km)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2.3월 기준 20,411km 구간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중 8,134km가 건설되었음. 14,389km의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23~'24년 입찰 진행. 기존 1단계 계획('17~'22) 완료 시점은 FY26/27까지 연기됨

자료: 인도 상공부, 재무부, 항만부 등 자료 종합

■ 물류 인프라 부문 주요국별 프로젝트 및 투자 동향

-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1.3월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환경보호 등 인도 정부 주요 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2조 4천억 달러 대규모 엔 차관을 실시
 - (철도) 델리-मुंबай 구간 및 루디아나-델리-손나가르 구간을 비롯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자라트주, 라자스탄주 또는 하리아나주의 주요 도시 간 철로 건설, 전자동 신호 시스템, 고속열차 도입을 위해 1조 1천억 달러 차관 제공
 - (메트로) मुंबай 메트로 3호선 건설을 위해 2억 9천만 달러 차관 제공
 - (수처리) 마디아 프라데시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에 4억 8천만 달러 차관 제공

〈 JICA 인도 6대 도시 메트로 건설 지원 사업 〉

지역	노선 길이 (km)	완공 목표	시행 단계 ('21년 말)
델리	414	2021년	단계 4 건설 중
아메다바드	38	2022년	건설 중
मुंबай	34	2023년	건설 중
벵갈루루	42	2017년	단계 2 건설 중
콜카타	16	2022년	건설 중
첸나이	212	2027년	단계 2 건설 중

자료: 현지 언론사 내용 뉴델리 무역관 가공

- '21.9월 세계 최대 해운회사인 Mitsui O.S.K Lines Ltd(MOL)가 인도에 자회사를 열고 인도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 2척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음
- 인도 기업인 Tata Motors와 Hitachi 건설기계는 40:60의 지분으로 합작 회사인 'Tata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Company Pvt Ltd'를 설립하여 인프라 및 광산 수요 충족을 위한 건설 장비를 인도에 공급
- 인도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2T~800T 규모의 굴착기, 백호 로더(Backhoe Loaders), 휠 로더(Wheel Loaders), 35T~290T 규모의 경질 덤프 트럭 등 광범위한 굴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타타 히타치는 인도 카르나타카주 다르와드(Dharwad)와 서벵갈의 카라그푸르(Kharagpur)에 2개의 공장을 두고 있음
- 이외에도 140억 달러 규모의 मुंबай-아메다바드 고속철도 508km 구간 건설사업, 델리, 벵갈루루,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 상수도 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총 1,500개 정비하는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중국) 中 업체들은 인도 항구에 화물 처리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세계 최대 항만 크레인 제조업체인 상하이 첸화중공업(ZPMC), 이동식 항만 크레인 제조업체인 난통 레인보우 중기계 유한공사 GENMA, 그랩형 선박 하역기(GTS)의 유일한 공급업체인 다렌 화루이 중공업 그룹 및 세계 제3의 항만 중공업회사 리치 스테커와 같은 중장비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인도 항구로 화물을 다루는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임
- '17년 GENMA는 인도의 J.M.Baxi 그룹으로부터 파다디프 항구에 이동식 항만 크레인(GHC100) 3대를 공급하였음
- 그러나 '20년 인도와 중국 접경지역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는 접경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입찰 참여에 대해서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중국의 투자 및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일례로 '21년 프랑스 컨테이너 운송 그룹 CMA CGM S.A社は CMA Adani-CMA 몬드라 항구(ACMTPL)에 보유한 지분 50%를 중국 상선항홀딩스(CMPL)에 매각하는 계약을 취소
- '16년 베이징 국가철도 연구기관과 계약을 맺은 동부 DFC 400km 이상의 철도 신호 시스템 설치 건 계약도 더딘 작업 진행과, '20년 사태의 영향으로 취소된 바 있음

〈 인도 내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외국 기업/기관 〉

국가명	기업/기관명	진출 시기	주요 프로젝트
일본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1958년	델리 고속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민·관 협력 방식 파이낸싱 프로젝트 지원 등
호주	Macquarie India	2007년	총 길이 700km의 9개 국도 내 TOT(Toll-Operate-Transfer) 입찰
프랑스	French Development Agency(AFD)	2008년	벵갈루루, 코치, 나그푸르, 푸네, 수랏 등 메트로 건설자금 조달

자료: 각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보도자료 등

■ 물류 인프라 부문 국내 기업 현황 및 성공 사례

● 투자 및 진출 현황

- 현재까지 對인도 투자는 전기·자동차·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제조업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80~'21.9월 누적액 기준 제조업 투자액은 59.9억 달러, 건설업 23.6억 달러, 부동산업 16.8억 달러 등으로 명확하게 인프라 및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 물류·인프라 관련 기업으로는 철도시설공단, LH, 한전KPS 등 공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스마트시티 및 철도·물류 현대화 프로젝트·기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민간기업의 경우 현대상선,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캣, 삼성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이 물류·인프라 부문에 진출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중
- Hyundai Merchant Marine(현대상선)은 '05년 인도에서 설립되었으며, 델리 지역의 해상화물 서비스, 항모해운 서비스, 선박선단 서비스 등을 제공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vt. Ltd(현대건설기계)는 '07년 이후 현대 중공업의 현대 건설 장비 글로벌 부문으로서, 건설기계 장비 등을 인도에 납품하고 있으며, '22.4월 인도에 굴착기 382대와 부품 225만 달러어치를 판매하며 인도법인 설립 이후 월간 집계 최대인 1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인도 굴착기 시장 1위를 차지하였음. 현대건설기계는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공장시설을 두고 있음
- Doosan Bobcat India Pvt. Ltd.는 두산밥캣의 자회사로 '07년에 설립되었으며, 첸나이 지역에 본부를 두고, 인도 전역에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음. 두산밥캣은 최근 첸나이 외곽에 위치한 21에이커 규모의 대형 설비를 인수하여 현재 세계 최대 백호로더 시장인 인도에 내수용 백호로더를 제조하는 데 투자하고 있음. 인도에서는 현재 20개 이상의 파트너사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Samsung Engineering India는 '96년에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뉴델리에 첫 번째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였음. 해외 석유화학, 정유, 전력 및 철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도 직원 6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가. 교역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이후 한국의 對인도 수출입 동향

- 인도는 한국의 제11위 교역대상국, 수출은 8위
 - 2009년 121억 5천만 달러 수준이던 한-인도 교역은 2010년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서 크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5억 달러 기록
 - 이후 2017년에 교역액 200억 달러 재달성 이후 2018년(215억 달러), 2019년(207억 달러) 꾸준히 높은 교역액을 기록했으나, 세계경기 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6.8% 감소한 168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
 - 코로나 2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2021년 기준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236.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1.9%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22년 1~9월 누적 기준 對인도 수출액은 14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하였으며, 특히 7월에는 9.8억 달러 규모의 해양구조물 수출에 힘입어 월간 기준 23.6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

〈 한국의 교역 대상국별 수출입액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1년/수출 기준)	국가명	2021년		2022.1~9월	
		수출액(증감)	수입액(증감)	수출액(증감)	수입액(증감)
-	총계	644,400(25.7)	615,093(31.5)	524,903(12.2)	553,791(25.1)
1	중국	162,913(22.9)	138,628(27.3)	121,115(2.7)	117,227(18.2)
2	미국	95,902(29.4)	73,213(27.3)	82,973(17.0)	61,787(12.6)
3	베트남	56,729(16.9)	23,966(16.5)	46,614(14.5)	20,787(17.5)
4	일본	30,062(19.8)	54,642(18.7)	23,639(7.8)	41,610(4.2)
5	홍콩	37,467(22.2)	2,247(45.9)	22,018(-21.5)	1,398(-15.5)
6	대만	24,285(47.5)	23,486(31.7)	20,665(19.3)	21,870(27.8)
7	싱가포르	14,149(44.0)	10,691(26.7)	16,097(62.3)	7,759(-4.8)
8	인도	15,603(30.7)	8,056(64.4)	14,612(28.0)	7,353(27.2)
9	호주	9,750(57.6)	32,918(76.0)	14,286(114.8)	34,157(50.3)
10	필리핀	9,659(35.5)	3,894(26.2)	10,024(53.0)	3,777(36.1)

자료: K-Stat('22.11.01.)

- 인도 국회, 한-인도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FTA 재협상 권고
 - 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17년에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1년에는 약 80.5억 달러로, 중국, 스위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이어 6위(K-Stat)
 - '18.7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30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목표 및 소규모 조기 성과(early harvest) 패키지에 합의하였으나, 한-인도 CEPA 8차 협상('19.6) 이후 인도 정부는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 RCEP 불참 선언('19.11), 대규모 무역적자 등을 사유로 FTA 재협상 권고 등
 - 그러나 최근 FTA 우선협상대상국 발표('21.8)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해 구미, 중동 국가와 FTA 체결 추진 중
 - * UAE('22.5월 발효), 호주, 캐나다, 영국, EU 등 5개국
- 한-인도 교역량은 9월 누적액 기준 219.6억 달러로 2021년 연간 누적액인 236.5억 달러의 92.8%이며, 동일한 추세로 상승 시 올해 사상 최고치 기록 예정

〈 한-인도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동향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교역 동향	수출	15,056	15,606	15,096	11,937	15,603	14,612
	수입	4,948	5,885	5,565	4,901	8,056	7,353
	총 교역액	20,004	21,491	20,661	16,838	23,659	21,965
	무역수지	7,407	10,108	9,721	9,531	7,037	7,258

자료: K-Stat('22.11.01.)

■ 주요 품목별 對인도 수출 동향

〈 對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 (2022년 1~9월) 〉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철강판	1,779	191.6	석유제품	2,381	134.9
2	반도체	1,744	350.6	알루미늄	1,347	158.5
3	합성수지	1,267	-4.1	식물성물질	502	117.1
4	선박및해양구조물	979	40.2	정밀화학원료	328	301.8
5	자동차부품	823	8.2	합금철선철및고철	273	102.1
전체 수출액		14,612	713.1	전체 수입액	7,353	800.2

주: *는 품목별 수출입 평균증감률

자료: K-Stat, MTI 3 단위 기준(최종 검색: 2022.11.7.)

-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소비 증가, 경기 회복으로 對인도 수출 크게 상승
 - '22년 인도의 경기 회복 활성화에 따른 PC, 노트북, 통신기기 등 디지털 기기와 전자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액이 '22년 6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5% 이상 증가
 - 철강·화학 등의 중간재 품목 또한 각각 22%, 13.4%의 준수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자동차 생산 차질 영향으로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다수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하락함
- 인도는 5G 통신망 구축 본격화, 전기차 전환 정책 시행, 반도체 자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IT제품 등은 꾸준한 수요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차전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월별 수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한국 기업 수출 성공 사례

의료기기 제조사 P사 - 창립 이후 최초 수출 성공

- (진출 전 현황) P사는 2013년 설립 이후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사로 오랜 연구로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점유율 성장에 이어 해외 수출 준비
- (시장조사)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뱀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치과용 의료기기의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과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의 수출 비중 차지
- (마케팅 전략) 무역관과 지방지원단 협업으로 화상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비가격 경쟁력 문제로 진출이 어려웠으나 무역관과 함께 화상상담, 무역관의 직접 대면상담 등 지속적 노력으로 계약조건 협의, 첫 샘플 거래 성사
- (결과) 샘플 거래 이후 P사는 추가 계약을 성사하는 등 수출 경험 지속
- (시사점) 수출 경험이 전무한 P사는 무역관에서 직접 바이어를 대면상담하고 2차 화상상담에서 직접 통역을 지원하는 등 무역관의 능동적 지원으로 최초 수출 성공

의료기기 제조사 A사 - 인도시장 진입 성공

- (진출 전 현황) P사는 의료용 광센서 제조기업으로 독일, 홍콩 등 10개국과 거래 중. 인도 시장에 첫 진출을 하며 거래선으로부터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바이어 발굴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음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관세 환급을 위해 무역관을 통해 시장조사 등 진행
- (마케팅 전략) 코로나19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위축으로 화상상담으로 바이어 발굴 및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등에 참여
- (결과) 상담회에 참여하여 거래선 확대(추가 바이어 발굴)에 성공하였으며, FTA센터의 도움으로 CEPA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선과의 단가 협상에도 성공하여 지속 거래
- (시사점)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출장 등 대면 마케팅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역관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입 및 거래선 구축에 성공함

K-POP 콘텐츠 수출기업 S사 - 현지시장 수요 적극 대응을 통한 수출

- (시장조사) 인도 동북부 지역은 인도 내에서 가장 한류가 인기를 누리는 지역으로 한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현지 바이어 A사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따라 무역관에 K-POP 상품 수입을 위한 국내 기업 소개를 요청
- (마케팅 전략) 무역관이 소개한 국내 기업 S사는 바이어와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 초기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 속 가격 협상 등의 난제 과정에서 바이어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 5월 최초 수출계약 체결
- (결과) 국내 S사는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바이어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최초 수출을 시작하였고, 추가 계약도 진행 예정
- (시사점) 인도는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데 반해, 초기 주문 물량이 많지 않아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나 시장 잠재력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아 초기 진입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점진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티켓 발급기 제조사 S사 - 탈중국 및 인도 정부 조달 참여

- (진출 전 현황) S사는 주차장 관리 및 제어 시스템 등 글로벌 시장 플레이어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해외시장으로 진출코자 노력
- (시장조사) 디지털화/자동화로 인해 인도의 자동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러 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성장 요인은 스마트시티, 자동화 가정 및 개별 가정의 보안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프로젝트라고 판단
- (마케팅 전략) S사는 6년간 인도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제품에 대한 잠재적 구매자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무역관을 통해 적합한 바이어와 만나게 됨. 인도 바이어사는 이미 중국에서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고, 인도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었음. 인도와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정부 기관은 중국 공급 업체 또는 중국산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음
- (결과) 인도 바이어는 입찰 자격을 갖추고 S사의 주차관리 시스템에 대해 현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함. 그 결과, S사는 인도에서 최초로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
- (시사점) 중국과 인도의 갈등, 인도 정부의 중국+1 전략으로 인해 인도 기업들은 수입 제품에 대한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었음. 중국 공급 업체는 가격 우위로 인해 인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이거나, 바이어와 적극 소통을 통해 진출을 꾀할 수 있음

수처리 기업 C사 - 인도 산업 트렌드 포착을 통한 수출 확대

- (진출 전 현황) C사는 물, 공기 환경제품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인도로는 수출하고 있지 않았음
- (시장조사) 인도는 대표적 물 부족 국가이며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가 부족한 편. 인도의 수처리 시장은 '21년 기준 21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평균 8% 성장
- (마케팅 전략) 물 관련 제품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 인도표준원) 인증이 필수이며 인도 시장에 맞게 제품 개발이 필요(Hydrogen Water 개발). 또한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유리한 관세 혜택이 있음
- (결과) 현지 바이어는 인도 수처리 전시회 참가했고, 국내 기업은 인도 신규 수출을 달성
- (시사점) 한국산 수처리 제품은 인도에서 인기가 많으며 수소수, 알칼리수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도 시장 진입 추진 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할 수 있음(해당 바이어 인터뷰)

나. 투자

■ 한국의 對인도 투자 현황

- (투자 개요) 198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75.88억 달러를 투자
 - '96~'97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0년 전후 인도의 경제성장과 CEPA 발효 이후 진출 확대
 -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차, 삼성전자가 인도 공장 증설 완료

〈 연도별 對인도 투자 진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건, 개 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누적(1980~2022.6)
투자금액	1,072	453	625	336	190	7,588
신고건수	410	452	308	246	122	4,535
신규법인수	119	129	74	56	24	1,3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분야) 2022년 6월까지 누적액 기준,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약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도소매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순서로 투자 진출

〈 업종별 對인도 투자 진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건, %)

업 종	2021년			누적액(1980~2022.6)		
	투자금액	신고건수	비율	투자금액	신고건수	비율
제조업	197	150	58.6	6,047	2,606	79.6
도·소매업	51	32	15.2	465	537	6.1
건설업	1	6	0.3	236	295	3.1
정보통신업	60	16	17.9	191	258	2.5
기타	27	42	8.0	650	901	11.8
총계	336	246	100	7,588	4,597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 규모) 전자, 자동차, 화학, 금융, 상사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주로 건설, 제조 분야 진출

〈 기업 규모별 외국인 투자금액 현황 〉

(단위: 개 사, 건, 백만 달러)

기간	1980년~2022년 6월			
구 분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대기업	385	5,754	1,500	7,451
중소기업	591	1,697	2,008	2,015
기타	404	137	1,089	163
총계	1,380	7,588	4,597	9,6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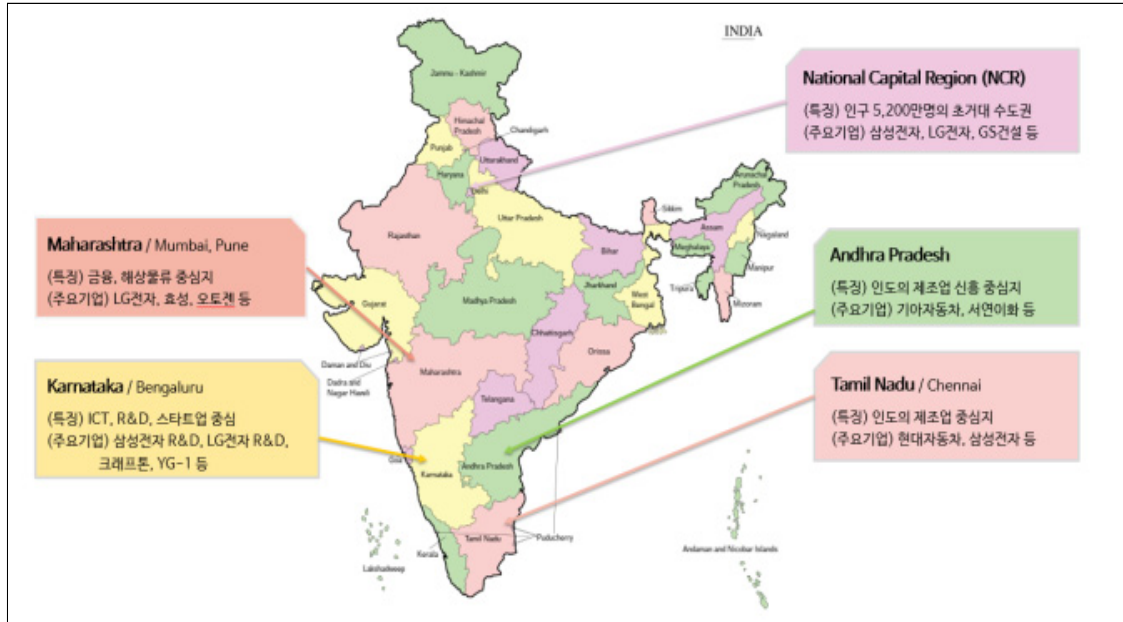
- (지역별) 뉴델리(322개 사), 첸나이(112개 사)를 중심으로, 뭄바이·푸네, 벵갈루루 등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뉴델리 동남쪽 도시인 노이다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장이 위치하며, 다수 기업이 서남쪽 위성도시인 구르가온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 남부 첸나이 지역에는 현대차 제1, 2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중부 벵갈루루 인근 아난다푸르에 기아차 공장 위치

〈 지역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 〉

지역	기업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뉴델리 등 수도권 지역	322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운송, 금융, 컨설팅, 화학, 도소매, 기타	삼성전자, 신한은행,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아시아나, POSCO, 이랜텍, SD바이오센서, 효성 등
첸나이	111	자동차 및 부품, 건설,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 기타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두산밥캣, 경신마더슨 등
뭄바이/푸네	47	제조업, 금융·보험, 무역·물류·운송, 자동차 및 부품, 도소매·유통, 건설	LG전자, LG화학, 미래에셋, 산업은행, POSCO, 효성, 삼성물산, 오토젠 등
벵갈루루	43	연구개발·IT, 제조업, 건설·공사업, 도소매·유통, 농림·수산업, 기타	삼성전자, LG소프트인디아, 기아차, 이랜드, 와이지원, 현대글로비스, 한컴 등
암다바드	7	화학, 철강, 제과	POSCO, 한전 KPS, 국도화학 등
콜카타	4	자동차·기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계	534		

자료: KOTRA 인도 지역 무역관 자체 조사('22.11.)

〈 지역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지도 〉



자료: 인도 정부, Invest India

■ (참고) 인도의 對한국 투자 현황

- (투자 개요) '62년부터 '22.6월까지 총 713건, 신고 기준 약 67억 달러 투자하였으며 이 중 약 58억 달러가 도착 (신고액 대비 86.7%)

〈 연도별 인도의 對한국 투자 현황 〉

(단위: 천 달러, 건, 개 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6월)	누적 (1962~2022.6월)
신고금액	1,946	96,638	1,433	2,022	627	679,657
신고건수	13	16	12	10	7	713
도착금액	539	44,998	729	910	129	589,359
업체수	5	8	5	7	2	41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 분야) 2022년 6월 누적 신고액 기준,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81.0%,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의 약 18.5%를 차지

〈 업종별 인도의 對한국 투자 현황 〉

(단위 : 천 달러, %)

업종	2021년			2022년 1~6월			누적액(1962~2022.6)		
	신고금액	신고건수	비율	신고금액	신고건수	비율	신고금액	신고건수	비율
제조업	0	0	0	0	0	0	551,116	56	81.0
서비스업	1,579	9	78.1	627	7	100	125,995	649	18.5
전기가스·수도 환경정화·건설	443	1	21.9	0	0	0	2,456	7	0.3
농·축·수산·광업	0	0	0	0	0	0	90	1	0.01
총 계	2,022	10	100	627	7	100	679,657	713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진출 사례)

- 유통, 식품 분야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마힌드라(Mahindra)가 쌍용차 지분 인수(4.6억 달러, 2011년) 이후 2013년 800억 달러, 2019년 800억 달러 등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타타(TATA)의 대우쌍용차 지분 인수(1억 달러, 2004년)
- 인도의 TATA consultancy service(연락사무소, 2003년), HTC Global Service(2013년 한국 진출), Tech Mahindra(연락사무소, 2014년)와 같은 IT 서비스 기업 일부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
- 인도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힌달코는 자회사인 노벨리스(Novelis)를 통해 한국에 가공공장 2개소를 두고 있음
- 인도의 對한국 투자 추이는 쌍용차, 노벨리스 투자 이후 지속 감소세

■ 한국 기업 투자 성공 사례

의료용품 제조기업 D사 - 인도 법인과 JV를 통한 인도 시장 진출

- (진출 전 현황) D사는 한국의 대학병원에 의료용품을 주로 공급해왔으며, 미국, 일본, 호주, 등에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에도 제조공장을 설립. D사는 인도 시장 및 자사의 의료용품 생산 라인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를 진행
- (시장조사) 무역관은 인도 시장에서 최적의 가격전략을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 경쟁업체 분석 및 동종 업계 가격 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장 정보 제공
- (진출전략) 잠재적 바이어를 파악 및 주요 의사 결정권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무역관이 지원하고 파트너 바이어사에 대한 신용도 검사 또한 철저히 실시. 인도 파트너사는 다양한 일회용 의료용품 제조 및 정형외과 및 상처 치료를 위한 외과 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무역관과의 여러 건의 온라인 회의와 협상 끝에 두 회사는 계약을 체결. 또한, 당사에 현지 회계사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들과의 기본 인터뷰를 기반으로 권장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결과) 두 회사는 합작 투자를 설립하고 새로운 인도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방 세무 당국에 등록. 양사의 계약에 따라, 상당한 의료용품 제조 기계 수출 예정이며 추후 진출 다변화 예상

프린팅업체 W사 - 인도 내수시장 겨냥 성공적인 진출

- (진출 전 현황) 2008년부터 인도와의 비즈니스를 진행한 W사는 기술력과 납기 등 현지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있었음. 당시 인도의 프린팅 기술력은 낮은 데 비해, 시장은 지속 성장함에 따라 바이어들로부터 현지 생산을 권유받음
-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일부 바이어들로부터 합작 파트너를 소개받고, 본격적인 현지 시장 조사를 진행. 2년간에 걸친 현지 진출 가능성 타진을 통해 인도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자동차 번호판 공급 최대 기업으로부터 번호판 인쇄 오더를 수주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시장 진출을 결정함
- (진출전략) 동사의 진출은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지 생산 여건과 내수시장 공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어,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전략을 수립
- (결과) 동사는 현재 인도 최대 자동차 번호판 생산업체에 번호판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을 문구류 등까지 확장하고 있음. 동사는 현재 인도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설비업체 F사 - 미래 산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 발굴 추진

- (진출 전 현황) 각종 자동차 회사에 세척/테스트/조립 설비 공급뿐 아니라 각종 고속 원심분리기 개발을 통해 환경, 정밀화학, 제약 분야 진출. 공장 자동화 설비, 환경 폐수처리 설비 사업 분야의 혁신적 기업
- (시장조사) 인도는 원심분리기 등을 활용하는 소재 재활용 기술이 비교적 발전.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제조를 위한 특정 소재(리튬 등) 부족이 대두되면서 폐자재로부터 소재를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 증폭
- (진출전략) 인도 기업과 기술 협력/이전을 통해 소재 재활용 기술 제품 개발 모색. 인도의 ESDM(Electronics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시장은 '21년 기준 1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최근 인도 구자라트 지역은 전자제품 제조 허브로 각광받고 있음
 - * 대만 폭스콘, 인도 베단타그룹과 합작하여 인도 구자라트에 반도체 공장 설립 발표
- (결과) 국내 기업과 인도 기업 간 세부적 기술 스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인도 기업 실사 등 기술 확인 작업이 필수이며, 이외 세부적 사항들은 계약서 등을 통해 반드시 명문화한 후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음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측 수요가 있는 유망분야인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인프라 등 협력 검토, 아울러 계류되어 있던 한-인도 CEPA를 양국 주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확대

● 한-인도 CEPA를 양국 주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확대

-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상시적 정보 교류와 협의 시행의 장으로 정례화, 공식 채널 및 통상 포럼 등의 형태로 그 범위를 확대
- 향후 개선 협상에 있어서는 개방 수준 확대 및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선
 - *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전자·자동차·기계류 등 관세 혜택 적용 품목 확대 및 전문인력 개방, 인프라·에너지·디지털 경제협력 분야 다양화 등 개방 수준 전면 검토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및 비중 완화
 - *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 전송, 통관 시 수입국에 별도로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EODES) 도입에 대해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

● 한-인도 체결 주요 MOU

연번	대한민국	인도	MOU 내용	시기
1	산업통상자원부	상공부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조기 성과 합의서	'18. 7
2	산업통상자원부	상공부	• 무역구제 협력	'18. 7
3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공부·과학기술부	• 미래비전 전략그룹 설치 : ICT, 첨단제조,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협력	'18. 7
4	외교부	문화부	• 2019~2022년 문화교류계획서 : 문화, 예술, 청소년, 체육 제반 분야	'18. 7
5	문화체육관광부	우타르프라데시주	• 한-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18. 7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 한-인도 ICT 협력 MOU 개정 : 기존 ICT 협력방안 범위를 5G, IoT, 사이버 보안으로 확대	'18. 7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 한-인도 바이오 협력 MOU	'18. 7
8	과학기술연구회	과학산업연구회	• 과학기술연구회(NST)-과학산업연구회(CSIR) 공동연구 MOU	'18. 7
9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증기관	•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 한국 철도 기술 이전	'18. 7
10	KOTRA	구라자트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구자라트주 MOU : 무역관 개소, 경제교류 행사 공동 개최	'18. 7

연번	대한민국	인도	MOU 내용	시기
1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공사	•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MOU	'18. 7
12	KOTRA	전기전자·반도체협회(ESA)	• 산업 고도화 협력 MOU : 전기전자·반도체 산업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정기 협회, 공동 행사 개최	'18. 7
13	KOTRA	인베스트 인디아	• 스타트업 협력 MOU :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창업 정보 제공, 공동 행사 추진	'18. 7
14	한국전력	인도전력망공사	• 에너지 신사업 기술 협력 MOU : 에너지 신사업 발굴 협력 및 송배전, 변전, 전력 정보기술 등 기술 교류	'18. 7
15	KB금융그룹	바로다은행	• 업무 협력 MOU :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 지원	'18. 7
16	오토젠	마힌드라&마힌드라	• 경량화 기술 협력 MOU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18. 7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도 정부	• 허왕후 기념 우표 공동 발행 MOU : 양국 내 허왕후 기념 우표 공동 발행	'19. 2
18	산업통상자원부	인도 정부	• 코리아 플러스 MOU : Invest India(인도 투자 유치 기관) 내 코리아 플러스(한국 기업 지원 전담팀, 2019.1월 기한 만료) 관련 운영 기간 3년 연장	'19. 2
19	중소벤처기업부	인도 정부	•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 MOU :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 진출 및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지원	'19. 2
20	경찰청	인도 정부	• 경찰 협력 MOU : 양국 경찰 간 국제범죄 관련 공조 강화	'19. 2
21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베스트 인디아	• 스타트업 지원 MOU :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창업 정보 제공, 공동 행사 추진	'21. 4

자료: 정부 발표 자료 재구성

● 인프라 분야 정부 주요 프로젝트

- 부문별 발주 예상 프로젝트

〈 도로 〉

발주처	National Highway Authority of India (NHAI)	규모	약 13.5억 달러
프로젝트 개요	• 발주시기: 2023~2027년 • 프로젝트 분야: 도로 및 교량 • 발주방식: EPC(설계+조달+시공)		
상세 내용	•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아우랑가바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 225km 규모 • 파이탄(Paithan)과 아흐메드나가르(Ahmednagar) 지역을 연결하는 4~6차선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 바라트말라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 중 • 현재 건설 중인 뭄바이-나그푸르 고속도로(701km)와 연결 - 두 도시 간 이동 시간을 4~5시간에서 약 2시간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		
특이사항	•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 4월에 발표되었으며, DPR과 사업타당성 검토는 진행 중임 • 관련 토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설 입찰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		

〈 철도 〉

발주처	Kerala Rail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KRDCL)	규모	약 86억 달러
프로젝트 개요	• 발주시기: 2021~2027년 • 프로젝트 분야: 철도 • 발주방식: Tender(입찰)		
상세 내용	• 티루반난타푸람(Thiruvananthapuram)에서 카사라고드(Kasaragod)까지의 준고속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 • 총 530.6km 규모로, 11개의 구역(Districts)을 연결 • 인도 중앙 철도부와 케랄라주 정부의 합작회사인 케랄라 철도 개발 유한공사(KRDCL) 간 추진 • 인도 남부 케랄라 전체 남북을 따라 교통을 용이하게 하여, 현재 12~14시간인 이동 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 • 준고속철도 사업은 EMU형 전도차를 9량 편성하고, 각각의 전동차는 12량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		
특이사항	• '20.6월 케랄라주에서는 해당 프로젝트 DPR을 승인하였으나, 세부 노선 정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사업을 위해서 1,383헥타르 규모의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이중 1,198헥타르가 사유지임 • 관련 재원은 중앙 정부의 주식형 펀드 자금과 여러 대출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진행될 것이며, 중앙과 주정부는 케랄라 인프라 투자 기금 위원회로부터 210억 루피에 대한 행정 제재를 승인하였음		

〈 항만 〉

발주처	Mumbai Port Trust (MbPT)	규모	약 73.96백만 달러
프로젝트 개요	• 발주시기: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 프로젝트 분야: 항구 • 발주방식: PPP(민·관 협력 파트너십)		
상세 내용	• 민·관 협력 방식(PPP)으로 뭍바이 항구 Princess Dock에 최첨단 마리나* 시설을 개발할 계획 * 마리나: 요트를 타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요트 전용 항구, 요트 탑승뿐 아니라 산책로, 유람선, 관광시설 등을 모두 갖춘 폭넓은 개념으로 활용 • 총 8.2헥타르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 • 세부 계획 및 설계는 PPP 운영자가 수행할 예정		
	프로젝트 구분		규모(헥타르)
	1. 마리나 서비스	a) 수역시설	5.2000
		1. b) 해안 산책로	0.8400
	2. 마리나 육상시설	2. a) 조선소	0.9800
2. b) 보조시설		1.0064	
총 계		8.0264	
특이사항	• DPR(프로젝트 세부시행 보고서)가 지속 수정되고 있음 • '22.5월 기준, 선정된 프로젝트 사업자는 마리나 건설에 대한 3년 기간을 포함해 50년간 항만 당국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광고, 공간 임대, 관광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양허 기간을 갖게 됨		

자료: 정부 자료 종합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프로젝트

구분	세부사항		예산지원부처	관할 부처	지역
전력 생산	진행 사항	개발 중	중앙정부	전력부	전국
	예산	234억 달러			
	완료예정일	-			
태양열 발전	진행 사항	개발 중	중앙정부	신재생에너지부	전국
	예산	639억 2천만 달러			
	완료예정일	-			
풍력 발전	진행 사항	개발 중	중앙정부	신재생에너지부	전국
	예산	567억 9천만 달러			
	완료예정일	-			
수력 발전	진행 사항	개발 중	중앙정부	전력부	전국
	예산	102억 1천만 달러			
	완료예정일	-			

자료: 정부 자료 종합

- 인도와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이 체결된 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전 인도 NDC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정책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 인도 환경부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 <https://ckcpindia.nic.in/>
- 현지 발주 프로젝트 사업 또는 ODA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추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에 유리한 환경 조성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망 분야 : 농업, 산림, 폐기물, 가정용 에너지 부문
- **(기업 간 협력)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정책에 따른 1이차전지, 온실가스 국제 감축에 따른 2에너지 저장기술, 3친환경 건축 기자재 등 교역 확대, 장기적으로는 높은 비관세장벽과 투자 인센티브 적극 제공하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고려하여 유망 부문 투자 진출 고려**
- 이차전지 수출 확대 및 현지 제조 검토
 - 전기차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이차전지 수요 증가 전망
 - 특히, 중량 대비 높은 용량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현재 인도는 원자재 및 제조시설 부족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 생산 보조금 등을 통해 국내 생산 촉진 노력
 - Munoth Industries는 인도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인도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22년 10월 생산 예정
-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활용 및 현지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인도 내에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국가 경제와 주요 거시경제 발전 전략 요약 〉

- 인도 정부 : '15년~'19년 Fame1 정책을 통해 약 900크로 루피(원화 1,580억 원 상당)를 전기차 인프라에 투입하였고, Fame2 정책을 통해 '20~23년 약 10,000크로 루피(원화 1조 7천억 원 상당)를 투입할 계획으로 인도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
 - * Fame :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in India
- 인도 델리주 정부 : '24년까지 전기차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 1만 8,000개 설치를 발표

〈 전기차 충전소 〉

국가명(무역관)		인도(뉴델리)
프로젝트명		16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해외발주처명		EESL(Energy Efficiency Services Ltd) 컨소시엄 및 자회사 (https://eeslindia.org/)
프로젝트 일정		FY 2021~FY 2023 (* 인도 회계연도 기준, 전년 4월~차년 3월)
재원 조달		NHAI(인도 고속도로 당국)는 기존 고속도로에 민·관 협력 모델로 휴게시설 개발(WSA)을 시행하고 있음. 향후 5년간 국도를 따라 22개 주 600여 곳에 세계 수준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개발할 것이며 130곳이 '21~'22년 개발 목표임
규모(백만 달러)		미공개
사업기간		FY 2021~FY 2023
프로젝트 상세정보		1) 중공업부(MHI)는 '21.12월 16개의 고속도로를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EESL 자회사를 선정하였음 2) 상공부는 전기차 충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EESL과 MOU를 체결하였고, 국토부는 수익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주변 요금소와 건물 인근 토지를 제공할 예정 3) 해당 공간은 인도 국토청이 정한 기간 동안 EESL에 무상 제공 4) 충전소는 인도 국토청의 WSA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기존 및 향후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될 것 5) 인도 국토청은 이미 39개소를 낙찰했고, 추가로 103개소에 대한 제안이 입찰 단계에 있으며, 추가되는 휴게시설 개발 지역은 인도 국토청에 의해 최종 입찰에 부쳐질 것 6) 도로 휴게시설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들은 전기충전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해야 함 7) 이미 시작된 개발은 회계연도 2022/23에 마무리될 것
진출 방안	프로젝트 선정 이유	인도 정부의 FAME II 정책에 따라 고속도로 및 국도에 공공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EESL의 자회사가 이를 수행하게 되었음
	기회요소	◦ EESL은 전기차 충전소 공급, 설치, 시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충전 포인트 사업자(CPO)에게 입찰할 가능성 높음 ◦ 낙찰 업체는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및 관련 모든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게 됨
	위험요소	지속적인 전기 충전에 따른 운영비 투입과 충전소 배치를 위해 충전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요 토지, 사업 수주를 위한 낮은 사업비 등이 관건이 될 것
	현지 협업 가능 기업	* 유망 기업 : Tata Motors, Fortum Charge & Drive, Ather Energy & Ather Grid, NTPC, Tverson Electric Solution Private Ltd - Volttic
	한국 기업 참여방안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최대 공급 국가로 유망한 국가이니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배터리 제조공장과 전기자동차(이·삼륜차) 제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유력한 후보로 보임

■ 에너지 저장기술(“P2G”) 수출 유망

- 인도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저장 기술의 하나로서 P2G(Power to Gas)*가 유망
 - * P2G :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부터 얻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시켜 수소 또는 메탄을 생성 및 저장하는 기술로서 강한 바람이 불 때 발생한 잉여전력을 바람 없는 주간에 사용 가능
- 국내의 P2G 저장기술 보유업체들이 P2G 시스템의 설계, 시공, 운영 솔루션을 인도에 수출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 친환경 건축 기자재 수출 유망

- 인도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보존건축법(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 ECBC)을 2017년부터 시행
- 최근 인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녹색 건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친환경 건축 기자재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16년 기준, 인도에는 4,500개 이상의 그린빌딩 프로젝트가 존재하나 그린빌딩 비율은 전체 빌딩의 5%에 불과(자료: PR Newswire)
- (유망 품목) 스마트 지붕 솔루션, 그린 인슐레이션 창문 패널, 고효율 LED 조명, 고효율 단열재, 그린 배관 라인, 난방·환기·공기조화 시스템 등
- 친환경 건축 기자재 수출 기업들은 인도에서 개최되는 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여 자사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파트너 발굴 가능

〈 (전시회 예시) Renewable Energy India Expo 〉

- 재생에너지 분야의 구매자, 판매자, 제조업체 및 전문가들이 모이는 전시 플랫폼
- 태양·풍력·바이오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중점을 둔 B2B 박람회
- '22년에는 9.28~30일 인도에서 개최



2023

인도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목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글로벌 GVC 진입 지원

※ (전략) 1) 수출 기회 다변화 2) 글로벌 GVC 대응 3) 투자 진출 확대 및 다변화 4) 對인도 통상 협력 확대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인도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친기업, 제조업 육성, 전기차 전환 등 정부의 지속적인 기업 환경 개선 노력 지속
- 저렴하고 젊은 노동시장, 인센티브 등 풍부한 자본력, IT기술 분야 인력 풍부
- GVC 다변화 과정, 반중 정서 지속, 문화 콘텐츠 등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 특별경제구역(SEZ) 등 인프라 갖춰진 단지 조성

약점 (Weakness)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지나친 에너지 대외 의존도, 낮은 GVC 연계성으로 인한 수출 취약 구조
- 통신 인프라 대비 물류/유통 인프라 취약
- 기업 진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인적교류/기술교류 등 협력 수준 미흡

기회 (Opportunity)

- 한-인도 수교 50주년 활용, 경제협력 확대
- 한류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 14억의 젊고 거대한 소비시장 존재
- 중진국 진입을 위한 활발한 인프라 개발, FDI 등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 반중 정서 지속 등

위험 (Threat)

- 인도 정부 당국에 의한 행정 리스크 다대, 보호 무역주의의 심화, 관세 인상 등 통상 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확대
- 환경규제 강화, CSR 등 ESG 강화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확대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인도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의 양질 증가 • 인센티브 확대, ESG(그린) 부문 확대, 인도의 국제적 협력 강화 추세에 힘입어 기회 발굴	소비재, 유통, 그린, 디지털 및 인프라(전력) 기자재 등
ST 전략 (강점 활용)	• GVC 재편 및 진입 지원 •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기존 진출 주력 분야 대상 진출방식 다각화	글로벌 GVC 대응 - 자동차, 전기전자, 관련 부품 등 GVC 재편에 따른 현지 제조 확대
WO 전략 (기회 포착)	• 부족한 인프라 시장 대비 인도 내 수요 급증, CPEA 등 교류 확대 요구 강화 • 투자 진출 후 내수 판매 및 수출 판매로 인센티브 활용	프렌드쇼어링, 공급망 구축 선정, ODA 연계 확대
WT 전략 (위험 대응)	• 비관세장벽 강화, 행정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확대 등 기업의 애로사항 다대 → 정보조사, 애로 해소 등 필요	기존 무역 투자 기반 활용 기업 리스크 축소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3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비재/서비스 시장 기회 확대 정부 주도 그린/디지털 수요 증가	① 수출 기회 다변화 - (그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기술 및 기자재 수출,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부품·배터리 수출·진출 및 기술협력 - (디지털) 인도의 통신 인프라(5G망) 구축 및 반도체 제조업 진흥 관련 통신장비, 통신안테나, 반도체 기기류 등 수출 확대 기회 - (소비재/서비스)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유통망 입점 지원 서비스 및 한류 박람회 등 서비스 활용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등) 및 서비스(웹툰, 드라마, 온라인게임 등)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공급망 다변화 필요	② 글로벌 GVC 대응 - (GVC) 공급망 재편 과정, 현지 제조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확대, 세계 국가들은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시행 - (자동차) 전기차 시장 진출과 연계, 중소·중견기업 현지 판로 확대 - (GP) 인도 대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강화로 진출 품목 다변화
Make in India, Assembly in India	③ 투자 진출을 위한 현지 수요 모니터링 - (수요 발굴) 인도 내 제조업 육성, 투자 진출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품, 중간재 수요 모니터링 통해 진출 품목 선정 - (인센티브) CEPA로 통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확인, 주정부별 투자유치정책, 좋은 입지(SEZ정책) 등 발굴
한-인도 수교 50주년 협력 기회 다대	④ 한-인도 비즈니스 플랫폼의 활용 - (정상외교) 한-인도 수교 50주년, G20 등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포럼 등 개최하며 협력 분야 확대 및 경제 교류 활성화 - (CEPA) 한-인도 CEPA 개정 협상 재개에 따른 양허율 개선 기대, 진출 기업의 애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상 채널로 CEPA 활용 - (ODA) 수출입은행 EDCF 자금 활용, 인도 인프라·에너지 등 ODA 연계 프로젝트 추진
한국 ODA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GVC 재편 기회 활용”

2-1. 수출 기회 다변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2030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품목 다변화 시급
- ※ 두터운 소비자층과 함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세를 연계
- ※ 한류 열풍으로 웹툰, 드라마, 게임 등 K-Contents의 기회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위한 수출 품목 다변화 시급
 - 경제 규모(인도 GDP 세계 5위, 한국 11위) 대비 교역액(약 236억 달러, 2021년 기준) 과소
 - 2022년 러-우 사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연이어 지속되면서 단기적 수출 증대와 다양한 품목의 수출 확대 절실
- 인도 소비심리 회복, 소비시장 확대로 주요 기업 인도 투자 급증
 - '22.4~7월 기간 對인도 외국인 투자 금액은 165.9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의 6%가량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대비 높은 수치
 -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아마존, 월마트 등 기존 진출 기업뿐 아니라 구글 등 인도 시장 투자 확대를 통해 인도 시장에 큰 관심
- 인도 콘텐츠 시장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24년에는 310억 달러로 성장
 - 한국 드라마 '악의 꽃' 인도에서 최초로 판권 판매된 사례('22.8), 현지 OTT(Zee5)에서 높은 순위 기록
 - * '20년 넷플릭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시청 인도인 수 전년 대비 370% 증가
 - 인도, 디지털 미디어, AVGC 분야 등 현대적 M&E 산업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K-Contents를 필두로 한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교류 확대 필요
 - * 인도 정보방송부, 국내외 수요에 따라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게임, 만화(AVGC)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 해당 부문 홍보 집중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그린/디지털) △반도체 기기, 통신 안테나 등 5G 관련 통신기기, △스마트 지붕 솔루션, 고효율 기자재 등 친환경 기자재, △P2G 에너지 저장기술, △이차전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인도 수요에 맞춘 단기적 수출 증대 전략
 -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전환을 위한 법인세 감세, PLI,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을 고려, 내수시장과 제3국 수출을 고려한 인도 시장 진출
- (소비재/서비스) 인도 유명 온라인 유통망 입점을 통한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 판매 확대, 인도 내 한류 열풍을 고려한 박람회 참여하여 웹툰, 게임, 드라마 등 M&E 산업과 의료, 에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 진출 고려
 - 에듀테크, 농업, 의료 부문 등 기술 스타트업은 인도 측과의 지속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향후 진출 가능성 모색 가능

2-2. 글로벌 GVC 대응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코로나19 이후 인도 내 제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자주 인도' 정책 강화
- ※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에서 인도의 산업경쟁력과 가치사슬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印 정부의 기업 투자 유치 노력에 따라 제조업 외 다양한 부문의 수출 및 진출 수요 발생
- ※ 기존 진출 주력 산업 고도화에 발맞춘 맞춤형 지원책 마련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 코로나19 영향으로 GVC 재편 및 수출 회복을 위한 기업 유치 필요성 절감
 -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추진했던 제조업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의 GDP 비중은 오히려 2021/22 회계연도 기준 15.4%로 하락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재편 요구로 인해 '자주 인도' 정책을 통한 인도 내 제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인도의 적극적인 한국 제조업 유치, 한-인도 산업 협력 고도화 요구
 - 공격적인 생산 연계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계획을 이끌어내고 있음
 - 특히 반도체 FAB, 디스플레이 FAB 중심 공장 유치 노력 병행
 - * 폭스콘-베단타 구자라트 반도체 공장 설립 투자 합의(22.9), 싱가포르 IGSS 벤처 타밀나두 웨이퍼 공장 설립 추진, 주정부와 MOU 체결(22.7)
 - * 인도 현지 기업, 한국 합작 파트너 물색 중(21.10), 한국 반도체 장비 수입선 발굴 요청(22.9)
 - '21년 8월, 정부는 인도를 세계 제일의 자동차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국가계획 2026(Automotive Mission Plan)을 발표, 자동차산업의 GDP 기여도를 현재 7.1%에서 12%로 늘리고, 현재 약 3,700만 개 일자리를 5,000만 개로 확대하고자 함
 - * 자동차산업은 총 GDP의 7.1%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의 49%이며, 연 매출 7.5조 루피(한화 약 118조 원), 수출은 3.5조 루피(한화 약 55조 원) 수준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주요 산업 확대를 위한 인도 정부 정책 수요에 대응
-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판로 다변화 지원
 - (자동차) 신규 및 기존 진출한 현지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판로 다변화 지원 및 전기차 시장 진입 지원
 - * 현대차, 인도 제조 차량 수출을 확대하면서 인도 내 기업 중 차량 수출 1위
 - (전기전자) 글로벌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따른 글로벌 파트너링(GP) 수요 발굴
- 일반기계, 건설기계, 기타 제조용 기계류 수요에 적극 대응
- 우리 기업 진출방식 역시 단독 투자에서 벗어나 M&A, JV 설립 등 다각화 필요

2-3. 투자 진출을 위한 현지 수요 모니터링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Make In India 2.0인 '자주 인도' 정책 시행, PLI 인센티브, 특별경제구역(SEZ) 운영 등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 ※ 특정국에 편중된 진출 기업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인도발 투자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 있어 협력 투자가 진행될 필요성 대두
- ※ 투자 진출 결정 이전, 교역구조 및 동향을 파악하여 시장 개척의 단기·중장기 플랜 수립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리나라는 중국 등 특정국에 진출 기업이 편중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에 따라 무역적자, 공급망 혼란 등 다양한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바,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렌드쇼어링' 필요
 - 對인도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투자된 금액의 5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누적액 기준으로도 유사한 추이
 - 주요 선진국은 IT 및 디지털 서비스 중심으로 對인도 투자를 적극 시행 중
- 반도체, 5G 통신기기, 이차전지 등 인도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품목별 교역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정부의 자국 내 부품 조달, 투자 인센티브,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한 장기적 투자 진출 플랜 수립
 - (단기) 지속적인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 발굴(디지털, 그린, 소비재 등)
 - (장기)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2.0에 따른 대상 품목 확대, 주별 핵심 투자 유치 산업의 변화, 경제특구(SEZ) 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한 투자 방향 설정
- 인도를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진출 거점으로 활용
 - 2000년 이래 꾸준히 이어져온 경제 영토 확장 노력과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
 - 印 동방정책(Act East, Look East), 韓 인도-태평양 전략(IPEF)의 접점

(참고) 일본-인도 협력 사례

- (개요) 양국 외교부는 日 '인도-태평양 전략'과 印 '신동방정책'에 근거, 양국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인도 동북지방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시행
- * 일본 정부, 양국 정책이 만나는 지점에 동북지방이 위치함에 따라 동 지역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벵골만 협력기구 국가들을 연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간주
- (세부내용) 양국 정부, '인도 동북지방 현대화'를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 상정,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 및 전력·수력발전소 등 인프라 개발, 일본어 교육을 포함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양국 인적 교류와 산업 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진행 중
- (참고) 동북지방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발전 필요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수출과 진출의 기회 발굴, 신산업 분야 협력 투자 추진
 - 글로벌 투자 트렌드와 연계, IT, 디지털 등 새로운 부문으로 기회 포착 및 확대

2-4. 한-인도 비즈니스 플랫폼의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인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품목분류 논쟁, 수입인증제도 도입으로 기업 애로 증가
- ※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및 안-아세안 FTA 등 관련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통관, 투자 진출,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적극 대비
- ※ 한-인도 CEPA로 인한 통상 채널, ODA 등 개발 협력 등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2년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 논의

- '22.1월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CEPA 개정 협상 재개 합의, 연내 추진 예상
- 인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로 품목분류 이슈(DRI 관세조사국), 수입인증제(BIS, CDSCO, FSSAI 등) 확대로 접수되는 기업 애로 증가
- 한편으로 인도는 '21.8월 FTA 우선협상대상국 발표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해 구미, 중동국과 FTA 체결 추진 중(UAE, 호주, 캐나다, 영국, EU 등 5개국)
- 한-인도 CEPA 개정과 관련하여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전자·자동차·기계류 등 관세 혜택 적용 품목 확대 및 전문인력 개발, 인프라·에너지·디지털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 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인도는 진출 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특별경제구역, 산업단지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등)과 주정부별로 주요 FDI 분야를 지정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인도의 사업 환경은 아직 불완전하며, 주정부의 인센티브 지급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도 다대한 바 중소기업의 對인도 투자 진출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투자 유치 확대정책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되며, 오히려 외국 기업을 향한 관세·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 다수

●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를 지정, EDCF 활용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중

- 향후 인도와 제3국을 연계한 ODA 등 협력 수요 발굴
- 일본의 투자 진출을 고려한 협력방식 고려, 향후 개발 관련 프로젝트 수주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신산업 분야 협력 투자 및 ODA 연계 투자 추진

- 對인도 ODA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및 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기업 진출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및 분야별 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①정보 전파 ②진출 기업 지원 ③상생 협력을 통해 진출 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 역할
 - CEPA, 지재권 등 다양한 기업 애로를 분야별 센터 활용 해소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내용	
일회용 의료기기	선정 사유	-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 중. 필요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약 80%를 해외로부터 조달 - 인도 의료기기 수입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41%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인도 의료기기산업협회, '22) - 인도의 의료기기 산업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다수 존재
	시장 동향	◦ 인도 일회용 주사기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억 4,800만 달러, 2030년에는 3억 8,500만 달러로 성장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Allied Market Research, '22) ◦ 이 시장을 강타하는 하나의 트렌드는 가정용 간호 장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장치, 전례 없는 일회용 의료기기 수요 증가임 ◦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인도인들은 자가 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및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후 마스크 및 장갑과 같은 의료용 일회용품의 수요와 사용이 전례 없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는 75~80%로 비교적 높은 편 ◦ 진단장비, 산소농도계, 전자온도계, 시약 등이 주요 수입품 ◦ 진단 영상 시장 성장률은 2025년까지 연평균 13.5% ◦ IV 진단, 심장/폐 관련 기기, ECG, 안과, 치과 의료기기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내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 부문 정부 지출은 GDP의 3.9% 수준이며 가구별 의료비 총당은 61% 수준으로 알려짐
	경쟁 동향	◦ 인도 일회용 의료기기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Albert David, Baxter International India Pvt. Ltd., B. Braun Medical India Pvt. Ltd., Becton, Dickinson India Pvt. Ltd., Cardinal Health India Pvt. Ltd., Hindustan Syringe and Medical Co. Ltd., Nipro Medical Corporation India Pvt. Ltd., Novo Nordisk India Pvt. Ltd., Terumo Corporation India Pvt. Ltd. LTD. 및 Teleflex Medical Pvt. Ltd. 등이 있음 ◦ 인도 내 고부가가치 의료시장 확보를 위해 세계 상위 40여 개의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가 인도 진출해 있으며, 다국적 기업 제품이 의료시장 소모품, 기기 등의 40~50%를 차지 ◦ 인도 내 750여 개의 의료기기 제조사가 있으며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90% 기업이 1천만 달러 미만 매출) 인도시장의 30% 시장을 차지 ◦ 인도 진출 의료기기 주요 기업으로 노바티스, 스트라이커, 에드워드생명과학, 메드트로닉스, 박스터, 폴리메디큐어 등이 있음
	진출방안	◦ 인도 일회용 의료기기 시장 참가자들은 파트너십, 투자 합작 등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 정부가 의료기기 제조 부문에 도입한 PLI(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컨설턴트의 자문을 통해 인도 내 투자법인(혹은 합작회사)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인도 의료기기 규제기관은 CDSCO이며 별도 리스트를 통해 신고 필수 의료기기 및 신고 불요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있음. 신고 필수 의료기기의 경우 CDSCO 인증 필수 ◦ 의료기기 수입 가능 기업은 의약 및 화장품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하며, 허가받은 기업은 수입신고를 위한 별도 절차에 따라 수입을 진행 ◦ 의료기기 인도 수출을 위해서 먼저 ①등록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②허가를 지닌 인도 에이전트를 선임 ③Form40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④Form41에 따라 등록필증 발급 ⑤Form10에 따라 수입허가증 발급을 받아 ⑥해당 제품에 대한 마케팅 개시 ◦ 의료기기(HS Code 9018.31 한정)의 경우 한-인도 CEPA 적용 혜택을 받아 7.5%의 최종세율 적용 가능
품목명 2	내용	
폴리아미드	선정 사유	◦ 폴리아미드는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산업 등 고강도 경량화가 요구되는 산업 전반에 수요가 매우 높은 품목임.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서 수요가 많고, 가전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향후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인도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이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 동향	◦ 인도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2018년 80.7억 달러에서 2023년 115.1억 달러로 성장하여 연간 7.2%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폴리아미드 수요도 2018년 206 KTPA(Kilo Ton Per Annum)에서 2030년 657 KTPA로 연간 9.4% 성장 예상 ◦ 폴리아미드는 고강도 경량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로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소비자재 및 가전, 섬유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향후 수요는 증가 전망 ◦ 최근에는 고품질의 바이오 기반 폴리아미드에 대한 수요도 자동차 산업,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이 예상됨
	경쟁 동향	◦ 인도에도 현지 대기업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현지 주요 생산 기업은 아래와 같음 ◦ Gujarat State Fertilizers & Chemicals Limited ◦ SRF Limited ◦ Century Enka Limited ◦ JCT Limited ◦ NRC Limited ◦ 수입은 중국, 러시아, 대만, 태국, 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지 생산품과 경쟁관계에 있음
	진출방안	◦ 현지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와 협력을 통하거나, 현지 마케팅 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함 ◦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향후 시장 전망 및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지 파트너 활용 또는 직접 진출하는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CEPA 혜택 적용 시 기본관세율은 0%로 최종 세율 18%로 적용받을 수 있음

품목명 3	내용	
리튬이온 배터리	선정 사유	-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의 전자기기와 전기차, 방산 산업, 자동화 시스템, 항공 산업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인도의 對한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크게 증가하였음
	시장 동향	- 인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20년 16억 6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7년에는 48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22~2027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17.23%를 기록할 것 - 인도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내연기관(ICE) 차량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여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쟁 동향	- 인도 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국내 제조·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약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계획을 승인함 - 인도 현지 기업으로는 TDS Lithium Ion Battery Gujarat Private Limited, Telex India Industries Pvt. Ltd, Waaree ESS, Euclion Energy Private Limited, Bharat Power Solutions, Karacus Energy Pvt Ltd 등이 있음
	진출방안	2015년 이후 인도에서 수입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총수입량의 3/4 이상이 중국 제품이므로, 품질을 강화하면서 가격 면에서 CEPA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정부는 이차전지 관세(5%)를 2022년까지 유지 후 15%까지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20.9)
품목명 4		
식기세척기	선정 사유	인도에서 식기세척기 시장은 성장 초입 단계임. 대부분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며 설거지를 대신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의 등장과 함께 가족 구성원의 가사노동 시간이 확대되어 식기세척기 수요가 전년 대비 30~50%씩 성장함.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수요 급증, 2026년까지 7.1%의 판매 성장을 전망
	시장 동향	- 식기세척기는 설치 환경에 따라 빌트인(Build-In, 싱크대 하부장에 걸레받이 절단 없이 붙박이 형태로 설치하는 제품)과 프리스탠딩(Free-Standing, 싱크대 위나 바깥에 따로 설치하는 제품)으로 구분됨 - 인도의 경우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공급이 제한적이며 프리스탠딩 제품이 대개 유통됨. 시장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2017년 2,400만 달러, 2019년 2,86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5,750만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2021년은 7,0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경쟁 동향	인도 식기세척기 시장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에스에이치 생활가전(BSH HouseHold Appliance, 보쉬(Bosch) 및 지멘스(Siemens) 보유)은 인도의 가정이 보통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유형임을 착안하여 2021년 6월 대가족 고객을 겨냥한 대용량 식기세척기 모델을 출시함. 또한, 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고온에서 항균 식기 세척에 적합한 하이진80(Hygiene 80 Air) 방식을 도입
	진출방안	- 인도의 식기세척기 수입은 연간 51백만 달러 규모로, 튀르키예, 대한민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50%(2020년 기준)가량을 차지함 - 식기세척기는 인도에서 여전히 새로운 제품이고 일반가전(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에 비해 수요가 적은 상황. 판매 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 루트를 확보하고 식기세척기가 손 설거지에 비해 세척력이 우수하고, 가사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품목명 5		
전기차 충전소	선정 사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총력, 2030년까지 자가용 30%, 상용차 70%, 이륜차 및 삼륜차 80%까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 발표
	시장 동향	- 현재 인도에는 약 1,640개의 공용 전기차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부는 2022년 1월 EV 충전 인프라에 대한 개정된 통합 지침 및 표준을 발표 -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 내 22,000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
	경쟁 동향	Delta Electronics India, ABB India, Tata power, Amara Raja, Magenta Group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음
	진출방안	-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의 공급 및 설치뿐만 아니라 인도 내 부족한 기술인력 수요에 발맞추어 다양한 후속관리 지원을 진행 - 현지 인도 전기차 회사들과 협력
품목명 6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	선정 사유	- 팬데믹 기간 동안 체육관이 문을 닫았으며, 집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피트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급증하면서 2019/20년도 관련 시장 규모는 3억 2,900만 루피에서 2020/21년도 5억 7천만 루피로 크게 성장 - 해당 부문은 2024/25년도까지 10.7%의 연평균 성장률전망
	시장 동향	- 현재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Amazon에 따르면 건강 및 피트니스 카테고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함 - 검색 트렌드로 보았을 때, 런닝머신(1.5배), 홈짐(1.3배), 웨이트(1.2배)로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 시장의 성장은 주로 트레드밀, 가정용 자전거, 덤벨 세트가 주도하고 있으며 요가 매트, 운동밴드, 폼 롤러 등 액세서리 수요도 증가 추세 - 인도 내 新 피트니스 시장 트렌드에 따라 근력 운동 위주의 헬스장 피트니스가 아닌, 집에서 하는 정적 운동의 수요가 높아졌으며, 피트니스는 웨어러블 기기, 피트니스 앱, 유튜브 등의 성장과 함께 더욱 빠르게 커가고 있음
	경쟁 동향	- 현지에는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를 제조 및 수입하는 다양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음 - Lifelong India, Flexnest, Trade.fit, Cosco, Sketra, Powermax 등이며 주요 경쟁국은 중국과 대만
	진출방안	KOTRA 등 다양한 기관들의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통해 인도 내 관련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체육관, 온-오프라인 소매업체, 액세서리 취급 바이어 등 매칭 가능
품목명 7		
디지털 교실 장비	선정 사유	-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스마트 교실과 원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인도의 스마트 교실 시장은 최근 2년간 주요 도심지 학교에서 채택하며 큰 추진력을 얻었고, 2021~2026년 5년간 연평균 4.05%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2026년에는 1,61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시장 동향	인도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E-Learning 시장이 되었음(KPMG, '22).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최고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의 수요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음

		2024년에는 47%의 학습 관리 도구가 AI 기능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IBE, '22) 2015년 모디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 정책 시행에 따라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동 이니셔티브에 따라 교육 부문의 대화형 화이트보드(Interactive White Board) 솔루션 구현을 증가시켰음 - 스마트 교실 설립에 대한 정부 승인은 2020/21년도 16,223건에서 2021/22년 42,311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ICT 연구소 또한 2020/21년 4,090건에서 2021/22년도 10,77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경쟁 동향	- 동 제품은 인도 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비를 중국, 독일,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주요 기업으로는 Cybernetyx Technik Germany, Delta It Network India, Infralab India, EBIX Smartclass 등
	진출방안	- 대부분의 인도 기업은 사립 및 공립학교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제휴를 희망 - 제품은 주로 교육기관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판매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KOTRA 등 사업 파트너 연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수입업체를 발굴할 수 있음
품목명 8		
알루미늄 잉곳 (다이 캐스팅)	선정 사유	- 알루미늄 잉곳은 '미래의 금속'이라 불림. 향후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소재로 전기, 운송, 포장, 건축 및 건설, 국방,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 사용되고 있음 - 특히,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운송업에 알루미늄 합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BS-IV 규범 등 친환경 규제로 고강도 경량 소재 수요가 인도 시장의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나, 해당 부문에 인도의 전문성은 매우 낮은 편
	시장 동향	- 인도 알루미늄 산업은 인도 제조업 GDP의 약 2%까지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4,0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음 - 인도는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에 대한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합금 알루미늄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인도 자동차 부품 관련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Die Casting) 시장은 2020년 10억 9천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8억 1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고, 2021~2026년 기간 연평균 8.8%로 성장할 전망 - 한국은 합금 알루미늄의 주요 조달처 중 하나로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특히 전문화된 합금 잉곳을 수입해왔음. 인도 생산업체 중 한 곳인 힌달코는 자회사인 노블리스(Novelis)를 통해 한국에 2개의 알루미늄 가공공장을 두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인도의 알루미늄 잉곳의 주요 수출국임
	경쟁 동향	- 말레이시아는 인도의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 합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2019~20년 에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음 - 또한 인도에 꾸준히 제품을 공급해온 카타르, UAE, 바레인 등도 점유율의 약 31% 가량을 차지함
	진출방안	- 한국은 자동차용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을 타겟으로 진출이 가능함 2017년부터 한-인 CEPA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인도는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화물 도착 전 미리 화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구분	내용
온라인 비디오 클립 플랫폼	선정 사유	글로벌 컨설팅사 Bain&Compan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6억 4,0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5억 5,0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약 1.3조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이것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스마트폰 사용자는 매일 약 4.8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는 데 소비하며, 그중 평균 한 시간은 영상물을 시청하는 데 소비
	시장 동향	- 경영 컨설팅사 Red Seer Consulting에 따르면, Moj, Josh와 같은 짧은 비디오 클립 앱은 2030년까지 최대 190억 달러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짐 2020년 중국 단편 비디오 클립 앱 TikTok이 인도 시장에서 퇴장한 후 인도 단편 비디오 앱 시장에는 현재 3억 명의 누적 사용자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전함 - 또한, 인도의 온라인 비디오 사용자 기반은 3억 5,000만 명 이상으로 확장되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4% 성장하였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보다 거의 두 배 빠르게 성장함. 동시에 이용자의 일일 평균 사용시간 또한 함께 증가
	경쟁 동향	2020년 6월 인도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 지 6개월 후, MX TakaTak, Moj, Roposo, Josh 등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
	진출방안	Facebook 및 Instagram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볼리우드 및 할리우드와 관련된 주류 콘텐츠에 중점을 둠. 그러나 짧은 비디오 클립 앱은 이러한 개념을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고, 지역 기반 콘텐츠에 중점을 둠. 이러한 신규 플랫폼은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도 함
품목명 2	구분	내용
핀테크	선정 사유	- 인도의 핀테크 산업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 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16%), 영국(15%), 중국(10%)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BCG, '22) - 타밀나두의 MK 스타린 주총리는 2021년 11월 23일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에서 개최된 투자 컨퍼런스(Tamil Nadu Investment Conclave)에서 타밀나두주 핀테크 육성정책을 발표함
	시장 동향	- 인도는 전역에 7,460개의 핀테크 기업이 포진하고 있으며 2021/22년도 기준 IT 관련 고용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타밀나두 주정부는 이번 핀테크 정책을 통해서 2025년까지 타밀나두를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몰려드는 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비전 2021년 상반기 중 인도의 핀테크 산업에 20.6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중 남인도에 20% 이상 투자 예정 - 핀테크 셀(FinTech Cell) 설치로 통해 국제적으로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 - 핀블루(FinBlue) 설치 및 운영을 통해 ① 샌드박스 프로그램 ② 투자가 연계 ③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

	경쟁 동향	- 타밀나두의 IT 서비스 산업은 2019/20 회계연도 중 1,390억 루피(186억 달러) 가량의 서비스를 수출함 - 특히 타밀나두의 주도 첸나이는 인도에서도 서비스 소프트웨어(Service as a Software, SAAS) 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이미 두 개의 유니콘 기업(Zoho, Freshworks)을 보유 중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수 글로벌 기업들 역시 핵심 재무, 회계 및 여타 고급 재무 프로세싱 업무를 타밀나두 및 카르나타카에서 수행하고 있음
	진출방안	◦ 타밀나두주는 첸나이 등지에 기 조성된 IT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하여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 ◦ 첸나이는 IT 기업의 핀테크 기업화를 노린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중앙은행(RBI) 규제 영역 및 인센티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타밀나두 주정부의 금융 규제와 외국인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인도 현지 기업들과의 M&A를 통해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음
품목명 3	구분	내용
온라인 모바일 게임	선정 사유	◦ 인도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사실상 경제활동 또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음 ◦ 최근 2년간 온라인 게임 시장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올해 약 11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인도에서는 온라인 PC게임보다도 모바일 게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음
	시장 동향	◦ 글로벌 컨설팅사 KPMG에 따르면, 인도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8억 8,500만 달러의 규모까지 성장하였으며 향후 인터넷 인프라 개선과 유저 숫자 증가로 잠재력 면에서도 투자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글로벌 게임사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경쟁 동향	◦ 현재 인도에는 15,000개 이상의 게임 개발사들이 존재하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Nazara, Dream 11, Games24x7, Paytm First Games, Mobile Premier League 및 JioGames 등이 있음 ◦ 게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산업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적극적인 장려 및 산업화 유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진출방안	◦ 인도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게임 콘텐츠 다변화, 청년층 게임 유저 증가, 인터넷 여건 개선 등을 이루어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은 명백 ◦ 그러나 인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게임상의 금전적 배팅 룰(도박)에 대한 규정을 주정부 차원으로 규제함 ◦ 특히, 판타지 스포츠는 인도 자국 게임사들의 출시작이 이미 많으며 크리켓과 같은 스포츠는 한국에서 즐기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공략이 쉽지 않을 수 있음. 또한,틴파티(Teen Patti), 러미(Rummy)와 같은 카드 게임도 인도 문화권에 맞게 일부 변형이 되었으며 이미 현지어로 제작된 버전이 있음을 현지 진출 검토 시 참고해야 함

품목명 4	구분	내용
웹툰	선정 사유	- 인도 내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마니아층이 존재하며 한류 열풍으로 웹툰 수요 존재 - 한국 진출 기업에 따르면, 동사 웹툰 이용자는 일일 6만~10만 명으로 고객층이 이미 존재
	시장 동향	◦ 인도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24년에는 310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전망 - 인도 최초의 웹툰 앱인 Kross Komics가 월 11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유치했으며, 관련 앱은 서비스 시작 이후 3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 - 2021년 4월 또 다른 웹툰 어플리케이션 Toonsutra 인도 시장 진출 - 웹툰의 데이터 트랙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1군, 2군 도시의 여성들에게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쟁 동향	- 웹툰 진출 기업으로는 Kross Komics, Toonsutra 등이 있음
	진출방안	- 인도의 웹툰 시장은 초창기 시장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웹툰이 아직은 생소한 부문임 - 기업은 웹툰의 출판 및 홍보를 위해 주요 웹 출판 업체와 제휴를 통한 진출이 가능
품목명 5	구분	내용
에듀테크	선정 사유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IT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에듀테크 시장 성장 잠재성이 높다고 분석 ◦ 평균 연령 27세, 고등과정까지의 학생 수가 약 2억 6천만 명으로 에듀테크의 수요가 높으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계속하여 증가 중
	시장 동향	◦ 인도 투자사인 Blume Ventures에 따르면 인도 에듀테크 시장은 2020년 7억 5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5년 4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또한 2021년 7월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는 약 7.8억 명이며, 이런 성장세는 에듀테크 시장에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함 ◦ 인도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교육 예산 지출을 GDP의 약 6%로 늘림으로써 에듀테크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경쟁 동향	◦ 인도 내 주요 에듀테크 기업으로는 Byju's, Vedantu, Unacademy 등이 있음 ◦ 인도 내 주요 에듀테크 기업인 BYJU'S는 인도 교육시스템에 알맞은 학습 플랜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초중고 과제나 학습뿐 아니라 대학 입시 과정 서비스도 제공하며 약 9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보유
	진출방안	◦ 국내 에듀테크 기업은 인도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현지 교육과정과 현지어 등 장애요소가 많으므로 현지화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접근이 필요. 인도는 교육의 온라인화 초기 단계로서 현지 기업과의 기술적 협업, 기술과 학습 시스템 등의 현지화 및 홍보 필요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수출 기회 다변화	◦ (식품) 전남, 대구 인도 무역 사절단	1분기/뭄바이
2		◦ (소비재) 서남아 소비재 전략무역사절단 - 2023년 전자상거래 입점 국내 기업 발굴, 상담 통한 벤더 연결,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	1분기/뉴델리·벵갈루루·뭄바이·콜카타
3		◦ (소비재) Korea Fair in India 2023	3분기/뉴델리·첸나이
4		◦ (신규 사업) Cosmoprof India 2023 한국관 사업 - 인도 최대 화장품 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화장품쇼, 상담회 등 부대 행사 추진	4분기/뭄바이
5		◦ (서비스) AI, 에듀테크, 문화 콘텐츠 등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 발굴 및 지원	연중/뭄바이
6		◦ (소비재) 인도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 주요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유망 소비재 기업 입점 지원 (빅바스켓(식품), 나이카(화장품), 크로마(전자제품) 등)	연중/뭄바이
7		◦ (식품) K-푸드 인도 진출 지원 사업 (SwadKorea) - 국내 관심 기업 대상 상반기 식품시장 설명회/수출상담회 개최 및 하반기 판촉전 추진	연중/뭄바이
8		◦ (소비재) 한류 소비재 화상상담회 - K-Food, K-Beauty, K-Medical	연중/뭄바이
9		◦ (소비재) 아마존 인디아 입점 지원 - 본사와 협업으로 인도 진출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인도 시장 현황, 인증 및 입점 프로세스 관련 설명회 개최(6월) - 입점 기업(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시행하여 국내 기업의 매출 확대 지원(하반기)	연중/벵갈루루
10	글로벌 GVC 대응	◦ (투자) 한-인도 경제협력 포럼 ◦ 한국의 GVC 다변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지원, 단기적 수출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 포트폴리오 확대	2분기/뉴델리
11		◦ (전기차) 인도 미래차 GP 상담회	2분기/첸나이, 콜카타
12		◦ (기계/부품) 경남 기계부품 전략 무역사절단	7월/벵갈루루
13		◦ (기계류) 한-서남아 기계사절단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협업 국내 기업 10개 사 참가	3분기/암다바드
14		◦ (의료) 의료장비 공급망 진입 지원	하반기/벵갈루루
15		◦ (중간재) 인도 제조업 GVC 진입 지원 - 정부 Self Reliant 정책, 공급망 재편 흐름 대응	연중/뭄바이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6		◦ (기계/부품) 인도 GP 핀포인트 상담회 - 부품 수입,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논의 위한 상담 주선 및 성약 지원	연중/뭄바이
17		◦ 인도 전략 무역사절단 지원 - IT, 기계 등 지자체 수요에 따라 업종별 추진	연중/뭄바이
18		◦ (종합) 맞춤형 무역사절단 지원 - 지자체 협업, 국내 기업 10개 사 참가	연중/첸나이
19		◦ (의료) 한-서남아 의료 사절단 - 국내 고객 10개 사 참가	연중/암다바드
20	다양한 분야의 투자 진출 촉진	◦ (진출) 네팔 신시장 개척 사업 ◦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확대를 위한 네팔 신시장 개척 방안 모색 ◦ 양국간 협력 수요 발굴, 국가 정보 및 산업 조사	연중/뉴델리
21		◦ (그린, 프로젝트) 탄소 감축, 그린산업 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연중/뭄바이
22		◦ (원자력) 인도 원전 관련 프로젝트 발굴 및 현지 시장 동향 조사 지원	연중/뭄바이
23		◦ (프로젝트) 인프라, IT 관련 프로젝트 집중 발굴 및 국내 기업 인도 진출 지원	연중/벵갈루루
24		◦ (방산) 방산 부품 분야 인도 진출 지원 - 빅데이터 활용 기회 발굴(4~5월), 인도 방산 GP 주간(6월),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 확대(하반기)	연중/벵갈루루
25		◦ (스타트업) 한-인도 스타트업 협업체계 구축 및 글로벌 점프 300 등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지원, 핀포인트 피칭 지원 등	연중/뉴델리, 벵갈루루, 첸나이
26	對인도 통상 협력 확대 및 기존 무역 투자 기반 활용	◦ (경협) 한-인도 미래 산업 파트너십 ◦ 인도 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에 따라 신산업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 ◦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신산업 분야 협력 추진 및 한국의 혁신 기술 및 인도의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2분기/뉴델리
27		◦ (ESG) 인도 ESG 자료 발간	3분기/뉴델리
28		◦ (정보 제공) 인도 통상 규제 환경 자료 발간	4분기/뉴델리
29		◦ 타밀나두 진출 기업 규제 동향 긴급 온라인 설명회 - 총영사관과 회계법인 공동 추진, 비즈니스 정보 제공	반기별 1회/첸나이
30		◦ 남인도 진출 기업 경제 동향 웨비나 - 총영사관과 공동 추진, 비즈니스 정보 제공	반기별 1회/첸나이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31		◦ (CSR) 팀코리아 한-인도 경제협력 CSR	반기별 1회/뉴델리
32		◦ (ESG) 우리 기업 현지 CSR 활동 지원	상반기/뭄바이
33		◦ (현지 진출) 중서부 진출 기업 대상 경영간담회 개최 - 뭄바이 총영사관과 협업 추진	하반기/뭄바이
34		◦ (정보 제공) 인도 문화백서(Gate of India) 발간 - 인도 진출 기업 위한 인도 시장 입문자료로서 인도 문화/성향/취향/언어/종교 등 심층 조사	하반기/뭄바이
35		◦ (현지 진출) 인도 정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연중/뉴델리
36		◦ (현지 진출) 인도 진출 기업 경영 지원 세미나	연중/뉴델리
37		◦ (현지 진출) 진출 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 대상 인도 진출 뉴스레터 발간	연중/뉴델리
38		◦ (현지 진출) 진출 기업 수출 지원, 투자 상담 및 자문, 한국 기업 현지 진출 지원	연중/뉴델리, 첸나이
39		◦ (현지 진출/구인구직) 한국인 인도 현지 취업 지원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의 인도인 취업 지원	연중/뉴델리
40		◦ (지식재산권) 이동식 데스크 운영 및 세미나, IP 관련 자문 등	연중/뉴델리
41		◦ (CEPA) 통관협의회 운영 및 통상 애로 해소	연중/뉴델리
42		◦ (CEPA) 인도 통관 환경 안내 및 홍보	연중/뉴델리
43		◦ (M&A) 희망 기업 맞춤형 매물 발굴	연중/뉴델리
44		◦ (팀코리아) 인도·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협업, 주요 이슈 대응	연중/뉴델리
45		◦ (공급망) 공급망협의회 실시	연중/뉴델리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헌법 제정일 (Republic Day)	2023.1.26	대통령 연설
(지방선거) 메갈라야, 나갈랜드, 트리푸라, 카르나타카, 차티스가르, 마드야 프라데시, 미조람, 라자스탄, 텔랑가나	2023년	-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2023.8.15	총리 연설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인도 2023/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2023년 2월 1일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인도 홈, 퍼스널 케어 전시회 (Home and Personal Care Ingredients Exhibition and Conference)	1월 16~17일	뭄바이
인도 금융기술 및 장비 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ference on Banking Technology, Equipment & Services)	1월 19~21일	뭄바이
인도 벵갈루루 공작기계 전시회 (IMTEX 2023)	1월 19~25일	벵갈루루
인도 플라스틱전 (PlastIndia)	2월 1~5일	간다나가르
인도 에어로 인디아 2023 (Aero India 2023)	2월 3~5일	벵갈루루
인도 벵갈루루 석재 박람회 2023 (STONA 2023)	2월 15~18일	벵갈루루
인도 국제 광산업 및 장비 박람회 (International Mining, Equipments, Minerals And Metals Exhibition)	2월 15~18일	콜카타
인도 철강 전시회 (INDIA STEEL)	2월 20~22일	뭄바이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인도 제지 전시회 (Paperworld India, PWI)	2월 23~25일	뭄바이
인도 에어컨 전시회 (ACREX India)	3월 14~16일	뭄바이
인도 인쇄 전시회 (PAMEX)	3월 27~30일	뭄바이
인도 화학약품 전시회 (ChemProTech India)	4월 18~19일	뭄바이
인도 그린 에너지 엑스포 (Vibrant Green Energy Expo)	4월 20~23일	암다바드
제조 및 라벨링 박람회 (Contract Manufacturing & Private Label Expo)	5월 4~5일	뭄바이
LED 박람회 (LED Expo Mumbai)	5월 11~13일	뭄바이
인도 직물 전시회 (Gartex Texprocess India, GTI)	5월 11~13일	뭄바이
인도 의료 박람회 (Medical Expo India)	5월 26~28일	콜카타
인도 목재산업 전시회 (INDIAWOOD 2023)	6월 2~6일	벵갈루루
인도 벵갈루루 국제배터리산업 전시회 (Battery India 2023)	7월 5~7일	벵갈루루
인도 의약기술 엑스포 2023 (PharmaTech & LabTech Expo 2023)	8월 25~27일	암다바드
인도 소방안전산업 박람회 (Fire & Security India Expo)	8월 26~28일	온라인
인도 기계전 (International Machine Tools Expo)	9월 1~3일	뭄바이
식품 전시회 (ANUTEC - International FoodTec India)	9월 7~9일	뭄바이
인도 청정사업 전시회 (Clean India Show)	9월 13~15일	뭄바이
인도 해양전시회 (INMEX SMM India)	10월 4~6일	뭄바이
인도 플라스틱전 (Plastivision India)	12월 7~11일	뭄바이
2023 건설장비 및 건설기기 무역박람회 (EXCON 2023)	12월 12~16일	벵갈루루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채정훈	과장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310)	jhchae4922@gmail.com
2	윤소연	관세사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312)	yoons@kotra.or.kr
3	김성권	대리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320)	skk0920@kotra.or.kr
4	류찬영	대리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312)	ryu0013@kotra.or.kr
5	김윤지	대리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	-
6	Jaya Soin	E.Mng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	jaya@ktcdelhi.net
7	Asna Arif	A.Mng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	asna@ktcdelhi.net
8	Hanisha Shivnani	A.Mng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	hanisha@ktcdelhi.net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클린신고센터(부패신고채널)

전화: 02-3460-7010 Email: clean@kotra.or.kr Fax: 02-3460-7902

우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